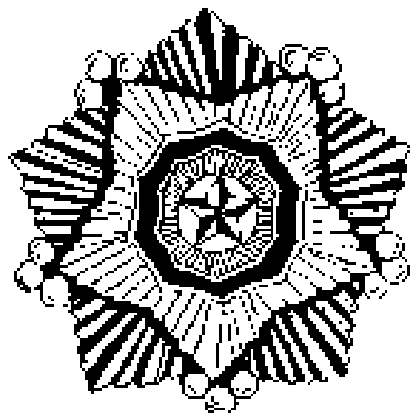


2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2호

(루계 제 688 호)

## 차 례

2 월의 아침에 드리는 축원 .....	4
장군님과 칠보산 .....	5
류성이 없는 세계 .....	10
최고사령관의 인사 .....	20
총대아버지 .....	21
전호가의 물축새소리 (외1편) .....	22
급행렬차 .....	23
병사가 떠나갈 때 .....	23
《작가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24
장군님의 세계 .....	25
선군시대에 새롭게 정식화된 음악의 인간학적본성 .....	26
력사의 준엄한 대결을 깊이있게 형상한 진실한 화폭 .....	29
노래의 고향 .....	33
다시 찾은 이름 .....	34
《천강지출》 .....	35
연띠우는 보름날 .....	39

《자동차운전사의 노래》가 창작되기까지 .....	40
백두산은 언제나 나의 신념의 기둥이었다.....	41
한 전쟁로병이 들려준 이야기.....	45
넋은 미래에 산다.....	46
중편소설 《월로폴람스크대로》에 대하여 .....	58
선군시가문학에 비낀 정서적색갈.....	60
주체문학의 대강 .....	62
고향의 시내가에서 .....	62
내 고향의 자랑 .....	63
밤노을 .....	64
내 고향의 불노을.....	65
그리움의 불야경 .....	66
5 호물동가에서.....	67
영원한 조선의 봄.....	67
우리 마을 설 풍경.....	67
재부에 대한 생각.....	68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에게 .....	69
송고한 그 뜻에 받들려 .....	70
대동강아, 네가 비껴안은것은... ..	71
대동강물결우에 장강의 모습 어렸네 .....	72
대안의 새벽 .....	72
채 쏘지 못한 총탄.....	73
도 립.....	78

# 《모두 다 선군혁명 총진군 앞으로!》

송시

## 2월의 아침에 드리는 축원

김승남

백두산의 장엄한 해돋이  
정일봉에 진하게 물들어  
온 누리를 비치며 밝아온  
2월의 아침입니다

떨기떨기 축복의 다발인양  
소백수가의 하얀 서리꽃  
물소리와 어울려 한겨울 잠을 깨워  
얼어붙은 얼음장이 풀립니다  
눈석임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꽃의 세계를 펼치며

**김일성** 화 **김정일** 화는  
강산에 만발합니다  
불세출의 위인칭송의 노래  
장중하게 울려 퍼집니다

환희로 부푸는 가슴마다에  
백두의 푸른 기상 한껏 약동합니다  
백두가 낳은 빨찌산의 아들  
장군님을 경건히 우러르는  
온 나라의 마음속에  
행복의 꽃바다가 출렁이며 물결칩니다

아, 생각도 깊어지는 아침입니다  
선군의 총대에 받들려  
예순돛의 년륜을 새겨가는  
어머니당의 위업과 조국해방의 감격이  
눈앞에 어려오는 2월입니다

비범하신 천출명장 그이 계시어

위대한 선군의 기치아래  
불멸의 혁명실록 별처럼 수놓아지고  
선군태양이 빛발쳐  
우리 시대가  
더욱 찬연히 눈부신것 아닙니까

2월을 따라 폭풍쳐가는 우리 세월  
백두의 선군령장을 받들어모시여  
원쭉들의 숨통을 한손에 거머쥐고  
자주적근위병의 존엄을 떨쳐가는  
선군시대가 즐기치게 흘러갑니다

백두밀영고향집에서  
시작된 이 아침은  
선군조국으로 불리우는  
민족이 받아안은 경사의 아침  
인류의 다함없는 행운의 아침

사회주의조선의 뿌리가  
만경대와 백두산에 억척같이 내려져  
**김정일** 강국으로 천만년 부강할 이 땅에서  
인민의 념원이 노을처럼 빛나  
후손만대 만복이 꽃피날  
이 아침은 참으로 무궁찬란하거니

우리 삶의 태양이며  
운명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시여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안고  
인류의 불타는 념원을 안고  
부디 건강하시라

## 장군님과 칠보산

전승일

유구한 력사 반만년  
세월의 이끼 덮여덮여  
누구도 찾는이 없던  
서러운 북변의 산 칠보산

삼천리 강토가 동란에 울고  
백성의 원한이  
천고에 사무쳤던 수난의 세월에  
칠보산아 너에게만은  
열이 없고 냉이 없어  
있던듯 없던듯  
력사의 눈길밖에 버림받고있었나니

세상과 백척의 담을 쌓은 산이  
바로 너였더라  
세상소식 알리는 날새도  
칠보산 박달령만은  
그리도 날아넘기 힘들었던가

해방의 8월이 온지도 모르고  
순사는 긴 칼을 철켜덕거리고  
칠보산화전민은 그앞에 허리굽혔다는  
기막힌 전설을 전해주는 칠보산

누가 알았더라  
가장 뼈저렸던 준엄한 세월  
희세의 위인의 발자욱이  
한번도 아닌 다섯번씩이나  
네우에  
찍혀지고 또 찍혀진 그 거룩한 세계를

내 오늘  
칠보광채 세상에 뿌리며  
천하제일명산으로 솟아 빛나는  
너 산정에 올라  
장군님의 자욱자욱을 밝아보노라  
사나운 겨울날  
그 하루에 새겨진 이야기를  
가슴젖어 더듬어보노라

×

칠보산에 오시는  
장군님의 걸음  
어찌하여 이깎도 얼어터진다는  
사나운 겨울계절에 이어지는것인가

좋은 날 좋은 계절만 골라  
어서 오라 인민을 불러주시더니  
우리 장군님  
필필 눈발을 헤치시며  
차디찬 11월  
립동계절에 또 오시였구나

명산의 경치는  
화창한 봄철이 좋다고  
끝마다 봄이마다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여난  
칠보산의 봄계절이 좋다고  
그리도 말씀하시더니

하늘높은 가을철엔  
만산마다 불달린듯  
단풍든 칠보경치가 기가 막히다고  
사랑의 꽃뻘스에 태워  
인민들을 떠밀어보내시던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던가

오성산과 대덕산  
1211고지와 관문점...  
밤도 없이 낮도 없이  
그 좋은 계절들엔  
천리전선 전호가를 다 찾으시고  
오늘은 이렇게  
산발마다 하얗게 덮인  
눈을 밟고 오시였구나

나는 모른다  
옛적에는 달구지길도 없어  
사람이 소가 되어  
조심을 이고치고

허이 허이 장길에 오르내렸다는  
60리 박달령을 굽이굽이 돌아내리는 야전승용차

그 차머리와 차창마다에  
두텁게 얼어붙은 하얀 성에가  
철령에 쏟아져내린 눈은 아닌지  
자강땅에 휘몰아친  
그 모진 눈보라는 아니었는지

수천수만의 발걸음이  
이 명산을 오르고 내리였어도  
눈덮인 계절에  
숨동복 입고 찾아오는 탐승객은  
이 칠보산에 없었더라  
아 우리 장군님께서만은  
명산의 굽이굽이를 걸으시면서  
한걸 야전복차림으로  
그 차디찬 눈바람을  
다 맞으시지 않으면 안되더라 말인가

한번 오르면  
십년은 젊어진다는 칠보산이  
인민에겐 즐거운 탐승길이였어도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앞엔  
북방의 천하명산 이 칠보산도  
민족의 운명을 떠메신  
준엄한 선군장정의 한 고지처럼 솟아있었음을  
내 눈물겹게 깨달았노라

설경의 칠보산이 멋이 있다고  
단풍든 칠보산도 좋지만  
흰눈이고 치솟은  
장엄한 칠보산이 더 좋다고  
눈덮인 명산에 호탕한 웃음발 날리시며  
우리 장군님 앞장에서  
내칠보 탐승길을 헤쳐가신다

저것 보라  
수수천년 옛적에도  
부자와 빈자가 있어  
저렇듯 기와집바위는  
호화로움 뽐내고  
그밑에 웅기종기 초가집바위들은  
서글픈 저녁연기  
모락모락 피워올리는것 같다고  
불우했던 칠보산력사를

추연히 번져보시는 장군님

둥기당당 악기소리 울릴듯싶은  
탄금대를 지나  
만권의 장서가 쌓였다는  
서책봉도 지나  
어느덧 레문암에 이르시여라

신랑 신부 첫날밤  
팔을 끼고 이 레문암 통과하면  
옥동자 옥동녀 낳고  
검은 머리 백발되도록  
길이길이 백년해로한다는  
사랑의 돌문 레문암

티각태각 의맛지 않은 부부간도  
팔을 끼고 레문암 지나면  
신비로운 결혼의 첫밤처럼  
순간에 정깊고 행복한 부부로 된다는  
전설의 돌문 레문암

이렇게 사랑이 쏟아져내리는 문으로  
우리 인민모두를 들여세우는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이 세상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받아들여올리는것이  
나의 의지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모두 팔을 끼고  
이 레문암을 통과해보자고  
또다시 호탕한 웃음발 날리시며  
전설의 돌문으로 들어서신다

누가 알았던가  
이 나라 인민모두가  
단란한 가정의 밥상에 앉아  
더운 밥을 뜨고있을 이 립동의 이른아침  
우리 어버이장군님께서만이  
마음속에 인민을 다 안으시고  
찬눈을 밟으시며  
칠보산의 한 돌문을 지나고계시는줄

더욱 몰랐더라  
온밤 천여리를 달려  
칠보산으로 오신 걸음인줄  
첨첨 박달령산정에

차를 세우시고  
췌기밥으로 아침끼니 에우신줄은  
더더욱 몰랐더라

굽이굽이  
또 한굽이 돌아서시는 장군님앞에  
불쑥 타종암이 앞을 막아선다  
이 칠보계곡에 억천만년 뿌리박고 서서  
칠보절경을 온 세상에 고하고저  
거대한 타종으로 솟구쳐일어선 타종암

볼수록 신통하다고  
때리면 찡찡  
끝안을 울릴것 같다고  
오래도록 눈길 떼지 못하시는 장군님  
마음속에 고패치시는 그 심중의 말씀  
내 조용히 들어보노라

나라잃고 원한 많던 그 옛날엔  
오느니 보느니 없어  
사람들 마음속 천리밖에  
칠보산은 울며 서있었고  
타종암 너 또한  
세월을 저주하며  
허깨물고 침묵시켜 서있지 않았더냐

오늘은 마음껏 네 메아리 터치라  
칠보의 천산만악이 진동하도록  
인민의 명산으로 된  
칠보의 일만경치  
온 세상에 소리쳐 자랑하라  
선군의 총대, 불패의 총대가  
조국을 지키고  
명산을 지켜준다고

힘있게 내짚으시는  
장군님의 걸음은 어느덧  
천개의 불상이  
알맞추 려지어 서있는 천불봉 지나  
크고작은 만개의 절간이  
불교의 《위엄》 뽐내는 만사봉도 지나  
《개심사》 절간 마당으로 들어서노라

황룡 청룡이 금시 불을 뿜을듯  
룡트림하며 처마를 받들고선  
웅건한 《개심사》

《대웅전》문을 열고  
장군님 들어서신다

유구한 역사를 사랑하는  
인민의 슬기와 재능은  
이 절간에도 력력히 남아있다고  
천년세월도 퇴색시키지 못한  
저 울긋불긋한 그림들과  
아름다운 단청무늬들  
세계최초의 목판활자로 찍혀진  
부피큰 불교 성전들우에  
장군님의 안광은 번개쳐가신다

력대 통치배들은  
수백년 궁전의 비화들과  
사화들은  
날날이 기록했어도  
조국의 명산, 이 칠보산만은  
그 어느 책에도  
단 한줄 적어놓지 않았다고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우리 세상에서는  
시인들도 불러  
칠보산노래를 짓고  
칠보산화첩  
칠보산영화도 잘 찍자고  
온 나라 인민들앞에  
명산의 절경을 통채로 안겨주자고  
뜨거운 사랑을 쏟아주신다

걸음걸음  
사랑을 앞세우고  
미소를 앞세우고  
또다시 외칠보 강선문  
가파로운 산길에 오르신 장군님

굽이굽이 칼벼랑 감돌아  
용수철마냥 휘감겨 뻗은 강선문으로 오르는  
60여만개  
돌을 깎고 다듬어  
하나하나 장석을 입혔다는  
인민의 뜨거운 지성을 헤아리시며  
생각깊이 오르시는 우리 장군님

황홀의 절경대가

우리 장군님을 반겨맞아라  
눈부신 해살은  
아롱다롱 칠보절경을 채색하는데  
발밑에 펼쳐진 하얀 안개의 바다  
안개의 바다위에 등등 떠있는  
크고작은 바위 바위 또 바위

칠보의 절경을 한껏 부감하시며  
천힘의 돌고지우에  
뿌리박고 일어선  
전설의 강선문앞에 이르신 장군님  
장관이라고  
강선문이 참으로 희한하다고  
환희에 넘쳐 말씀하시여라

땅우에 두다리를 뿌리박고  
거대한 산악의 돌문으로 일어선 강선문이며  
네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더냐  
장군님 모신 이 순간을 위해  
수수천년 외인들의 못발길 못미친  
전형의 산정우에 몸숨기고있었던 것만 같구나

마치도 돌무지개가  
건듯 하늘창공에 걸려있는것만 같은  
여기가 아니더냐  
네 돌무지개를 타고  
칠보절경에 반한 하늘선녀들이  
춤추며 미끄러져내렸다는  
아 강선문

온 나라 인민들을 다 불러  
이 강선문을 보여주자고  
옛적에는 하늘선녀들이 내렸었지만  
우리 인민모두를  
오늘의 선군시대  
선남 선녀로 내세워주자고  
기쁨에 넘치신 장군님말씀  
우렁우렁 칠보산 산밭마다에 메아리쳐라

중천의 해도 퍼그나 기울어지고  
상매봉 박달령넘어  
매운 바람 솔솔 불어오는데  
또다시 덕골길로 접어드시는 장군님앞에  
입술을 깨물며 바재이던 일군들이  
눈물 글썽히 아뢰었다  
-장군님, 이제는

점심시간도 펍 지났습니다

잠시 걸음멈추신 장군님  
일군들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신다  
인민들에게 보여줄 명소를 앞에 놓고  
여기까지 와서 돌아서겠는가  
한끼쯤 점심을 건너도  
인민들만 기뻐하면  
나는 배가 부르다고

내 선군의 총대를 틀어쥔것도  
인민을 지키기 위해서고  
힘겨운 철령을 넘나드는것도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가슴치는 덕골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신다

췌 췌-  
기세차게 바위벼랑에서 날아떨어지는  
장쾌한 덕골의 쌍둥이폭포  
날아내릴 땐 두폭의 하얀 명주필 같더니  
떨어져선 억만 구슬알처럼 휘뿌려지는  
물보라 물보라앞에서  
그리도 기뻐하시는 우리 장군님

이런 폭포를 못보고 돌아섰더라면  
일생 후회가 되었을것이라고  
오늘은 칠보의 옥계수로  
한껏 배를 채워보자고  
호탕히 웃으시며  
수정같은 맑은 물을  
한웅큼 떠올리신다

사람들이여  
오늘은 우리  
집채같은 돌을 다듬어  
미인같이 일떠세운 정각우에서  
찌렁 가슴이 열리도록 마셔보는  
차디찬 폭포수가  
그날엔 해종일  
인민을 위해 칠보산 굽이굽이 다 걸으신  
오, 우리 장군님 끼니를 대신했더라

금강산구경도 식후라지만  
우리 인민을 품어안으시고  
혁명의 맨 앞장에 서계시는  
우리 어버이장군님께서만이



끼니도 번지시며  
 칠보산 탑승길도  
 선군의 행군길처럼 굽이굽이 다 헤쳐가시었으니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정녕코 잊지 못한다  
 가슴치며 칠보산은 잊지 못한다

또다시 해칠보 바다가에 펼쳐진  
 민박숙소 설계도앞에 마주서신 장군님  
 휘휘 팔각을 하늘에 펼쳐든  
 궁궐같은 기와집들로 지어주자고  
 이 고래등같은 집에서  
 칠보산인민이 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함께 쉬라고  
 전설같은 사랑을 안겨주시는구나

대대로 부자는 기와집에서 살고  
 해종일 무딘 팍지로 땅을 짚던 농민은  
 초가집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칠보산의 눈물겨운 전설에도  
 영원한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우리 장군님  
 60리 박달령을 다시 내리실 때는  
 퍼그나 해 기울어진  
 석양무렵이었거니

칠보산이 정말  
 명산중의 명산이라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칠보의 나무 하나 바위 하나까지도  
 다 보고싶다고  
 헌신의 하루를 바치시고서도  
 뒤돌아보고 또 보시며  
 쉬이 걸음 떼지 못하시는구나

이 밤도 장군님의 야전승용차는  
 또 어디를 찾아가시는지  
 인민의 기쁨을 위해 행복을 위해  
 또 몇천리를 굽이쳐가야 하는지  
 인민이 간절히 바라고  
 인민이 뜨겁게 소원하는  
 부디 하루밤만이라도  
 평양에로의 귀로가 되어주었으면...

자옥마다 사랑을 남기시고  
 자옥마다 전설을 새기시며  
 우리 장군님 보내신  
 칠보산의 하루  
 립동의 하루는  
 이렇게 고요히 저물어갔다

×

신묘한 바위도 있고 봉이도 있고  
 절경의 폭포도 있고 바다도 있어  
 무한대한 아름다움의 대진렬장으로  
 굽이마다 황홀경을 펼쳐놓은  
 천하의 명산 칠보산

길없는 길을 찾아  
 걸어도 오르시고  
 톱아도 오르시며  
 마침내 5천년 력사의 락엽을 걷어  
 절세의 명산으로 빛발치게 해주신  
 아버지 우리 장군님

어찌하여 강철의 령장의 자옥이  
 최전연 총검의 산악을 내려  
 여기 북방의 명산으로 자주 오르시는지  
 장군님의 선군이 무엇을 지키고  
 장군님의 총대가 무엇을 위해 노도치는지  
 칠보산아 뜨거은 립동의 하루이야기로  
 세계앞에 네가 다 말해주고있지 않느냐

수수천년 명산이었어도  
 명산의 주인은 없었거니  
 인민의 주인된 명산이 되었다고  
 온 세상우에 빛나는 문패를 달아주신  
 아버지장군님 우러러  
 내 가슴젖어 아뢰이고싶노라

칠보산은 정녕  
 우리 장군님의 선군사랑의 명산이라고  
 칠보산의 위대한 주인은  
 선군의 총대로 아름다움의 절정우에  
 명산중의 명산으로 받아들여올린  
 선군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이시라고

# 류성이 없는 세계

락속본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자정이 넘은지도 켜 오래되어 이제는 삼라만상이 모두 잠들어 버린듯 사위가 고요하기 그지없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집무실에서 문건들을 보고계시었다.

지금은 무척 신중한 표정을 지으시고 방금전에 보신 문건을 다시 한장한장 번지시는 중이었다.

영평기계공장에 내려갔던 검열소조가 제출한 자료였다.

문건에는 이 기계공장 지배인 유락천이 공장관리운영에서 범한 파오에 대하여 씌여있었는데 알맹이를 추려보면 지난 기간 국가계획을 넘쳐수행해오던 자랑많은 공장이 그가 이 공장 지배인으로 부임되어온 몇해전부터는 총국적으로 계획수행들에서 제일 뒤진 공장으로 되었다는것이고 독선과 소총명으로 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공장지배인을 법적방법으로 교양하려 한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무거운 안색을 지으시며 《법적방법으로 교양하려고 한다.》라고 나직이 되뇌여보시였다.

10여년전에도 유락천이 생활문제로 하여 지배인직무에서 해임되어 현장에서 자신을 단련한 일을 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함축된 표현으로 일관되어있는 자료내용을 다시 상기해보시였다. 이런 자료를 대하시는 경우 그이께서는 언제나 마음이 가볍지 않으시였다. 동지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철석같은 믿음, 동지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실 의지를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김정일** 동지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창문곁으로 다가가시였다. 창문밖으로 펼쳐진 하늘가에서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있었다. 갑자기 별찌 하나가 꼬리를 길게 늘이며 사정없이 곤두박히고있었다. 그것을 보시니 문득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별찌를 두고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시였다.

《자연법칙에 따라 생기는 류성이지. 우리 혁명

대오에서는 별찌처럼 떨어지는 락오자가 있어서는 안되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민 모두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오.》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수령님의 말씀이시였다.

자리로 돌아오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유락천, 한번도 얼굴을 대하신적은 없지만 이름만은 그이의 기억속에 오래전부터 새겨져있는 사람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로부터 재를 털고 일어나야 했던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내어 세기적비약과 기적을 창조해오던 1960년대를 거쳐 천리마대고조로 온 나라가 뿔어번지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언덕을 넘어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깊은 연고관계를 맺고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이였다. 수령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하여 자주 회상하곤 하시였는데 그 많은 혁명전사들가운데 유락천지배인도 있었다.

그이의 뇌리속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유락천을 처음 만나던 때를 회상하시던 일이 마치도 봄비를 맞은 잔디마냥 또렷이 살아나고있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되던 어느해 겨울이였다. 눈보라치는 길을 쉬임없이 달리던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어느 한 고개길에서 문득 멈추어섰다. 좁은 언덕길로 힘겹게 올라오는 소달구지와 정면으로 마주선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차문을 여시고 내리실 때까지도 달구지임자는 그이를 인차 알아뵈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여 서있었다. 그러다가 꿈결에도 뵈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이심을 알자 어푸러질듯 달려왔다. 두눈이 역실역실하고 허우대가 큰 20대안팎의 젊은 청년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인사를 올리는 청년의 가슴은 뿔어오르는 격정과 흥분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제대군인으로구만. 그런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기에 이 추운 날씨에 령길을 가고있소?》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함에 젖고 성애가 불러 허열게 된 그의 옷자락을 손수 어루만져주시며 친아버지처럼 다정히 물으시었다. 청년은 어제날의 병사시절처럼 차렷자세를 하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제대배낭을 메고 고향에 돌아온 청년은 재더미로 변한 공장마을앞에서 억이 막혀 한참이나 움직일수 없었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렸다.

일가친척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 원쑤를, 이 원한을 어떻게 갚고 푼단 말인가. 당장 부대로 달려가 다시 손에 총을 잡고싶었다. 그가 재가루 펄펄 이는 동구길을 이리저리 거닐고있는데 멀지 않은 둔덕반이 토굴집에서 외태머리를 제비꼬리만큼 땡아늘인 처녀애가 쪼르르 뛰어나왔다. 하나밖에 없는 혈붙이인 누이동생이었다. 마을사람들은 아직도 반토굴집과 땅굴같은 움막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청년은 그날 동구길에서 녀동생을 품에 안고 계딱지처럼 땅에 들어붙은 반토굴집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땅에 불을 지른 미제가 보란듯이 내 고향, 내 일터를 다시 일떠세우리라고...

그날부터 그는 공장에 조직된 전후복구건설대에 망라되었다. 그곳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지난날 그와 함께 공장에서 잔뼈를 굳혀온 제대군인 청년들과 오랜 기능공들이었다.

그들은 재더미속에서 선반기들을 찾아내어 생산을 시작했다. 우선 파괴된 기계들을 복구하기 위한 부속품들로부터 시작해서 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들도 모두 자체로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었다. 공장은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얼마전부터는 사람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밥사발과 국사발, 숟가락, 저가락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서 생활필수품이야기가나오자 반색을 하시며 이렇게 되물으시었다.

《밥사발, 국사발, 수저를 만든단 말이지?》

청년은 그사이 어려움을 다 잊고 사발들은 자체로 로를 쌓아놓고 백토를 파다가 구워서 만든다고 묻지 않으시는 사연까지 죄다 말씀드리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지방의 자그마한 공장에서 벌써 사발들이 나오고 숟가락, 저가락까지 나온다는 사실이 그의 심정을 이토록 기쁘게 해드린것이였다.

《난 오늘 정말 기쁩니다. 아직 재더미나 다름없는 폐허에서 살고있는 인민들에게 밥사발과 국사발, 수저부터 안겨주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지배인은 어떤 동무입니까?》

어버이수령님의 물으심에 지금껏 신바람이 나서 말씀드리던 그 청년이 갑자기 주눅이 들면서 뒤더수기만 굵적거리었다. 사실 전쟁을 겪고나니 공장에는 돌아온 사람보다 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다나니 공장기술사업도 그렇고 생산도 전쟁전보다 떨어지고있어 공장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협소했다. 지배인도 당위원장도 없는 공장,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일한 경험으로 보나 기능소유정도로 보나 또 공장을 복구하고 도자기를 구워내는 로를 쌓는 일에서도 발벗고 앞장선 이 청년이 제일 적임자라고, 동무들이 한결같이 찬성하여 상급당조직에서는 그를 공장책임자겸 당위원장으로 임명했던것이다.

《그러니 동무가 공장장이었구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사연을 들으시고나서 오랜 막역지우라도 되는듯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고맙소. 동무는 나에게 우리 인민이 재를 털고 어떻게 일어서고있는가를 다시한번 생동하게 보여주었소. 동무야말로 진짜 공장장자격이 있소. 오늘 동무와 같은 제대군인출신의 공장장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쁘오.》

수령님과 유락천과의 첫 상봉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유락천이 공장장으로 일하고있는 그곳 생산현장을 친히 찾아가시여 그들이 만든 밥사발을 비롯한 생산물을 다 보아주신것은 그때로부터 얼마후의 일이었다. 그때에 유락천이 전쟁시기 희생된 전우들의 자식들을 10여명이나 데려다 키우고있었는데 이 사실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간 유락천을 알았다고, 동무는 나와 함께 끝까지 혁명의 길을 갈수 있는 진짜배기동지라고 얼마나 뜨겁게 말씀하시였던가.

그때부터 오락천의 한생은 걸음걸음이 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보살핌과 사랑, 크나큰 믿음으로 이어지고 빛나기 시작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대학에도 보내주시었고 대학을 마친 다음에는 어느 한 기계공장 지배인으로 임명해주시었다. 그후 유락천은 여러 초소들에서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 전력하다가 몇년전부터 영평기계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사업하고있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지나간 일들을 되새겨보시는 김정일 동지의 심중은 여전히 가볍지 않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것처럼 품들여키우신 일군이 오늘은 법적인 교양무대에 오르도록 변할수 있단 말인가. 그것

이 도저히 믿어지지 많으시었다. 대해같은 사람과 태양의 열원으로 만사물을 안아 키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는 한명의 락오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론을 좌우명으로 삼고계시는 **김정일** 동지이시었다. 더우기 유락천이야 수십년 세월 수령님께 충실해온 일군이 아닌가. 일하는 과정에 파오는 좀 범할수 있어도 그것이 그의 인간전모를 파괴하는것으로 된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인것이다.

《나는 유락천을 잘 압니다. 그는 전후의 어려운 나날에도 나의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문제를 풀자고 아글타글 뛰여다녔고 그후에는 기계공업의 전조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오랜 일군입니다. 그는 손탁이 세고 일숨씨도 있는 배짱있는 일군입니다.》

유락천을 영평기계공장 지배인으로 임명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쟁쟁히 울려오는듯 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믿음을 그대로 지니고싶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신임을 받는 일군, 여기에 그의 인간됨을 전부 믿고싶으신 그이의 심정이 짙게 깔려있었다.

문득 그이께서는 생각을 돌리시여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시었다. 기계공업부의 당사업을 맡아 보고있는 현정옥이였다. 그는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유락천이 지배인으로 일할 때 기사장사업도 한바있는 그의 오랜 친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때 유럽에 가서 류학을 하고 돌아온 현정옥을 유락천이를 도와주라고 그 공장 기사장으로 보내주시였던것이다. 그때부터 두 일군은 손을 맞잡고 마치도 형제처럼 재미있게 일했다. 현정옥의 결혼식도 유락천이 주관해서 하였고 첫살림도 유락천의 집 웃칸에서 시작했다.

끼니도 한집안식술같이 한가마밥을 먹으며 살다가 지배인집결에 기사장의 집을 따로 짓고서야 독살림을 폈다. 이러다보니 두집 아이들도 유락천, 현정옥을 두고 《큰아버지》, 《삼촌》하고들 불렀다. 공장 종업원들도 두사람이 꼭 친형제같다고 하면서 그들의 우정을 무척 부러워들 하였다. 10년세월을 두 일군은 이렇게 자별한 사이로 지내다가 현정옥이 기계공업부로 소환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런 사연을 알고계시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약간 갈린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김정일**입니다. 영평기계공장 지배인 유락천동무말입니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하게 된 사연을 자세히 설명하시었다.

《...자로는 심각합니다. 나는 동무가 현지에 내려가 사건의 전모를 다시 료해하여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밤이 깊었으니 아침에 떠나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곧 떠나겠습니다.》

현정옥이 정중히 울리는 대답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틀후 집무실에서 현지에 갔다가 돌아온 현정옥을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현정옥을 자리에 앉히신 그이께서는 《동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문건을 보면서 그 글줄들우에 유락천과 동무의 얼굴이 보이는것만 같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그래 어서 말하시오. 갔던 일을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라고 하시며 조용히 자리에로 돌아와 앉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흥분기가 다소 어린 현정옥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계시었다....

유락천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영평기계공장 지배인으로 조동되여온 때로부터 지난 몇년간 공장생산은 비교적 파동이 없이 진행되었다. 공장은 해마다 연간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여 총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었고 신문과 방송, 텔레비죤에도 여러번 소개되었다.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도 훈장과 메달이 늘어갔다.

이무렵 평온하고 안정된 생활에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마치도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파문과도 같이 삽시에 온 공장을 흔들어놓고말았다. 이 일은 유락천이 해외출장을 갔다온 후 어느날에 있는 행정간부회의에서 상반년도에 제강, 제철소에 실어보내게 되어있는 파고철수집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행정간부회의를 주관하고있던 유락천은 직장들과 부서단위의 책임일군들을 일으켜세워 파고철수집정형을 하나하나 따진 다음 사업수첩을 펼쳐놓으며 지난 기간 자력갱생기지로 만들어놓은 에나멜동선 생산기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자력갱생기지들을 많이 만들어놓았지만 실리적인 견지에서 보면 나라에 손해를 주는 기지라고 하면서 그 기지들을 몽땅 폐기하여 파고철로 제강소들에 실어보내며 거기에서 나오는 로력은 모두 기본생산현장에 돌리자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대로 실행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부문을 맡아보고있던 일군들속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유락천은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기의 결심을 완강히 내밀었다. 그뿐아니라 유락천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문제에서도 자기의 뚜렷한 주

견을 가지고있었다.

생산문화사업의 본질은 생산관결과 조건을 당의 요구에 맞게 위생문화적으로 잘 갖추어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면서 비실리적인 생산문화, 생활문화는 로동계급의 생산문화, 생활문화와 인연이 없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결상에 조용히 앉으시여 현정옥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그이께서는 도간도간 한마디씩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런 때면 현정옥이로 하여금 말하고있는 내용을 현상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자각을 스스로 느끼게 하였다.

현정옥은 될수록 내용을 함축하여 **김정일**동지께 계속 말씀올리었다.

《그후 유락천은 경제문제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문제에 대한 자신의 립장과 견해를 밝힌 유락천은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어느날 다음해 년간계획을 토론하는 마당에서 자력갱생기지문제를 제기할 때보다 더욱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래로부터 토론을 거쳐 종합된 자료를 놓고 다음해 인민경제계획문제를 토론하는 행정간부회의에서 유락천은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 지금까지 우리 공장 일군들은 매우 평온한 상태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해왔습니다. 평가도 좋게 받고 훈장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고있는 우리 공장 일군들을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울렸지만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줄에 꿰여잡아 당기기라도 하는듯 신묘한 힘이 있는것 같았다.

《나는 도대체 이 생활에 이미 싫증을 느끼고있습니다, 우에서는 우리 공장을 생산이 잘되는 공장, 일군들이 당과 조국에 대단히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말은 들을때마다 나는 죄스러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는 애국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일신의 보신을 먼저 생각하는 불효자식들입니다. 이제 내가 우리를 가리우고있던 보자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유락천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미 준비해가고있던 두툼한 자료철을 펼치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에서 말한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공장이 생산이 잘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장생

산지표가 어떻게 되어 근 20년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고정지표로 남아있었는가 하는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7-1>은 이미전에 생산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10년전에 생산지표를 대담하게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는 이 문제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그동안 생산지표에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장비를 개선하는것으로부터 모든 생산공정들을 바꾸어야 하는 기술실무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때문이였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동없이 진행되던 생산공정들이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그것은 공장생산계획수행에 일시 엄청난 후과를 미치게 될수 있기때문이였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되든 낡은것이지만 파악있는 지표를 쥐고 계획을 수행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그만 중지부를 찍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낡았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7-1>지표를 끈질기게 쥐고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들은 날개를 달고 날았습니다. 현재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7-8>이상을 생산하고있는것이 그 례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7-1>에 포로가 되어있으면서도 자화자찬하고있습니다.

내가 이공장에 처음 왔을 때 <7-1>을 발전된 지표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자신부터 우유부단했기때문에 공장안에서는 물론 우에서 논의도 못해보고 문전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양보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을 끊었던 유락천은 후-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는 다시금 의지를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보십시오 <7-1>제품생산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졌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동무들, 이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뻔히 알면서도 현실을 도피하고있으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나라앞에, 후대들앞에 우리는 분명 죄를 지고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문제를 당의 의도대로 풀기 위해 대담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계획문제와 생산지표문제에 대한 자신의 립장은 밝힌 유락천은 1년간의 고심참담한 노력끝에 <7-10>의 시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최종시험에서 뜻밖에 엄청난 사고를 내고 실패하고말았다. 사태는 돌연히 복잡해졌다.

어느날 우에서 료해내려온 한 일군이 유락천과 마주앉았다. 종합된 자료를 놓고 하나하나 확인

해나가던 그가 문득 《7-10》지표문제에 대해 물었다. 유락천은 흥분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다.

《나는 <7-10>에 대하여 더 말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7-10>을 생산해야 한다는 이 한가지만은 말하고싶습니다.》

《물론 동무의 주장을 참고합니다. 그러나...》하고 일군은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매우 여유작작한 표정으로 유락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자기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킬줄 아는 일군이였다. 유락천의 얼굴이 별경게 달아오르고 흥분을 참지 못하여 목소리가 굵어지고 말마디가 거칠게 흘러나올 때에도 감성에 젖어 어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 유락천의 목소리는 숨통치를 때리는 마치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이 제깎에 잦아들곤 하였다.

한참이나 열을 올리며 말하면 유락천의 흥분이 사그라지자 그는 말했다.

《보시오 유락천동무. 나는 동무의 <7-10>자제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며 유락천이라는 인간을 몰아주려는것은 더욱 아닙니다. 흥분한다고 해서 실태가 달라질수야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본질은 나라에 손실을 준 그 엄중성입니다.》

잠시 말을 끊었던 그는 유락천을 띄어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동무는 <7-1>제품 생산에 관심을 적게 돌린 결과 지난 3년간 공장 생산계획을 미달하였습니다. 그러니 종업원들에게 지불한 생활비와 식량공급문제에서도 계산되어야 할것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원료, 연료, 자재 그리고 설비비용들까지 따져보면 엄청난 손실액이...》

《?...》

유락천은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동무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자재를 들여 만들어놓았던 자력갱생기지들을 모두 없애버린것,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하려면 원칙적으로 상급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동무는 당비서가 부재중이라고 당조직과 토론도 없이 독단으로 단행해버렸습니다.》

그는 여기서 또 잠간 말을 끊었다가 마른침을 애써 삼키고나서 사리를 따져가며 차근차근 이야기해나갔다.

《이번 료해과정때 우리가 지배인동무의 사업에서 엄중하게 본것은 사업작풍에서 개인독단의 결과로 빚어진 경제적손실이 엄청난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래동안 공장의 참모부서에서 일해온 경험있는 일

군을 <7-1>을 <7-10>으로 생산지표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여 그의 사업권능까지 정지시킴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전횡과 독단, 얼마나 엄중합니까?》

유락천은 몸을 흠칫 떨며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것처럼 도고하고 쫓쫓하던 그의 눈에 아리송한 그늘이 피뚝 스쳐지나갔다.

유락천이 영평기계공장 지배인으로 부임되어온 지 1년이 지난 어느날에 있는 일이었다. 유럽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유락천은 공장 계획과장에게 출장길에서 얻어가지고 온 《7》제품 견본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과장동무, 이번에 내가 가본 공장에서는 <7-8>을 생산하고있었소. 그러니 우리는 대담하게 <7-10>을 합시다. 우리라고 늘 남의 뒤만 따라갈수야 없지 않소. 이번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소. 남들은 <7-8>을 하고있는데 우린 <7-1>에 머물러있다니, 이게 도대체 뭐요? 그래서 나는 조국에 돌아 가면 꼭 <7-10>을 하리라 결심했었소. 그러니 거기에 맞게 명년도 공장생산지표를 <7-1>로부터 <7-10>으로 바꾸지요. 이제부터 중국과 련계를 잘 가지고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책임적으로 해주오.》

이런 일이 있는 얼마후 지배인을 찾아온 계획과장은 공장과 중국에서 여러 사람들과 토론했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7-10》을 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언하였다.

《지배인동지, 공장의 일부 일군들은 파악이 있고 안정되어있는 생산지표를 왜 바꾸겠는가고 하면서 반대하고 중국에서는 중국대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생산공장에서는 뭉니뭉니해도 생산이 잘되어 계획을 하는것이 땅이라는거지요. 이제 생산지표를 바꾸면 새 공정들이 보충되고 그러자면 자연히 수자조종줄방천가공반같은 첨단설비들을 구입해야겠는데 공장에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격입니다.》

유락천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여보 누가 그걸 몰라서 <7-10>을 하자고 했는가.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7>제품생산에서 영원히 뒤떨어지고 만단 말이요. 그러니 누가 뭐라던 내밀어보지요. 제 머리로 생각하고 실천하라는건 당의 요구란 말이요.》

유락천은 소뿔은 단김에 뽑으랬다는 격으로 공장행정간부회의를 당장 소집하자고 계획과장에게 지시했다.

이날에 있는 행정간부회의에서 유락천은 최근 《7》제품의 세계적발전추세와 동향을 알려주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번에 <ㄱ-10>을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남의 뒤를 따라갈것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 가자는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자면 연구소들에서 성공한 시제품을 중간공정을 거쳐 파악이 생긴 다음 공업화를 하는것이 통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린 앞선 나라들을 언젠가도 따라잡을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ㄱ-1>생산에 얼마간 지장을 받더라도 <ㄱ-10>을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공장이 <ㄱ-10> 시제품 개발조를 조직하고 <ㄱ-10> 생산계획을 하나하나 꾸려나갑니다. 첨단 설비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해결하겠소.》

유락천은 그 자리에서 기술발전부기사를장을 책임자로 하는 <ㄱ-10> 시제품조 성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업무부지배인, 계획과장, 재정과장, 자재과장, 상사 공급소장 등이 망라된 <ㄱ-10>을 위한 상무조를 내오고 분담조직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이렇게 작전하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일은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 계획과장은 지배인의 의도대로 <ㄱ-10>문제를 총국에 올라가 성사시키려고 무진애를 썼다. 하지만 일이 잘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유락천은 그 모든 일이 계획과장의 정열 부족때문이라고 하면서 때없이 그의 이름을 말발에 올려 비판하군 하였다. 이렇게 되어 두사람의 사이는 버그러지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의견대립은 커만 갔다. 몇달후에는 계획과장이 지배인 밑에서 일을 더는 못하겠다고 제기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유락천은 그의 요구대로 계획과장의 권능을 정지시키었다. 그후 현장으로 내려간 그는 지금껏 품고있던 의견들을 종합하여 신소편지를 내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던것이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있는 유락천이었지만 여전히 검열소조앞에서의 자세는 도고했다.

《기업관리에서의 손실액과 사업작풍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것과 <ㄱ-10>생산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유락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은 더 할 말이 없으니 좋을대로 처분하라고 하고는 총총히 문밖으로 나가버리었다. 일군은 급히 일어나 그를 제지시키려 했지만 문 닫기는 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거친 목소리가 총알처럼 날아왔다.

《검열소조가 논의하려면 기본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본질을 떠난 이외의 문제는 모두 현상에 불과한것으로서 나에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검열에는 절대로 용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현정옥은 이야기를 중단하였다. 현정옥의 이야기를 듣는동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는 말씀이었으시였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는 그의 모습을 우러르며 현정옥은 긴장해 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한참만에 정적이 깃든 사무실의 침묵을 깨치며 **김정일** 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실례가 알립니다. 이야기를 듣고보니 <ㄱ-10>에 대한 문제도 선명해집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현정옥의 상기된 얼굴을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유락천동무는 일반개념으로 굳어진 하나의 틀(시제품이 나온 다음 중간공정을 거쳐 공업화를 실현하는것)에서 벗어나 <ㄱ-10>에 대한 연구사업과 공업화실현을 동시에 밀고나가려 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ㄱ-10>시제품개발에서 실패하다보니 로력과 자재, 많은 자금을 낭비하였습니다. 검열소조는 이것을 엄중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락천동무가 어떻게 되어 <ㄱ-10>에서 그만 실패하였겠습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열성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견 결코 실무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동지들과 로동계급을 사랑하는 정, 그 심장이 뜨겁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일하는 동지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사랑했더라면 개인독단과 전횡이 나올수 있으며 또 그런 신소가 제기될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유락천동무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견해를 세울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동지, 동지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지애에 력점을 찍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현정옥을 바라보시였다.

현정옥이 그의 불같이 뜨거운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끼며 지난 시기 유락천의 사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제때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실을 말씀드리였다.

언제인가 현정옥이 유락천을 운전기계공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 모범인 공장경험을 따라배울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중앙과 도, 시, 군 그리고 특급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참가했었다.

이날 현정옥과 유락천도 이 공장에 가게 되어 두사람이 현지에서 만나게 되었다. 유락천이 먼저 인사를 했다.

《이거 기사장동무가 오셨구려.》

유락천은 현정옥이 기계공업부로 올라간 뒤로는 만나는 기회가 갖지 못했고 회의차로 평양에 갈 때에나 가끔 만나군 했는데 그런 때면 그는 현정옥을 지금의 직무보다 젊은 시절 같이 일하

던 그때의 습관대로 기사장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했던것이다. 현정옥 역시 그것이 싫지 않아 반갑게 손을 잡고 답례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건강한 지배인동무를 보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오간뒤에 유락천이 마음속 고충 하나를 말했다. 그것은 생산지표를 바꾸는 문제였다. 이미전에 현정옥이 알고있는 문제였다.

벌써 몇해전에 《7-1》을 《7-10》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가 공장에서 제기되어 총국에서 논의한적이 있었다

현정옥은 공장에 내려가보았다. 어느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총국 계획국장이 《총국일군들을 모두 무시하고 제혼자 애국자연합니다. 세상에 유락천지배인같이 독선적이고 주관적인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일전에 국에 와서 지금까지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던 에나멜동선류들은 모두 총국을 통해서 받아쓰겠다고 추가계획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라고 하던 말을 현정옥은 똑똑히 기억하고있었다.

에나멜동선생산기지를 없애버린것을 알고있는 현정옥은 유락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배인동무, 제발 그 독단을 버리시오. 지배인동무가 일하려는 그 정열을 몰라서 내 이런 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웃기판에 있다구 누가 지배인동무의 발말목을 잡아당기겠소. <7-10>문제도 내 보기엔... 나는 지배인동무가 대중과 합심해서 동지들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일하기 바랍니다.》

유락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르는것은 무엇인가 마음에 싸지 않는다는 표정같았으나 현정옥은 어찌는수 없었다. 짧은 시절에 같이 일할 때 현정옥이 유락천에게 조언을 준것들 중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사업에서 흥분을 앞세우지 말고 감성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것이였다.

《지배인동무, 제발 그러지 마시우. 어제 간부회의에서 자재과장동무를 다불리면서 한 비판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말을 끝게 하는것은 인간의 미덕의 하나가 아닙니까.》

어느날에 있는 간부회의 뒤끝에 조용히 사무실에 남게 되었을 때 현정옥이 유락천에게 한 말이였다. 이런 일을 상기하며 현정옥이 유락천에게 말했다.

《나는 지배인동무의 말이 나올 때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젠 나이도 있는데 왜 자신을 다잡지 못합니까. 지배인동무가 계속 이러면 나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이 말에 유락천은 분기를 참지 못하고 《중수다.

그렇다면 나도 기사장동무에게 이 문제를 더는 말하지 않겠수다. 그러나 나는 <7-10>을 끝까지 하겠소.》라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물러가버리었다.

그후 현정옥은 유락천을 더는 만나지 못했다.

유락천과 헤어져 사무실로 돌아온 현정옥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온천기계공장 참관정형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면서도 유락천과의 관계에서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드리지 못했었다...

이런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현정옥의 얼굴에는 심한 자책의 빛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을 아프게 돌이켜보는 현정옥을 바라보시며 말을 듣고보니 유락천의 <7-10>시제품생산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 더 명백해진다고, 그 원인은 일군들속에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초석인 동지애가 진실로 뜨겁지 못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투쟁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승리하여온 동지애의 력사라고 하시면서 800냥을 주고는 집을 사고 1,000냥을 주고는 이웃을 산다고 했지만 1,000냥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혁명동지라고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수십년세월 품을 들여 키워온 그를 우리는 웅당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삼스럽지만 나는 오늘 동무에게 동지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한번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동지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참뜻을 리해하려면 우리 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너는 김혁, 나는 성주> 이 글속에 담겨있는 수령님의 동지애를 알아야 합니다. 현정옥동무는 유락천동무의 결함과 부족점에 대하여 알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하였습시다. 나는 리해되지 않습니다. 어찌면 유락천동무와 마음도 뜻도 하나로 이어져있었던 동무가 동지에 대해 그처럼 무관심할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머리를 숙인채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듣고있는 현정옥의 얼굴에 자책의 표정이 짙게 어렸다. 이미전에 극복될수 있었면 문제가 한 일군의 실책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있는 사연을 아신 **김정일**동지의 심중은 참으로 무거우시였다.

《동지에 대한 문제는 당성과 혁명성, 충실성에 직결되어있습니다. 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정이 없으면, 동지에 대한 자신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수령도 당도 진실로 받들수 없습니다. 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클수록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도 커집니다. 동무가 이 사실을 제때에 당에 보고했다라면 유락천동무가 오늘처럼 되지 않았을것이며 <7>제품생산문제도 풀렸을것입니다



다.

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성공시킬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격한 심정을 누르고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윽해서야 유락천의 자료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현정옥동무, 자료에 보고된대로 유락천을 지배인직무에서 해임하여도 되겠습니까?》

《...》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있던 현정옥은 나직한 목소리로 힘겹게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모든것이, 모든 일이 제때문에... 저를 처벌하여주십시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정옥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안하시고 두팔을 앞에 엇걸으신채 조용히 방안을 거닐고계시였다.

한참만에 걸음을 멈추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엇인가 결심하신듯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현동무, 검열소조의 의견을 참고해서... 유락천동무를 지배인직무에서 해임합니다.》

순간 현정옥은 심장이 그만 활동을 멈춘듯 온몸이 삼시에 굳어지고 귀에서 요란한 소리가 웅웅- 들려왔다.

침묵이 흘렀다.

이 시각 현정옥의 머리속에는 유락천지배인과 생활하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번개같이 떠오르고 지나갔다. 그중에서도 1970년대말에 있었던 일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당시 한 기계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사업하고있던 유락천은 아버지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채 직무에서 해임되어 어느 공장에 내려가 선반기를 잡고 자신을 단련한적이 있었다.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 일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김정일** 동지께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유락천이 일을 하다가 파오를 범해도 모르겠는데 생활을 잘못해서 혁명화를 하고있으니 이제 어디 될 말이요. 정말 오늘은 기분이 나쁘오. 밥맛도 없고 잠도 올것 같지 않소.》

이날 저녁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유락천과 같이 일하다가 기계공업부 책임일군으로 올라온 현정옥을 집무실에 부르시였다.

《현정옥동무, 오늘 아버지수령님께서 유락천에 대하여 걱정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내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동무가 그를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정옥은 며칠전에 유락천에게 갔던 일을 말씀드렸다.

《공장에 내려간 그날부터 그는 현장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지난 4월말까지 상반기계획을 끝내고 지금은 연간계획을 거의다 하였습니다. 원체 이름난 선반공이었으니 일은 잘합니다.》

《그래 가족들은 데려갔습니까?》

《아직...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현정옥은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사실 그는 갑자기 바뀐 생활환경과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혹사한탓에 지난 시기에 있던 위탈이 도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니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일** 동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은수 없었다. 현정옥의 말을 들으신그이께서는 안색을 흐리시고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 현정옥은 급히 유락천이 일하고있는 공장으로 갔다.

공장에서 유락천을 승용차에 태운 그는 서북쪽으로 끝없이 흘러간 령 정점에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

《그새 현장생활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지배인동무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어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사람은 승용차에서 내려 좋은 자리를 골라잡고 앉았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앞뒤집에서 나란히 살 때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떠오르며 못잇을 추억을 애모쁘게 불러내는 참으로 호젓한 기회였다.

두사람의 눈아래로는 령길이 마치도 실오리같이 까마득히 내려다보였다. 그 좌우로 해발 1,500미터를 헤아리는 수많은 봉우리들이 키돋음하며 솟아있었고 그 봉우리들을 한몸에 건어안은채 서북쪽으로 련련히 흘러간 산발들은 먼 하늘가에 아득히 잇닿아있었다. 8월이라 청록특색으로 단장된 산발은 바람이 좌-좌-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마다 마치 바다처럼 움썹움썹 설레이군 했다.

현정옥은 승용차에서 들고 내린 려행용가방에서 엄나무로 만든 정교한 함 하나를 조심히 꺼냈다.

유락천은 어리둥절한채 리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현정옥의 행동만 지켜보고있었다. 현정옥이 함안에서 이번에는 단지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다. 비취옥색의 고려자기를 방불케 하는 목이 길지 않은 고운 단지였다.

현정옥은 자세를 고치며 정중히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무. 이게 뭘지 알겠습니까? 꿀입니다.》

《?!》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배인동무의 건강을 넘려하여 보내주신 꿀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유락천은 천만뜻밖인듯 두눈이 휘둥그래져 다우쳐물었다.

현정옥은 **김정일** 동지께서 지배인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어제 유락천동무를 두고 전후에 자신의 소원을 풀어준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령길에서 만나셨던 일을 회상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지배인동무가 현장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가슴아파하시면서 하루빨리 그를 잘 도와 주어 자기 직무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에게 절절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유락천동무때문에 걱정이 크십니다. 현장에서 일하고있는 유락천동무가 위탈때문에 건강까지 나빠진것을 아시면 수령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현동무의 말을 듣고 어제밤에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동지입니까. 그에겐 친부모도 없습니다. 유락천에게 어머니가 있다면 몸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참이나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계속하시였습니다.

〈현동무, 지배인들은 씨름선수보다 건강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락천동무는 그렇지 못합니다. 위가 나쁘니 어떻게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위탈을 꼭 떼줍시다. 토법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내가 오늘 이 꿀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유락천은 떨리는 소리로 이 한마디를 외우고는 말을 잊지 못하였다. 현정옥이 젖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꿀을 본인에게 직접 주면 일때문에 먹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꿀을 쓰는 비방을 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어느날에 쓰라는것까지 규정해주셨습니다. 그 비방에 의하면 년중 제일 무더운 날로 알려진 중복일에 꿀을 먹이는것이 리상적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중복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락천은 더 참지 못하고 현정옥의 손을 덥석 쥐며 《여보 기사장동무, 그 말을 왜 인제야 하오?

사람이 어쩌면 그렇소?》 하고 격해서 웨쳤다. 그러는 그를 녹갯히며 현정옥이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이제부터 지배인동무는 환자이고 나는 <의사>가 된셈입니다. 그러니 이 <의사>가 하라는대로 해야 합니다.》

유락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펴고 여울랐다. 현정옥은 꿀단지의 뚜껑을 열었다. 감자주색의 꿀이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폐부속 깊이 흘러들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어쩌면... 어쩌면... 저같은게 뭐라고 이런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것입니까. 위탈이 좀 있으면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꿀단지를 두손으로 받치고 평양하늘가를 우러르며 유락천은 흑흑- 소리를 내며 흐느끼었다. 현정옥의 눈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기사장동무, 믿어주시오. 내 꼭 새로운 유락천이로 환생하겠소.》

한참후에 마음을 진정한 유락천이 현정옥에게 한 말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속에 속병까지 똑 뎠 유락천은 자기의 직무를 회복하고 초소로 떠나던 날 현정옥을 찾아와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었다.

《기사장동무, 내 이제 다시는 파오를 범하지 않겠소 정말 다시는 나때문에 기사장이 마음을 쓰지 않도록 일하겠소.》...

그랬다. 그날 유락천은 현정옥의 손을 짹 잡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그렇게도 절절히 말했었다.

그러던 유락천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쟁쟁한데 또다시 이런 파오를 범했으니 이를 어쩌면 종단 말인가.

《장군님.》

현정옥은 고개를 떨구고 다음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러는 현정옥을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가 동지애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것은 현시기 복잡한 국제정세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리념을 동지애를 떠나서는 실현할수 없기때문이라고 절절한 음성으로 일깨워주시였다.

이날 새벽 현정옥을 바래워주시고 집무실로 돌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검열자료에 반영되어있는 내용을 다시금 하나하나 따져보시였다.

경제사업에서 나타난 물질적손실도 무시할수 없는 일이지만 이 시각 **김정일** 동지의 생각은 그보다 유락천의 그릇된 작풍에 집중되시였다.

일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사람들속에서 권위를 세운다는것은 말처럼 쉽게 되는것이 아니다.

생활은 거울이다. 그 거울속에는 사람들의 우단점이 날날이 드러난다. 가까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정확히 나타난다. 곁에 있는 계획과장의 눈에 유락천의 취약성이 더욱 드러났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방안을 조용히 거니시였다.

유락천이 아래일군들을 혁명을 같이하는 동지로 보지 못한 바로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그가 진실로 곁의 일군들을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거친 말투로 억누를수 있고 또 자기 상급에게 것처럼 불손하게 행동할수 있었겠는가.

파오는 엄중하다. 꼭 고쳐야 한다.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 어느새 날이 조용히 밝아왔다. 동지를 위하여 바치신 한밤이 또 하루 새날로 이어지고있었다.

다음날 당중앙위원회청사의 회의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중요한 협의회가 있었다.

협의회에는 정무원위원회와 부의 책임일군들과 대기업소 지배인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자리에 앉아 회의장을 둘러보던 현정옥은 그만 눈이 커졌다.

바로 자기한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앞줄 가운데 유락천이 앉아있었던것이다.

《아니, 저사람이 어떻게?》

유락천의 문제를 두고 온밤 마음쓰고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직접 뵈온 현정옥이로서는 그의 출현이 현실이라고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놀라움은 걱정의 파도가 되어 그의 마음속에서 세찬 회오리를 일으키고있었다. 그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러보고 또 보았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근 나라안팎에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분석하시면서 그 어느때보다 일심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책동은 그어느때보다 더욱 로골화되고있습니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핵몽둥이를 휘둘러대며 세계를 감히 제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함부로 우롱하려고

날뛰고있습니다.

놈들은 핵을 세상만능의것으로 불패의 무기로 알고 제왕노릇을 하려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 더 강유력한 일심단결의 위대한 무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동지애, 인간애로 결합된 우리의 일심단결을 당할 힘은 이 행성에 없습니다.》

순간 장내는 요란한 박수와 우렁찬 환호소리로 떠나갈듯 했다.

현정옥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그것은 혁명동지 한사람한사람을 다 품에 안아 티 오를세라 닦아주고 잃어질세라 내세워주시는 불같은 동지애의 화신 **김정일** 동지에 대한 열렬하고도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였다.

…다음날 현정옥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따라 당학교로 떠나가는 유락천을 배태워주고있었다.

《기사장동무, 난 아직도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소. 자기도 모르게 주관과 독단에 빠져 저만 저라고 우쭐렁거리다가 혁명대오에서까지 리탈될뻔 했던 나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새 인간으로 살도록 해주시였소. 어제 그이께서 나를 만난 자리에서 동무는 우리 수령님께서 품들여 키우신 일군인데 언제나 수령님께서 배워주신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실 때 난… 난… 울었소. 수령님이 그리워 울고 장군님이 고마와 울었소. 난 이제야 비로소 똑똑히 알았소. 장군님이 아니였더라면 난 죽은 몸이요. 그이께서 계시여 인간 유락천이 재생활수 있었소.》

유락천은 떠나갔다. 허나 현정옥은 깊은 생각에 잠겨 한자리에서 떠날줄 몰랐다. 그가 안겨준 충격이 너무도 커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락천을 건져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듯싶었다.

《유락천 동무의 문제를 놓고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현상적으로 고찰할것이 아니라 현상과 본질을 잘 갈라볼줄 알아야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준엄합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는 혁명적군인정신,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이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사업작풍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원칙 하나만 가지고는 일을 성사시키기 어렵습니다. 유락천동무가 <7-10>에 대한 관점은 얼마나 옳았습니까. 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경험은 아무리 원칙적인 일이라도 일군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따라세우지 못할 때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락천동무를 **김일성** 고급당학교에 보내어 수령님식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따라배우는 학습을 직심스럽게 하도록 해당부서에 과업을 주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구절구절 음미해보면 현정옥은 지난날 유락천에게 혁명동지로서의 진정을 다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심장을 지머내는듯 한 아픔을 느끼었다. 그럴수록 현정옥의 생각은 더욱 깊어갔다.

가는 길 험난해도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언제나 생사를 같이해야 하는 동지, 이런 동지인 유락천에게 나는 어떻게 대했던가.

(현정옥, 너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동지관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너에게는 그렇듯 친근한 동지인 유락천의 절절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네가 그를 진정으로 자신처럼 굳게 믿고 뜨겁게 사랑했다라면 <7-10>제품을 실현시킬수 있는 방법론을 반드시 찾아냈을것이다. 그랬더라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을것이다. 너는 실

무화된 나머지 현실과 본질, 원칙도 가려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되고말았다.)...

아 감격의 바다, 흠모의 대하로 세차게 끓어번지던 회의장의 격동적인 광경, 정녕 그것이 바로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도가 아니었던가.

그렇다. 철이 자성체에 끌리고 못행성들이 태양의 인력에 끌리워 돌고돌듯이 우리 인민모두가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동지애에 끌리는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법칙인것이다.

아, 위대한 **김정일** 동지. 정녕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어 오늘 이 땅우에는 그어떤 운명의 곡절속에서도 참된 삶을 찾고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는, 그래서 자연법칙에서와 같은 류성을 알지 못하는 세계, 동지애로 살고 동지애로 전진하며 동지애로 만난을 뚫고 승리해나가는 위대한 일심단결의 세계, 동지애의 세계가 펼쳐져있는것이다.

현정옥은 크나큰 흥분속에서 유락천이 탄 승용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자리에 오래오래 서있었다.

## ☆혁명일화☆

# 최고사령관의 인사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어느 한 구분대의 중대병실을 돌아보실 때에 있는 일이다.

그이께서 찾아오신 그때는 모두 모내기전투장에 나가있는 때여서 위대한 장군님을 정치지도원이 혼자서 맞이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정치지도원과 여러 곳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군인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이 무엇인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애로되는것이 없다는 그의 씩씩한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모내기전투장에 나가있는 군인들을 만나보지 못한것이 못내 섭섭하신듯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이날 부대관리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가르쳐주고나신 그이께서는 그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앞으로 일을 잘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이어서 그가 올리는 인사말을 들어주고나신 그이께서는 농촌지원에 나가있는 동무들에게 자신

의 인사를 꼭 전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힘있게 대답올리는 정치지도원의 가슴은 끝없는 걱정으로 하여 터질듯이 부풀어올랐다.

레로부터 동방레의지국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에서 아래사람들이 웃사람에게 하는 인사를 비롯한 레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평범한 군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보내시였으니 오로지 이런 가슴 뜨거운 이야기는 장군복을 타고난 명사들. 전사복을 타고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사이,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일이었다.

하기에 모내기전투장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시는 인사와 함께 사랑의 선물까지 가슴 가득 받아안은 군인들은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라는 노래를 높이 불렀다.

박봉운

# 《선군혁명의 대고조를 일으켜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변환을 이룩하자!》

□수필□

## 총대아버지

김영선

우리 옆집 박동무는 딸만 다섯인 이른바 《딸부자》이다.

출장지에서 돌아온 나는 박동무의 막내딸 정금이가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급히 역으로 달려나갔다.

역앞에는 신입병사들과 바래주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노래소리, 주악소리, 방송원의 격동적인 선동소리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는속에서 나는 새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정금리와 그를 둘러싼 인민반사람들을 발견하였다.

《작가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내가 꽃다발을 안겨주자 정금리는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집에서 막대동으로 응석을 부리던 정금리가 얼마나 튼튼한 군인이 되었는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박동무, 기쁘겠구만.》

나는 싱글벙글 웃고있는 박동무의 팔을 힘있게 그러쥐었다.

《오늘이야 다섯번째로 내 소원이 풀리는 날이 아닙니까.》

박동무는 금지높이 말을 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렇만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박술초소에 뜻깊은 자욱을 책으신 때로부터 오늘 다섯째의 막내까지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하니 박동무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는가.

박동무는 한생을 종잡고 조국을 지켜가리라 결심하고 전연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던중 적들과 조우하는 과정에 부상당하여 때이르게 제대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량부모를 다 빼앗아간 철천지원썩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초소를 떠나야 했던 박동무는 통분하기 그지없었다.

장가를 가는 날 박동무는 안해에게 아들을 꼭 낳아 초소에 세우자고 하였다. 그는 자기가 못다한 복수를 아들이 해주기 바랐던것이다.

허나 뜻대로만 되지 않는것이 자식문제였다.

제대군인인 박동무의 안해 역시 남편의 소원이자 자기의 소망이었으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내리내리 딸만 낳았다,

언제인가 가족란에 금아, 은아, 현애, 경아 하

고 써내려가던 박동무가 《야, 베차구나.》 하며 롱말처럼 한마디 하면서도 얼굴에 떠오르는 섭섭한 빛을 지우지 못하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딸들은 건강하게 자랐다. 사내들보다 더 벌치고 클수록 하나같이 이쁘게 피어났다.

집안에 남자라고는 세대주인 박동무 혼자여서 인민반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나 《딸부자》 집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박술초소에 자욱을 찍으시었을 때 박동무는 딸들을 모두 초소에 세울 결심을 하였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음악대학에 지망하였던 딸 금아는 군복을 입고 초소로 달려나갔고 언니의 뒤를 이어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모두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군관의 안해가 되어 철령초소를 지켜가는 남편과 함께 총잡은 병사의 자세로 싸워가던 금아는 노래를 잘 불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리는 행복을 지니었다.

그때 이웃들모두가 《딸부자》집에 모여 텔레비존을 보며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군관으로 성장한 은아는 감나무중대에서 복무할 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다.

박동무네 집에는 그 기념사진이 가보로 정중히 모셔져있다.

간호원이 된 현아는 대덕산초병들의 《누나》가 되었고 별찬 자매들중 앞전대기로 수집음을 잘 타면 경아는 4. 25체육선수단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있으며 오늘은 정금리가 또 인민군대로 나가는것이다.

진정 그 나날 다섯 딸들은 총대로 위대한 장군님을 옹위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는 용사들로 자라났으며 박동무는 총대가정의 세대주가 되었다.

하기에 인민반에서도 직장에서도 박동무를 부러워하며 내세워주고있다. 우리 인민모두가 위대한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어나아가는 박동무와 똑같은 마음이기때문이었다.

아들이 없어 서운함을 안고 살던 박동무네 가정에 날에 날마다 웃음과 기쁨이 차넘치었고 궁지가 하늘끝에 닿았다. 《딸부자》집이 오늘은 자랑부자, 행복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신입병사들의 대렬이 정돈되고 열차에 오를 때 박동무는 엄숙한 표정으로 정금이앞에 다가섰다.

《이제부터 너는 조국의 딸로서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용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박동무는 오늘 다섯번째로 한다.

《막내까지 떠나가니 정금이 아버지는 <딸부자 아버지>자리를 내놓아야겠습니다.》

인민반장이 한마디 하였다.

《아무렴, 딸 다섯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총대아버지>가 되어야지.》

내 말에 박동무는 감개무량하여 눈굽을 적시었다.

나는 생각이 깊어지었다.

딸만 남아 섭섭해하던 박동무가 《총대아버지》로 존경을 받고 떠받들리는것은 다섯 자매를 조국보위초소에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이 있었기때문이 아닌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박동무에게 있어서 기쁨의 샘이고 자랑의 원천이며 영광의 초석인것이다.

하기에 그 나날 박동무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행복의 절정에 올라선것이다.

이것이 어찌 박동무만 받아안은 행복이라 할수 있으랴.

나도 자식들을 모두 총천 병사로 키웠고 인민반장의 세 아들은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인민반 모든 세대가 하나같이 총폭탄용사의 자랑을 안은 후방가족이 되었거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박술초소에 뜻깊은 자옥을 새기신 때로부터 10년은 우리모두를 더 긍지높은 인민으로, 더 존엄높은 민족으로 내세워준 위대한 력사인것이다!

신입병사들을 태운 열차는 기적소리를 정답게 울리며 꽃물결 설레이는 역구내를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자장가에서 꽃다발을 흔드는 정금에게 나는 오래도록 손저어주었다.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말고 위대한 장군님의 훌륭한 딸이 되라고...

## 전호가의 물축제소리 외1편

조봉국

군복은 벗어도  
오늘도 들려오는  
달밝은 그밤의 물축제소리  
뻗 쪼르륵  
뻗 쪽...

세월은 멀리 왔어도  
지금도 내곁에 있는듯  
그밤의 물축제소리와 함께  
오늘도 마음은  
그날의 초소에 다시 서있는듯

얼마였으랴  
별무리 고요한 초소에서  
밤마다 울려오는 네 노래 들으며  
병사가 눈앞에 그려본 고향은  
가슴에 소중히 새겨안아본 조국은

복무의 나날  
이렇게 너와 나는 함께 있었지  
내 고향 버들숲의 정다운 물결소리도  
너는 날마다 나에게 속삭여주었지

아, 물축제  
너는 그 나날에  
총잡은 이 가슴에 남모르게 움터난  
내 고향의 사랑이였고  
노래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사수되었다  
긴긴 밤  
병사의 총대우에서  
네 노래와 함께 울려가던  
평화와 행복의 그 모든것이

들려와라  
오늘도 그밤처럼  
초소를 잊지 말라고  
언제나 그날의 병사로 살라고  
내 가슴에 찾아와 속삭여주는 소리

뻗 쪼르륵  
뻗 쪽...

## 급행렬차

붕-  
초소로 떠나오던 날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에  
대렬을 맞추며  
우리는 이렇게 급행렬차에 올랐다

그 시절 중학동창들  
철령과 오성산을 찾아  
위훈의 꿈을 안고 달려갈제  
우리는 국경초병의 영예를 안고  
급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그 어이 알았으랴  
그날에 타고온 급행렬차  
이것이 내 한생의 자서전에  
병사의 값높은 삶으로 이어질줄을

급행렬차 급행렬차  
이것은 내 어린시절  
소년단기 날리며 등산의 길에 올랐던  
그런 행복의 야영렬차가 아니었다

그날에 나는  
모교의 선생님과 고향사람들의 바래움속에  
조국을 지켜선 병사  
수호자된 자각을 가슴에 안으며

렬차에 올랐거니

그래서인가  
이제는 저 멀리 사라져간 기적소리에  
오늘도 병사시절의 추억을 실을 때면  
국경초소를 지켜 달리던 말발굽소리  
한겨울의 눈보라소리  
지금도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것은

그렇다  
급행렬차  
이는 내 인생의 주로를  
오늘의 선군길과 하나로 이어준  
병사의 《군용렬차》가 아니던가

그 《군용렬차》우에  
오늘도 나는 몸을 실었다  
고향을 떠나오던 그때처럼  
대렬을 맞추던 그날처럼

붕-  
지금도 들려오는 저 소리는  
끝나지 않은 복무의 약속이런듯  
그 소리에 발을 맞추며  
내 인생의 먼먼 끝까지 타고 가야 할  
오, 그날의 급행렬차여!

### <가사>

## 병사가 떠나갈 때

고남철

산촌의 강물우에 발전소 세워놓고  
군가를 부르며 병사가 떠나갈 때  
거울같이 맑은 물에 아름답게 비껴오네  
높고 큰 언제와 푸른빛 병사배낭  
아, 병사는 배낭 하나 메고 가네

새 전야 포전마다 두벌농사 꽃피우고  
군가를 부르며 병사가 떠나갈 때  
불타는 노을속에 정답게 어려오네

물결치는 백리벌과 푸른빛 병사배낭  
아, 병사는 배낭 하나 메고 가네

결전의 시각오면 그 배낭 다시 메고  
병사가 이 땅 위해 위훈을 세워갈 때  
장군님 기억속에 소중히 새겨지리  
어머니 내 조국과 푸른빛 병사배낭  
아, 병사는 배낭 하나 메고 가네

## 《작가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에는 작가의 이름이 밝혀져있지 않았다.

작가들은 매편매편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회고하신 내용을 담고있는데다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구체적인 지도에 의해 창작되었고 매 작품들이 집체적지혜와 힘으로 완성된것들인데 어떻게 거기에 자기 이름을 내겠는가고 생각하면서 삼가해왔다.

주체73(1984)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이 창작한 문학작품에 작가의 이름을 밝혀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는 총서 《불멸의 력사》가 활발히 창작되어 많이 출판되고있었다.

그 책에는 속표지와 판권에 작가의 이름내신 《4.15문학창작단》이라고 밝히고 책에 끼워넣는 인물표에 그 작품창작에 어느 작가를 비롯하여 여러명이 참가하였다는 식으로 간단히 밝혀주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품은 작가의 정신적창조물인것만큼 마땅히 작품에 작가의 이름을 밝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일반소설에는 작가의 이름을 내주고있지만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한 혁명소설에는 작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뜨거운 사랑이 깃든 말씀이였다.

사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은 종자로부터 구성체제와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소설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 지도밑에 완성된것들이였다.

그러므로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혁명소설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것은 물론 창작료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이를 기특히 여기시며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바라지 않고 모든 지혜와 노력을 고스란히 당에 바치려는 작가들의 충성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있다고 그럴수록 일군들은 그들을 더 아끼고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의 생활을 더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일부 일군들이 혁명소

설에 작가이름을 내는데 대하여 신경쓰면서 작가의 이름을 밝히면 작가에 대한 환상이 조성되는듯이 말하고있는데 이렇게 편협하고 웅졸해서는 안된다고 교시하시였다.

문학작품에 작가의 이름을 내주는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전통적인 관례라고 말할수 있다.

그 당시 이름있는 작가들이 총서작품들을 창작하면서 작품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다보니 인민들속에서 요새 이름있는 소설가들이 뭘하고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영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와 같은 실례를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나타날수 있는 편향을 념두에 두고 그 해설방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어떤 일군들은 혁명소설에 작가의 이름을 밝히었다가 작가가 정치적으로 과오를 범하게 되면 작품을 살릴수 없게 될것 같아 걱정을 하고있었다.

작가가 정치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여 그가 지난날에 쓴 좋은 작품을 문제시할것은 없다. 작가가 정치생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지난날 그가 좋은 작품을 내놓은것이 있으면 출판도 해주고 문학사에도 올려주어야 한다.

바로 이런 각도에서 작가를 아끼고 사랑해야 그들이 당과 조국,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에 대하여 깊이 자각하고 자기가 쓰는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책임적으로 일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작품을 떠나서 작가는 살수 없다고, 작가는 명작과 함께 영생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앞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을 비롯하여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하는 혁명소설에 작가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어린 말씀인가.

명작과 함께 작가는 영생할진대 작가들이 어찌 그품을 소홀히 쓸수 있으며 무책임하게 쓸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이께서 그토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는데 감격에 가슴 부풀지 않은 작가가 어데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가슴 높뛰지 않은 작가가 어데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4.15문학창작단에서 작가들의 창작조건을 더 잘 보장하여주며 그들이 자료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자료들도 보장해줄데 대해서까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앞에 작가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수령형상창조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도록 손 잡아 이끌어주시는것만도 분에 넘치는 은정인데 거기에 이런 은정까지 베풀어주시니 작가들은 자기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거이 되새겨 보았다.

과연 이 세상 그 어디에 이렇듯 령도자의 위대한 사랑속에 창작하는 작가가 또 있을것인가.

사상예술적으로 더욱 훌륭한 작품을 써서 이 은덕에 보답하리라! 작가들은 마음속 뜨거이 맹세다지였다.

오늘 창작출판되는 4.15문학창작단의 총서작품들의 표지에 또렷이 새겨지는 작가들의 이름을 무심히 보지 마시라.

그속에는 작가들을 영원한 동행자로 믿어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사랑과 은정이 담겨져있는것이다.

## 장군님의 세계

김 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으며 사는

그 영광만으로도

온 세상 만복을 안고사는 우리건만

그이는 자신과 나란히

우리들을 자신의 동지라 불러주시나

장군님의 혁명동지!

아, 송구스러워라

우리 그이께

무엇으로 기쁨 드렸기에...

허나 그이는 우리를

나의 동지, 선군혁명동지라 불러주시거니

이렇게 자신의 모든것을 다 주신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동지애는

우리 당을 우리 조국을 우리 인민을

혁명의 장장만리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한평생

물어보자 세월아

펼쳐보라 력사여

그 언제 어느 시대에

혁명은 동지

동지는 혁명

이렇게 불리운적 있었던가

믿음을 주시여 인민을 얻으신분

사랑을 주시여 천하를 얻으신분

자신을 바쳐 혁명을 이끄신분

그이는 우리의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의 **김정일**동지!

우리 혁명이 동터오던 시기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우리 수령님 새기신 혁명의 진리

변치 발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너는 김혁 나는 성주

아 우리 혁명은

이렇게 동지애로 시작되였거니

오, 동지애란 무엇인가

그것은 동지위해

하루밤도 천리를 걷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인정세계

한번 안기면 작별없는 영생

태를 이어 변함없는 파사로운 손길

그렇다! 동지에는

세월의 흐름이 변함이 없듯

이 땅에 무궁토록 영원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신념이여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계여라!

## 선군시대에 새롭게 정식화된 음악의 인간학적본성

최길상

오늘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선군정치의 위력한 수단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작품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선군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혁신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이 선군시대의 미학적리상과 요구에 맞게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도록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새로운 리정표를 세워주시여 주체의 문학예술창작과 건설을 향도하신다.

우리는 새 세기의 기술에서 또다시 주체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받아안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사상을 정식화하여 선포하시였다.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사상의 정식화는 인류지성의 정화이며 문예사적인 대발견이다.

노래는 인간사회의 발생과 함께 생겨났으며 인간생활의 갈피마다에 깃들어있지 않은데가 없다.

그래서 인간생활의 흐름은 노래의 흐름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노래가 이처럼 사람들의 생활에 속속들이 젖어있었지만 그 노래의 진면모는 어떠하며 그 본성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그 어느 시대, 어느 문예리론에서도 밝히지 못한채 미지의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 문예사적인 력사적과제는 오늘 선군시대에 와서 주체적문예사상에 의하여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음악이 인간학이라는 사상은 음악이 인간의 사상감정과 요구, 지향과 범원을 깊이있게 반영하고 인간생활을 폭넓게 담음으로써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참답게 복무하여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사상의 정식화는 문예사적인 일대 사변이다.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음악의 본성이 명백하게 해명되었다. 인간학으로서

음악의 본성은 가사와 곡을 통하여 인간의 사상감정을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데 있다.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정식화의 기초에는 주체의 문예관에 의하여 해명된 문학예술의 고유한 본성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놓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던 첫 시기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

발하여 문학의 인간학적본성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지난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말해왔지만 그 인간학의

근본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똑바로 밝히지 못하고 다만 문학은 사회적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을 그려야 하며 형상의 중심에 인간을 세워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을뿐이다. 문학의 인간학적본성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가 정당하게 밝혀짐으로써 옳은 해명을 보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옳바르게 풀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은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학,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의 본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간문제를 밝힘으로써 사람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며 사람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로운 인간학인 주체의 인간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문학의 본성이 가장 옳바르게 밝혀지고 문학예술의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인간학에 관한 옳은 인식이 없었던것으로 하여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명할수 없었다. 문학작품과 음악은 다같이 인간과 그 생활을 반영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한다. 다만 문학은 생활과 인간을 언어로 형상하면서 인간의 사상감정을 이야기로 묘사한다면 음악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가사와 곡에 담아 감정정서로 표현하는 것이 다름뿐이지 그 본성과 사명은 같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은 다름아닌 인간학이다.

이 문예사적인 대발견은 특출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인위성의 최고정화이다. 뛰어난 예술적천품은 비범한 문예사상리론활동을 벌릴수 있는 근본바탕이다. 일찌기 어린 시절부터 나의 첫사랑은 음악이라고 하시면서 음악과 인연을 맺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간지성이 오를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서 가장 숭고한 예술적천품을 체현하시고 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여 주체적문학예술을 가장

높은 형상세계에로 이끌어주시었다.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천체적위인의 비범한 예지가 빛발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는 남들이 감촉하지 못하는 크고작은 요소까지도 예민하게 포착하시고 그 본질까지 정확히 꿰뚫어보며 개별적인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열, 백, 천, 만을 헤아리시며 근본적인 원리를 간파하시는 빛나는 예지이며 인류가 리상으로 그리는 자주시대문학예술의 먼 앞날까지 과학적으로 예견하신 선견지명의 예지이다.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고전적명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비상한 탐구심과 사색의 빛나는 결실이다. 비상한 탐구심의 기초에는 창조적인사색이 동반된다. 사색이 없이는 사물현상에 대한 옳은 견해가 설수 없으며 새로운 사상리론이 나올수 없다. 그이께서는 인류가 창조한 방대한 음악작품들과 문예리론들을 깊이 연구분석하시고 비상한 탐구심과 창조적인 사색으로 인류음악예술의 역사적과정과 주체음악예술발전의 전로정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음악의 본성을 가장 정확히 해명할수 있는 논리적귀결점을 찾으시고 음악이 인간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도출해내시었다.

참으로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사상의 새로운 정식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예술적천품, 비범한 예지, 비상한 탐구심과 창조적인 사색이 낳은 빛나는 결정체이다.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사상은 오늘의 선군시대에 와서 정식화되어 선포되었지만 그 역사적뿌리와 연원은 깊고 유구하다.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의 사상리론적기초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것을 진수로 하는 주체적문예사상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을 특징짓는 선구자적작품도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우리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은 당과 수령의 령도 밑에 해방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굳건히 고수되었고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나온 전지가요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한 혁명적인 노래들을 통하여 그 사명과 역할은 더욱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1970년대에 이르러 우리

음악예술은 주체적인 성격과 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사상의 고전적정식화는 선군시대 독창적인 음악정치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인류사회의 발전과 함께 음악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그 의미는 매우 넓어졌다. 현대

사회에서 음악은 정당과 단체, 국가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며 종교와 신앙 등 인간의 사회적인식이 작용하는 그 어느 분야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음악이 정치의 기본수단으로 된 것은 일찌기 없었다.

음악정치, 이것은 선군시대에 출현한 새로운 시대어이며 독특한 정치개념이다.

조선혁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래로부터 시작되었고 노래속에서 전진하여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한 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혁명이야말로 노래와 더불어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온 영웅서사시이다. 우리의 노래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정치의 위력한 무기가 되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정치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선군정치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로 령도하시는 나날에 노래와 함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붉은기를 수호하시였다.

일찌기 노래가 없는 생활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야전길을 이어나가시면서도 노래와 함께 인민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거기에서 고무를 받으시면서 고난의 천만리를 헤쳐오시였다. 사회주의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시련의 고비를 넘으시면서도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리라는 노래의 구절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이 부르는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혁명군가에서 승리의 신심을 굳게 다지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실로 노래는 그이의 동지였고 길동무였으며 선군령도의 위력한 수단이었고 혁명의 예리한 무기였다.

어느 한 기회에 선군정치와 음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를 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결속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렇게 음악정치를 한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대명제는 독창적인 음악정치의 빛나는 결정체이며 음악철학이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이다.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에 관한 사상이 정식화되어 선포된것은 인류문예사적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뜻깊은 사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을 밝혀주심으로써 인류문예사는 세기를 두고 모색하던 음악의 참다운 모습을 찾게 되었으며 음악예술은 옳바른 항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었다. 음악이 발생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교양의 수단으로 보거나 향락의 수단으로 보는것은 대립되는 두가지의 대표적인 견해였다. 주체의 문예관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데 음악예술의 참다운 본성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부르주아문예만은 음악예술을 향락의 도구로 본

다. 이러한 반동적인 문예관으로 하여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형형색색의 추잡한 음악들이 팽관하면서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온갖 반동적인 음악류파들에게 철추를 내리고 인류음악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고무추동하게 되었다.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에 대한 사상은 문학예술 전반, 특히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도 이끌어주는 고무적기치이다. 인간학의 품위를 갖춘 가사가 나와야 인간학적본성이 구현된 노래가 나올수 있다. 명가사에 명곡이 나온다는것은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명작창작의 진리이다. 음악은 인간학이며 가사와 곡을 통하여 그 본성이 구현된다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안음으로써 우리 가사문학은 인간학의 참다운 면모를 갖춘 새로운 사상에술적높이에도 더욱 힘있게 치달아오를수 있는 리정표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문학창작전반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바로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사상의 보편적진리성과 생활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이 새 세기에 받아안은 또 하나의 특전이고 행운이다.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에 대한 사상의 정식화가 문학예술창작에서 보편적진리성을 가지는것은 아름다운것에 대한 주체적미학관을 철저히 간직하도록 작가, 예술인들을 이끌어주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생활을 떠나 순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것은 말 그대로 예술지상주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연을 노래해도 그 자연속에 사는 인간과 생활을 노래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가령 백두의 밀림을 노래한다고 하면 파도쳐 설레이는 밀림의 바다에 대해서만 노래할것이 아니라 백두의눈보라를 해치고 이 땅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실한풍 휘몰아치는 백두의 밀림속에서 천신만고를 달게 여기며 싸워온 항일투사들의 불굴의 정신을 노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견지에서 노래 《밀림이 설레인다》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또한 관현악과 합창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명곡중의 명곡으로 있려주는것도 황금나락 물결치는 풍요한 들판만 노래한것이 아니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청산벌에서 수령님의 은덕으로 만풍년을 마련한 농업근로자들의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폭넓게 형상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은 비단 노래뿐만 아니라 문학예술창작의 모든 부문에서 원칙으로 삼아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의 미학관은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으며 인간에 의

하여 정서적으로 파악된 사물현상이 아름답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문학예술작품은 인간과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을 통하여 어떤것이 아름답고 어떤것이 추악한가 하는데 대하여 해답을 준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밝혀진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기초하여 미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에 명확한 해명을 주었다. 우리가 말하는 미학관은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미학관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자연현상을 노래해도 자연자체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할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으며 인간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파악된 자연을 노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음악의 인간학적본성을 밝혀주시면서 참다운 미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금 명철하게 해명하여주시음으로써 우리는 문학예술창작의 모든 부문에서 예술지상주의와 같은 이색적인 요소를 철저히 없애고 우리 문학예술의 본성을 더욱 철저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안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무한한 감격과 흥분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도 확고히 올려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작가들은 가사창작을 비롯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선군문학운동에서 가사창작은 제 1 선이며 기본전선이다. 선군시대를 선도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투쟁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는 혁명적광만이 차넘치고 혁명적열정이 끓어번지기마련이다.

우리의 노래가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선군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가사창작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가사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여야 한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온 중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만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 당은 생활가요와 함께 서정가요를 활발하게 창작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우리 시인들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서적요구에 맞게 서정이 뜨겁고 철학성이 있는 가사를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우리 모든 작가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시고 음악정치를 창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음악철학을 가슴깊이 새기고 가사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노래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력사의 준엄한 대결을 깊이있게 형상한 진실한 화폭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3부에 대하여-

리성덕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3부는 제1, 2부가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한단계 더 올라선 작품으로서 독자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화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역사적흐름을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3부는 미제가 벌려놓은 《단독선거》로 하여 남조선에 괴뢰정부가 서게 되는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주인공 정시명을 비롯한 그의 전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뜻을 받들고 어떻게 반미구국투쟁을 더 역세게, 더 힘차게 벌려나가는가 하는것을 역사적 사실과 사건의 구체성속에서 실감있고 감동깊게 형상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가 벌린 《5.10단선》의 반인민적본질을 발가놓으시고 북과 남의 모든 애국세력이 일치단결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리승만을 비롯한 친미매국세력을 최대로 고립약화시키며 3천만 조선민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통일정부를 구성하여 나라의 통일독립을 성취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새로운 투쟁의 거창함과 간고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투쟁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세우고 역량편성과 투쟁무대를 새로 설정해나가는 정시명의 고심어린 투쟁모습과 그와 함께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각이한 성격의 통일애국투사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부각하였다.

작품에 형상된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을 통하여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헌신적으로 싸운 통일애국투사들이야말로 조국애가 열렬한 인간들이고 내 나라, 내 겨레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 가장 아름다운 인간됨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다.

## 1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3부가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독자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는 참신한 인간성격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전형화하고 개성화한데 있다.

이 작품에서 형상의 중심에 서있는 정시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을 신념화한 불굴의 투사로, 우리 민족의 존엄을 목숨바쳐 지켜나가는 열렬한 애국자의 전형으로 훌륭히 형상되고있다.

주인공 정시명은 미제의 식민지법기구가 마련되고 미구에 조작될 남조선통치구조물을 두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통일애국의 성업을 받들어 미제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킬것을 다짐하면서 조국통일에 역행하는 모든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타격할 결심을 굳히고있다.

《력사의 대결》 제3부는 주인공 정시명이 전우들과 함께 제주도인민항쟁과 려수-순천군인폭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남조선에 출현한 《제헌의회》를 통하여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피와 눈물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과정을 주선으로 그리고있다.

소설에 형상된 주인공 정시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강한 의지를 안고 복잡하고 간고한 원쑤와의 피어린 싸움에서 여러 차례 좌절도 당하고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지만 기어코 승리를 안아오고야마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가, 지휘관으로 형상되고있다.

그는 남조선 《국회》의 합법적연단에서 미군철거의 목소리를 높이 울릴데 대한 투쟁과제를 받아안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전우들앞에서 다음과 같이 열차게 부르짖고있다.

《반동중에서도 상반동들이 모인 국회를 움직여 낼수 있겠는가? 나도 빼근해지는 질문이요. 그러면 국회를 움직일만 한 세부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있는가? 없소. 참고할 경험도 없소. 앞으로도 찾지 못할게요. 우리 각자가 정열과 사색과 행동으로 탐구해서 경험을 쌓고 완성해나갑시다.》

이것은 력사의 반동들로 무어진 남조선 《국회》안에 투쟁조직을 내오고 그 대오를 확대하여 미군철거를 위한 필사의 싸움으로 떠밀어나가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주인공 정시명은 김승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그후에는 그가 《립헌의회》 안에서 소장파를 조직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합법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도록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인간성격으로 형상

되고있다.

정시명은 김승원이 이끄는 《국회》안의 소장파가 《국회개원식》에 참가하여 독재정치를 하려드는 리승만역도놈을 탄핵하는데 성공하도록 떠밀어주기도 하며 좌절을 당하기는 했지만 파썸악법인 《보안법》채택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미제놈들과 리승만역도의 가슴이 서늘해지게 타격을 주기도 한다.

작품은 이렇듯 주인공 정시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우로, 동지로 불러주신 열혈충신답게 고결한 사상과 견결한 투지, 비범한 재능을 지닌 투사로 격이 있게 형상하는데 묘사의 초점을 모아가면서 동시에 그의 성격에서 아름다운 인간적 면모가 두드러지게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맺어주고 투쟁과 생활에서 인간의 고귀한 향기가 풍만하게 넘쳐나도록 다면적으로 그리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고민도 크고 눈물도 많고 때로는 가슴치는 후회를 안고 몸부림치는 생동한 인간으로 전형화하였다.

주인공 정시명의 성격적특징에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귀중한 전우들의 깨끗한 사랑을 지켜주려고 모지름을 쓰는 정신적아름다움이다.

그것은 《홍국상회》의 부회장인 길철과 그의 애인인 권혜숙의 사랑을 성사시키고 그것이 우여곡절을 겪을 때에 정시명이 당하게 되는 정신적 고뇌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미제와의 심각한 대결을 앞두고 사랑의 번뇌를 안고있는 두 전우를 그대로 둘수 없다는데로부터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결합되지 못하는 길철과 권혜숙을 끝까지 결혼시킨 정시명은 한순간 기쁨을 간직할수 있었지만 권혜숙의 복잡한 가정환경으로 하여 그들이 갈라지지 않으면 안되는 가슴아픈 현실앞에서 당사자들 이상으로 마음을 쓰고 피로와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있다.

권혜숙이 탈가하여 유격대로 간것과 함께 《국회》의 소장파성원이 되기는 하였지만 개진의 길에 들어설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동중의 상반동인 권혜숙의 오빠 권영호를 돌려세우기 위해 눈물겨운 고뇌를 거듭하는 정시명의 형상이야말로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가 도대체 사생결단하고 통일은 왜 하라고 달려든거요? 겨레의 고통을 덜기 위해, 사람들의 깨끗한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사람들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게 아닌가. 이 나라의 가정들이 길이 한품에서 복락을 누리고 이 나라의 련인들이 자기의 사랑을 눈물없이 행복하게 즐기고 아름답게 가꾸어가기를 바라서란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까운 전우의 사랑을 외면하며 그의 가정을 외면한단 말이요!》

이것은 정시명이 권영호를 돌려세우는 문제를

놓고 길철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하는 부르짖음이다.

바로 이러한 인간이기에 적들이 5백만원의 현상금을 건 몸임에도 불구하고 권영호를 찾아 경비가 삼엄한 《국회의원》전용숙소와 경찰병원에도 대담하게 가는것이며 권영호때문에 애써 가꾸어낸 길철과 권혜숙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부서졌을 때 너무도 절통하여 진하디 진한 눈물을 찼찼 흘리며 무섭게 격노하는것이다.

절대로 개조할수 없다고 누구나 다 단정해버렸지만 권영호의 한가닥 량심을 믿고 그를 혁명의 편으로 기어이 돌려세우고야 마는 주인공 정시명의 투철한 모습이야말로 반동적인 우익민족주의자들까지도 민족적인 성업에 다 참가시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한 열혈투사, 충신중의 충신이라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또한 정시명은 어제날 자신에 대한 테로를 집요하게 추구해왔던 문진국이 민족성업의 길에서 재생의 기회를 찾아 진심으로 사죄할 때 혼연히 불미한 과거를 백지화하고 그를 동지로 포옹해주는 용단도 내리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인생전환의 길에 올랐던 김구가 난관앞에서 좌절에 모대기다가 절당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에게 진심을 고이고 성의를 다하여 생애의 말년까지 애국투사로 곳곳이 살아가도록 따듯이 이끌어준다.

려수-순천군인폭동을 지원하려 현지에 갔다가 체포된 김정원이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장렬하게 희생되는 장한 모습도 주인공 정시명이 쏘아부은 동지애가 키운 애국심과 영웅성의 빛나는 귀감으로 되고있다.

이렇듯 주인공 정시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의 동지로 믿어주신 그 신임에 보답해가는 담대한 배짱, 출중한 재능과 비단결같은 인간미를 겸비한 세련된 인간으로 진실하게 형상되었다.

소설에서 주인공과 함께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는 인물은 권혜숙이다.

그는 작품의 1, 2부에서는 《말팔랭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는 처녀였지만 제3부에서는 두드러지게 부각된 매혹적인 개성으로 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은 성격으로 형상되고있다.

조국해방이 이룩되기전에 벌써 가정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 애국의 길, 혁명의 길에 나선 권혜숙은 동지들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속에 오래동안 사모하여온 길철과 가정을 이루기는 했으나 반동화된 자기 가정 특히 상반동인 오빠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끝내는 사랑하는 남편과 갈라질것을 결심하고 자기 가정의 치욕을 씻기 위하여 너

성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유격대에 들어선다.

통일위업에 뛰어들 권혜숙의 성격적미는 《너를 보는 나의 눈》이라는 표제를 단 그의 일기장에서 감동깊게 그려지고있다.

민족적정서와 전투적량만으로 충만된 일기장의 구절구절들은 통일성전에 나선 권혜숙의 성격을 진실하게 부각함으로써 작품전반에서 두드러지면서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권혜숙의 성격적미를 세련된 문장으로 재치있게 엮어낸 일기들은 그의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화폭과도 같이 펼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가슴을 들어잡고있다.

정시명, 권혜숙과 함께 소설에서 김구의 형상이 깊이있게 그려졌다.

김구가 생을 마감짓기전에 정시명에게 한 마지막말은 김구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하고있다.

《난 말이네, 요새 평생길 자주 돌아보군 한다오. 뭐 무사분주히 뛰어왔건만 겨레앞에 해놓은 게 뭐냐? 똑똑한 나라를 세워놓았나, 백성의 밥상을 기쁨지게했나. 동포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거두게 했나. 큰 산을 움직였더니 들쥐 한마리라... 내 꼴 꼭 그 꼴일세. 현대 이제 눈 뜰라니 내 나이 너무 차서 앞이 없는거라. 그래 내 생각을 벗고돼 다시 했소. 두배, 세배, 열곱으로 살아야 하겠다고 말이요. 여생을 달음박질해야 되겠다 그말이요. 허허...》

대사에는 백범답게 이 나라 만백성의 뜻을 모아 살고저 인생의 마지막까지 모지름을 써온 한 인간의 모습이 력력히 비껴있다.

김구는 그의 사회정치적지위에 맞게 개성이 뚜렷하게 형상되었다.

소설에서는 운명의 비극적최후순간까지 인생의 바른길에서 탈선하지 않으려고 인생곡절을 이겨내는 그의 성격을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미제놈들이 총리자리를 주고 총리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할 때 그것을 말고 미제놈과 정면대결을 할 생각도 해보는 김구였지만 그것이 **김일성** 장군님의 신임을 배반하는 역적행위라는것을 깨닫고 물러나며 악정으로 빚어지는 말세를 떠나 절간으로 은퇴할 생각을 하였다. 그는 정시명의 충고를 받고 소장파 《국회의원》들앞에 나서서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심장을 뒤흔들어놓으며 반동화된 권영호의 아버지를 만나 추상같은 호령으로 닦아세우는데서 자기의 성격적특질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1, 2부에서와는 달리 김구의 성격적특질들이 변화된 생활과 정세의 흐름속에서 새롭고도 특색있게 부각되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으며 작품의 미학적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소설의 제3부는 이밖에도 《국회》투쟁의 주역인 김승원, 권혜숙의 애인 길철, 금줄을 두른 경찰모를 쓰고 정시명의 위험을 막아나서는 김아성, 러수-순천군인폭동을 지원하다가 체포되자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장렬히 전사하는 김정원, 권혜숙의 오빠 권영호와 최남수, 안지생 그리고 주인공의 안해인 민순임과 전우의 딸 혜영, 적대적인물로부터 동지로 되는 문진국 등 인물들이 각이한 자기의 개성적으로 형상되어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자기가 자청해나선 길이 죽음에로 잇닿은 길이라는것을 알면서도 감옥에 가서 밀린 잠이나 실컷 자고 오겠다고 하면서 권하는 술잔을 고별잔같이 들지 않겠다고 병글거리는 패남대장부 김승원이며 수많은 고민거리와 피로운 눈물을 가슴에 한동이 채워가지고도 초연히 승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나가는 길철의 모습은 참으로 눈물겹고 감동적이다.

통일애국자들의 사랑속에서 성장하면서 주인공 정시명의 안전과 보위를 위하여 자체로 자동차를 몰면서 미행자를 날쎄게 따돌리기도 하고 혼썰내기도 하는 사랑스러운 레영과 《흥국상회》성원들의 뒤시중을 드는데서 자기의 정성을 아낌없이 다바치며 그 정성을 권영호에게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어 인간적정성이 되살아나게 하는 주인공의 안해 민순임의 형상도 뚜렷이 채색되고있다.

작품에 형상된 모든 긍정인물들은 갈라진 조국과 민족의 아픔을 가슴깊이 새기고 민족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시켜나가는 겨레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로, 통일운동의 새벽길을 헤쳐나간 인물들로 형상됨으로써 귀중한 인생철학을 독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적대인물인 매국역적 리승만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서울주재 미국대사 무쵸를 비롯한 미제의 성격을 력사주의적전지에서 심도있게 그려내고있다.

소설의 1, 2부에서는 권력의 욕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미제를 등에 업고 온갖 치사한 꼴을 보이는 리승만도당의 역적체질을 적라라하게 드러냈다면 3부에서는 차지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하여 미제의 옷섶에 매달려 매국배족행위를 일삼는 리승만역적도당의 추악한 물골을 여러모로 보여주고있다.

리승만의 역적으로서의 성격적특질은 작품의 기본문제로 설정된 남조선에서의 미군존재와 관련한 립장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북남삼천리에 미강점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

적인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지고있을 때 유독 리승만도당만이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기 위한 온갖 비열한 휴계를 다 꾸미며 나중에는 전쟁을 도발하려고 날치기까지 한다.

참으로 민족의 자주권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인신의 안락과 영화를 위해 피눈이 되어 미쳐 날뛰는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의 절정을 이루고있다.

소설에서 리승만역도의 형상은 미제의 주구로만이 아니라 미제놈들의 약점도 알고 그것을 자기의 권력욕에 능란하게 해먹으려는 치졸하기 그지없는 비열한으로 민족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도덕적인 패륜아로 미제가 쥐여준 권력을 가지고 수하인물들의 운명을 제마음대로 휘둘러대고 룡락질하는 사기한의 전형으로 신랄하게 폭로단죄하고있다.

미국대사 무쵸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고있는 현지집행자로서 하지와는 구별되는 로회한자로 성격화되고있다.

무쵸는 관록있는 외교관으로서의 수완과 실력을 자화자찬하면서 선임자 하지를 경멸하며 남조선을 미국의 고요한 안식처로 평정할 꿈을 안고 서울에 기여든 악한으로 전형화되고있다.

하지만 무쵸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미군의 영구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 쓰고있지만 끝내 우리 인민과의 력사적대결에서 하지처럼 련속 반격을 받고 수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의 남조선대표로 설정된 노블은 경무대의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프란체스카를 품에 안고 돌아치는 또 하나의 야만적인 양키 《신사》의 전형으로 형상되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이 진실하게 형상되었다.

## 2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3는 시종일관하게 극적긴장감을 조성할수 있는 잘 짜인 구성조직과 작품의 사상예술적효과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담보할수 있는 기품진 세부들로 하여 주체적인 우리 소설문단에서 특색있는 면모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력사의 대결》 제3부는 지나간 력사속에 묻힌 이야기라는 점에서 따분한감을 줄수 있는 소설이지만 독자들은 펼쳐지는 50여년전의 생활세계에 깊이 뛰어들게 되며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과 더불어 련이어 바뀌여지는 생활무대를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색도 하고 손에

땀을 쥐기도 하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계급적원썹들이 활개치고 포위망을 친속에서 자칫하면 족쇄를 차거나 생명을 바쳐야 하는 위험을 안고 싸우는 통일애국투사들의 가렬치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소재의 특성에서도 오는것이지만 작용에 제시된 사상과 형상을 생활의 논리에 맞게 다채롭게 그려나갈수 있도록 구성이 치밀하고 감정선이 주도세밀하게 조직되었다는데 있다.

소설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복잡한 사건과 일화들이 전개되고있지만 그 모든것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뻗어지고 주인공의 행동과 밀접히 련관되어있기때문에 조잡하지 않게 하나의 흐름선상에서 줄기차게 펼쳐지고있다.

소설의 감정조직은 구체적인 극적정황과 세부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엮어나감으로써 감정의 축적과정은 충분히 주고 그 폭발의 진폭을 높이고있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권혜숙의 사랑선은 소설에 설정된 감정선가운데서 독특하게 형상된 감정조직이다.

권혜숙의 사랑선을 둘러싼 감정선은 작품의 첫머리에서부터 이채롭게 시작되어 투쟁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응당한 곡절을 겪다가 비극적인 종말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폭발적인 여운으로 독자들의 가슴마다에 격정을 안겨주고있다.

권혜숙이 최후를 마친 동굴의 비장한 장면을 절정으로 설정한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작품은 독점에서 진행한 길철과 권혜숙의 결혼식을 전후한 이야기, 《신혼나들이》를 갔다가 뜻밖에 봉변을 당하고 그들이 갈라지게 된 일화, 권혜숙이 보내온 감슬과 그가 써보낸 편지로 하여 《홍국상회》성원들이 터뜨리게 되는 다양한 감정세계, 권영호를 돌려세우기 위해 애쓰는 권혜숙의 모습, 권혜숙의 소환을 위해 마을을 쓰는 주인공 정시명은 비롯한 인물들의 감정세계 등 인상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생활세부들은 련속적으로 맞물려 감정은 축적시키고있다.

이 축적된 감정은 권혜숙의 일기대목에서 더욱 승화된다.

《너를 보는 나의 눈》이라는 이상야릇한 표제의 일기장에서 권혜숙은 어쩌서 집을 탈가하고 사랑하는 애인의 사랑도 뒤에 남기고 순간순간을 목숨을 내대고 싸워야 하는 가장 어려운 유격투쟁의 길을 선택했는가 하는 량심의 고백을 쓰겠다고 했기때문이다.

혜숙의 일기장은 그의 짧은 한생을 함축한 중요한 생활화폭마다에서 그자신의 복잡하고 다양한 내면심리와 감정세계를 예리하게 도출해내면서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강의하고



다감하며 정의감에 형타고 사랑에 열정적인 녀성이었던가 하는것과 아울러 원썬들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고 싸움에서 얼마나 용감한 투사였던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권혜숙의 내막을 속속들이 알게 된 유격대녀대장 리점분이 《너도 모진 녀자구나.》라고 했을 때 그는 나는 모진 녀자가 아니야라고 단언하면서 더 큰 사랑을 위해, 더 큰 꿈을 위해 자기를 지켜간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고있다.

하지만 권혜숙은 오빠가 《량심선언》으로 혁명대오에 서게 될 기쁨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길철의 품, 조직의 품에 돌아올수 있게 된 무한한 행복을 앞에 두고 생명을 위협하는 1분전에 마지막 일기를 유서로 남기고 장렬하게 희생된다.

작품은 잘 짜인 구성조직과 함께 종자를 꽃피우는 생동한 세부들로 형상을 부감시키고있다.

꼭배기토장국에 대한 생활세부는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국회》투쟁을 직접 지휘한 김승원은 최후의 싸움에 나서기에 앞서 민순임이 차려준 꼭배기토장국을 받아들고 아이들처럼 기뻐하면서 잠간새에 말끔하게 그릇을 비워버린다. 그리고는 토장국을 꼭배기로 칭하고는 자기가 감옥에 가있는 기간 자기 처에게 꼭배기토장국 만드는법을 잘 익혀주라고 녀스레를 부린다.

민순임은 김승원이 사지판으로 가고있다는 남편 정시명의 말을 듣고서야 소스라쳐 놀라 비명을 올린다. 정시명은 왜 그를 붙잡지 못했는가 하고는 민순임의 기막힌 부르짖음에 그를 지켜줄수도 대신해줄수도 없는 안타까움에 모대기는것이다.

토장국세부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김승원을 추모하는 모임에 굴절되어 그의 요청을 들

어주지 못한 민순임의 복통이 터지게 하며 정시명의 통곡을 터뜨리게 하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3부는 정시명을 비롯한 통일애국세력과 미제의 거물급피수들과 리승만피뢰 역도가 결합된 계급적원썬들과 력사적대결로 형상을 집중시켜나갔다는데 혁신적의의가 있다.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북남3천리에 조국통일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앙양되고있으며 6.15북남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전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3부는 문학사적인 견지에서뿐만아니라 우리의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에도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주고 신심을 주는 훌륭한 사상예술적무기로 된다.

《력사의 대결》 제3부는 마지막에 정시명과 길철이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고 《홍국상회》 회장대리로 김명호가 선출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력사의 대결》 제4부에서 통일애국세력이 미군과 민족반역도당을 반대하는 력사의 대결을 얼마나 치렬하게 벌리게 되겠는가 하는것을 예고해주고있다.

우리는 《보안법》의 서슬푸른 칼날이 시시각각으로 통일애국투사들의 걸음걸음을 막아서는 암흑의 땅에서 지하로 들어간 주인공 정시명과 길철이 어떻게 전우들과 손을 잡고 투쟁의 혈로를 헤쳐나갈것인가 하는 기대를 안고 보다 높이 올라선 《력사의 대결》 제4부가 독자들의 손에 들어오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훌륭한 창작성과를 기대하게 된다.

## 〈가사〉

# 노래의 고향

김선지

인민의 마음속에 봄날만을 안겨주는  
백두밀영귀틀집은 노래의 고향  
세기의 위인이 탄생하시여  
청송의 노래 끝없이 태어나네

백두의 절경을 한품에 담고있어  
노래도 천만으로 태어나는 집  
소백수물결도 춤추며 흐르고

새들도 날아와 봄노래하네

새날의 아침이 정일봉에 먼저 밝아  
조국의 미래가 꽃피나는 집  
이 세상 만복을 안아온 곳이어서  
영원한 봄노래 여기서 태어나네  
아 백두밀영귀틀집은 노래의 고향

# 다시 찾은 이름

비전향장기수 최태국

## 1

나에게도 이름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뒤뜰안 앵두꽃 곱게 피던 자그마한 초가집  
내 태어나 처음으로 고고성을 터치던 날  
너무 기뻐 할아버지 아버지 무릎을 마주하고  
밤새도록 고르고 골라준 이름

그 이름속엔  
짜지게 가난한 살림속에서도  
할아버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아버지의 절절한 소원이 있었다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던 그날  
용타용타 손벽을 치며 어머니가 불러주던 이름  
시내가에 해지는 저녁이면  
마을이 떠들썩하게 나를 찾아 부르던 이름

소학교 작은 교실  
《애국가》를 배워주던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그 이름은 있었다  
정든 초소 나의 집  
분대장의 반복구령에도 그 이름은 있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모든 사람들과 꼭같이  
나에게도 이름이 있다  
나라 위한 큰사람이 되라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 2

나에겐 이름이 없었다  
녹슨 철창이 삐걱이는 차디찬 감방  
원수들의 채찍이 살점을 뜯어내는  
0.75평  
그 작은 감방에서는

때없이 불러내여  
전향서에 손도장 하나만 찍으면  
살려준다고  
자유로운 천지가 너를 기다린다고

참으로 고문의 방법은 많기도 하다  
불고문, 전기고문, 몽둥이찜질...  
죄아닌 죄로 먹방에서  
간힌 몸에 또 갇히여  
홀로 보낸 낮과 밤 그 얼마였더라

아침에 저녁에  
한술에도 성차지 않은 깡보리밥

그 보리밥 줄 때마저도  
나에겐 이름으로 불리운적 없었다  
《3586번》  
이것이 나의 《이름》이었다

오, 자다가도 소스라친다  
《3586번》  
이것이 나의 《이름》이었다  
나의 앞가슴에 악마처럼 붙어  
징그러운 원수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3586번》  
이것이 나의 《이름》이었다

## 3

나에겐 이름이 있다  
철창속의 긴긴 35년  
아버지 어머니도 찾아줄수 없었던 이름  
우리 장군님 찾아주셨나니

6.15의 해빛이 파사로워  
조국이 나를 안아 불러준 이름  
나를 낳아준  
어머니 목소리인가

아, 그것은  
꿈결에도 그림던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것은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목소리였다  
청춘혼안에 불러주던 이름  
백발을 엮은 그날에 다시 불리웠다

오, 나에겐 이름이 있다  
우리 장군님 찾아주신 이름  
리력서갈피에  
당원증의 첫머리에

얼마나 정답게 올리더냐  
온 나라가 불러주는 이름앞에  
비전향장기수  
그래서 이리도 눈곱이 젖는것이나

그 어떤  
원수들도 빼앗지 못할 이름  
아, 그 이름앞에 덧붙여  
신념과 의지의 강자  
공화국영웅으로 불리우는 나의 이름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전사다!

## 《천강지출》

《천강지출》이란 말은 《승천입지》라는 말의 반대이다. 다시말해서 《승천입지》가 《하늘로 오르기도 하고 땅속으로 찾아들기도 한다.》는 말이라면 《천강지출》은 그와 반대로 《하늘에서 홀연 내려오기도하고 땅속에서 불쑥 솟아오르기도 한다.》는 뜻이다.

천변만화하고 신묘한 전설로 왜놈들을 쥐락펴락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지략에는 마치고 하늘로 오르거나 땅속으로 찾아버린듯 감쪽같이 사라지는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푹 떨어지거나 땅에서 불쑥 솟아나듯 불시에 나타나서 정신을 차릴새도 없이 왜놈들을 죽쳐버리기도 하여 《천강지출》한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황해남도 안악, 재령, 신천지방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그 실례이다.

×

이른바 《태평양전쟁》이라는게 터져서 세상천지가 죽가마뚤듯 하던 때라고 한다.

어느날 이 일대에서는 대낮에 안악땅의 대지주 김홍량의 집에 나타났던 **김일성** 장군님의 부하에 대한 이야기로 법석 났었다.

《참 조화는 조화란 말이야. 서울 총독부에는 뚫고들어갈수 있을지 몰라도 안악 김홍량이네 집만은 뚫고 들어갈수 없다고 소문이 들썩한데 도대체 **김일성** 장군님 부하가 어떻게 뚫고 들어갔다는거야?》

《아따, 귀구멍은 보리동냥을 보냈됐나? 장군님의 부하들은 다 장군님한테서 삼백예순가지 도술을 배웠기때문에 둔갑술을 쓸줄 알구 축지법도 능사로 쓸줄 안다는 말 못들었나? 거 보라구. 김홍량이네 집에도 어느날 몇시에 오겠으니 이리이리 하라고 통고를 해놓고는 꼭 그 시간에 나타났대지를 았나.》

《글쎄.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어느날 동경 한복판에 있는 《천황》놈의 방에까지 불쑥 나타나시여 <이놈, 조선에 있는 왜놈군대들을 몽땅 걸어가지구 물러가지 못할고?> 하고 호령하셨다는데 장군님한테서 도술을 배운 유격대원들이 김홍량이네 집에 뚫고들어가는것쯤이야 식은죽먹기지, 허허...》 J

《윗, 누가 듣겠네.》

김홍량이네 집에 나타났던 **김일성** 장군님의 부하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김홍량은 《유력한자》로 소문이 뜨르르한 자였다.

예로부터 《유력한자》, 다시말해서 《힘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모로 겸비한 사람이라 하였은즉 건전한 체력과 넉넉한 재산과 높은 벼슬자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무슨 일이나 감당해낼수 있

는 재능이 있어야 《힘있는자》라 할수 있다는것이다. 김홍량은 이 네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있었다.

그의 체력으로 말하면 푹 빠져져나게 두드러진데는 없지만 보통기보다는 크고 박달방치처럼 단단하고 눈코입귀가 그쫘하였다.

그의 재산은 놀랄만 하였다.

재령강물을 막아 논을 풀 때 콩을 가득 담은 가마니들로 푹을 쌓았다는 이야기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의 재산정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번은 서해기슭을 달리는 자기 승용차안에서 아득히 펼쳐진 논밭을 내다보다가 《참 탐나는 땅이로다. 이게 뉘댁 땅이냐?》하고 그가 물었을 때 그의 개인서기가 아연해서 《이건 다 주인님네 땅인덟쇼.》하고 대답하였다는 일화도 그의 재산정도를 말해주는것이다.

그의 권세로 말하면 관직을 가진것은 없지만 《도평의원》까지 지내면서 왜놈들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을뿐아니라 서울 총독부에 가까운 친구들이 수두룩하고 게다가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거액의 《헌납금》까지 바쳐 총독의 《치하》까지 받았으니 허술히 대할자가 아니였다.

그의 재능과 능력이란 또 어떤것인가.

김홍량은 장마철날썰처럼 번덕스러운 세파속에서도 약저울처럼 예민한 감각과 눈금자처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재산을 불구고 권세를 넓혔다. 실로 그는 어느쪽에 붙어야 리로울것인가를 재빨리 간파하는 특수한 감각과 함께 병아리를 던져 황소를 닭을줄 아는 남다른 수완의 소유자였다.

김홍량의 집은 곧 그의 재력과 권세와 수완을 집대성한듯 요란하였다.

본채와 별채, 안채와 바깥채, 고간들과 외양간, 마구간들, 련못 달린 정원...

성벽처럼 드높고 든든한 담장안에 들어앉은 그의 저택은 궁성과도 같이 요란하고 화려하였으며 요새와 같이 위엄스러워보였다.

김홍량은 담장을 더 높이고 든든히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더구나 안악읍에서 조금 버거진 연동마을의 지주 원종빈의 집이 알지 못할 피한들의 침습을 받아 돈을 털리우고 원종빈 자신은 복부에 칼을 받고 제명 못살고 죽는 끔찍한 일이 있던 다음부터는 담장을 굳건히 하는데 더욱 마음을 썼다.

수많은 돈과 로력을 들여 울담장을 성벽처럼 높이 쌓아올리고 그우에 철조망까지 또 쳤다.

김홍량은 울타리공사가 끝나자 그 둘레를 한바퀴 돌아보고는 만족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허허... 이쯤 했으면 괜찮아. 날새가 아닌 이상 이 담장을 어느 놈이 넘을수 있을고?》

하지만 그는 울담장을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서 대문가에는 말갈은 개를 두마리나 쇠사슬에 매어놓았고 경찰서장에게는 자기네 집에 특별히 관심을 돌려달라고 부탁해놓았다. 그리하여 밤이면 야경군들과 순경들이 그의 집 둘레를 돌면서 보초를 서주었다.

그러니 귀신인들 그의 드높은 담장과 경찰의 경비진을 뚫을 수 있겠는가.

헌데 뜻밖에도 그의 요란스러운 재력과 권력도 성벽처럼 높은 울담장과 경찰들의 보초도 허사로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

김홍량이 서울에 가서 총독부에 수천원의 《헌납금》을 바치고 돌아온 날이었다.

《대일본제국》의 《황군》을 위하여 《헌납금》을 바치는데서 《모범》을 보였다고 총독의 표창장과 상품까지 타가지고 내려온 김홍량은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자기 방안을 오락가락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창문가에 놓여있는 탁자우에서 낫선 편지봉투 하나를 발견하였다.

김홍량은 자기가 서울에 올라가있는 사이에 어데서 온것을 하인이나 아이들이 가져다놓았으리라 생각하며 무심히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 한쪽 면에는 《김홍량귀하》라고 써여있었다. 분명 자기에게 온 편지였다.

《도대체 어데서 누가 보낸 편지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편지봉투 뒤면을 보려고 뒤집던 김홍량은 불에 데기라도 한듯 펄쩍 놀라서 편지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말았다.

뜻밖에도 편지봉투의 뒤면에는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라고 써여있었던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서 보낸 편지라면 등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일본의 백만관동군을 한손에 쥐락펴락하신다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보냈다는것인즉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홍량은 사지가 와들와들 떨리고 등골로 식은 땀이 흘렀다. 변신술, 둔갑술을 비롯하여 별별 술법을 능사로 쓰신다는 **김일성** 장군이 당장에라도 불쑥 자기앞에 나타날것만 같았고 지금 어데신가 가까운 곳에서 사시나무벌듯 하고있는 자기의 물골을 지켜보고있는것만 같아서 방안의 이구석 저구석을 겁에 질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바람에 창문이 덜커덩거리는것조차 **김일성** 장군이 눈에 보이지 않게 드나드는 소리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서둘러 집안식구들과 하인들을 불러놓고 자기 방의 탁자우에 누가 편지를 가져다놓았는가고 물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편지를 가져다놓은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귀신의 조화란 말인가? 김홍량은 점점 온몸이 얼어들었다.

(어쨌든 속지를 꺼내보자.)

김홍량은 마음을 다잡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개봉을 하고 조심스레 속종이를 끄집어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있었다.

《당신은 이 땅에 태를 묻고 이 나라의 물과 난알을 먹고사는 사람일진대 어찌 제 나라를 빼앗고 제 겨레를 도살하는 왜놈들의 주구가 되어 수

천원의 <헌납금>까지 섬겨바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를 저지룰수 있는가? 재산이 넉넉하고 돈이 풍족하다면 마땅히 그것을 나라를 되찾고 겨레를 구원하는 해방성업에 기여함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군자금이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에게 지난날의 죄를 씻고 나라와 민족앞에 의로운 일을 한가지라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통고장을 보내니 이달그믐날 정오까지 3천원의 돈을 어김없이 준비해놓으시오. 정확히 그 시간에 사람을 보내겠소.》

김홍량은 통고장을 다 읽고는 무너지듯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백두산에 있다는 항일유격대가 어떻게 벌써 일본총독부에 <헌납금>을 바친것까지 알고 준절히 꾸짖는것일까? 참으로 귀신이 꼭할 일이 아닐수 없다. 이젠 다 천치에 통하는 신묘한 술법과 신통력을 지니신 **김일성** 장군님의 조화다. 그러니 백만대군이 아니라 천만대군인들 어찌 당해낼수가 있겠는가?》

김홍량의 머리에는 불현듯 엇그제 《헌납금》을 바치는데서 《모범》을 보인자들의 《모임》뒤끝에 있었던 총독과 기자들의 회견장면이 선히 떠올랐다.

《총독각하, 각하는 간도지방과 백두산일대에서 무시로 출몰하는 **김일성** 유격대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있습니까?》

재빠른 기자 하나가 회의장에서 나오는 총독을 막아나서며 마이크를 들이댔다.

총독은 점잔을 빼며 호언장담하는 투로 대답하였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가 있는가? 광대한 중국 땅은 물론 저 멀리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동양천지를 통채로 타고났은 <대일본제국>과 <무적황군>의 막강한 위력앞에서는 그썸한 세력은 무시해버려도 무방한 <창해일속>이야.》

《아, 그렇습니까? 허나 우리가 알기에는 항일유격대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채 <태평양전쟁>에 뛰여든 <대일본제국>은 많은 고충을 겪고있다고 보는데요. 어찌하여 항일유격대를 <소멸>하지 못한채 <태평양전쟁>에 뛰어들었는가요?》

까다롭고 말쑥 질문이 련속 날아들었다.

총독은 속으로 은근히 부아가 났으나 태연한듯 대답하였다.

《이미 말했지만 그건 보잘것 없는 부스럼이나 같은거야 세계패권을 쥔수 있는 권투선수가 그따위 부스럼때문에 경기에 출전 안하겠는가?》

《아, 각하의 능란한 비유에 탄복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본영의 고관막료들까지도 **김일성** 유격대를 <제국의 암>이라고 하였는데 부스럼치고는 너무도 위험천만한 존재가 아닐가요? 그리고 그런 부스럼을 그대로 가지고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종말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자 각하의 교견을 듣고싶은데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야유였다. 총독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주먹을 틀어쥐었다.

《망할 자식들...》

용케도 자체력을 잃지 않은 총독은 바쁘다는것을 구실로 《오늘은 이만하자.》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의 뒤에서 놀려대듯 기자들이 시까스르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 그걸 몰라서 물어보나? 내가 대답해 주지. 종양을 그대로 둔채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종착점은 무덤일세.》

《하하하... 그것 또한 명비유일세》

《호호호... 명답이지요.》

너류기자까지 끼여서 까투리 날아가는 소리로 웃어대며 초를 치고 양념을 쳤다...

김홍량은 지금 **김일성** 장군이 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편지까지 받고보니 《종착점은 무덤》이라던 기자들의 야유가 새삼스럽게 되새겨졌다. 사실 총독이 큰소리를 쳤지만 《대일본제국》이 그 《종양》을 그대로 둔채 《태평양전쟁》에 뛰어들고싶어서 그런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찌는수가 없어서였다. 어찌지 못하는것은 벌써 승자가 아니요, 승자가 아니면 그것은 곧 패자인것이다.

얼마나 많은 병력과 돈을 밀어넣으면서 십여년 동안이나 신고를 했던가.

불치의 종양을 지닌채 《국제경기》에 뛰여든 일본의 《종착점》은 《무덤》이라는 기자들의 비유는 정확한것이였다. 하다면 구멍뚫린 《대일본제국》이라는 《함선》에 함께 탄 자신의 운명은 어찌 될것인가?

이제라도 뛰어내려 《백두산》이라는 《함선》에 기여올라 유격대와 손을 잡을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상상할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대일본제국》에 《충성》을 다해 오며 나라와 민족앞에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은 자기를 용서해줄리 만무하며 또 자기네 배에서 뛰어내려 《백두산》 호어로 헤엄쳐가는 자기를 발견하면 일본사람들이 가만 두겠는가? 《백두산》 호에 가닿기도전에 일본제 총알이 자기의 잔등을 꿰고말것이다. 그렇다고 항일유격대의 통고장대로 돈을 보내지 않을수도 없는 일이었다. 통고장이자 곧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김일성** 장군의 명령인데 그걸 어기고 무사할 목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실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였다.

김홍량은 머리를 싸매고 한동안 드러누워서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면서도 심사숙고해서 어느쪽에 붙어야 리로울것인가를 따져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오던 《대일본제국》의 보호를 받기로 결심하였다.

김홍량은 유격대가 보낸 통고장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경무총감에게 사실을 알렸다.

경무총감은 김홍량이 가져온 통고장을 받아 읽고는 별로 대수로운것이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보호》를 약속했다. 그러나 김홍량이 자기

방에서 나간 다음 그는 통고장을 다시 끝썩어 읽어보고는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협박을 해서 돈뿐이나 털어내자고 그 어떤 불량배들이 꾸며낸 모략도 아니요, 한번 혼썰을 내주자고 만들어낸 그 어떤 장난군들의 속임수도 아니었다.

통고장은 어느 모로 보나 조선인민혁명군에서 보내온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가벼이 대할 일이 아니었다.

경무총감은 즉시 자기의 막하부하들을 불러들여 이일을 논의에 붙였다.

론전은 처음 김홍량의 집으로 **김일성** 장군 빨찌산이 돈을 가지려 정말 오겠는가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한쪽에서는 유격대가 돈을 가지러오겠으면 쥐도 새로 모르게 와서 가져갈것이지 날자와 시간까지 꼭 찍어놓고 그 시간에 찾아올 머저리가 어디 있겠는가, 이거야 날 잡아주시오 하고 함정에 찾아오는격이 아닌가. 그러니 그 날자에는 절대로 오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쪽에서는 모르는 소리 작작하라, 날자와 시간까지 밝힌것은 신출귀몰하는 자기들의 술법을 믿기때문이다, **김일성** 장군 빨찌산은 한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빈소리를 모른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아도 온다면 그 시간에 꼭꼭 나타났지 틀린적이 있었는데 주장하였다.

결국 이 론전에서는 유격대가 반드시 올것이라는쪽이 이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돈을 가지러오는 유격대를 어떻게 붙잡겠는가 하는데로 론점이 옮겨졌다.

론쟁은 이번에도 두패로 갈라져서 벌여졌다. 한쪽에서는 신출귀몰하며 바람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김일성** 장군 부하들은 제아무리 경비진을 친대도 절대로 잡을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쪽에서는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덩그물을 세겹 네겹 둘러치면 성공할수 있다고 우겨댔다.

경무총감은 부하들이 욕심각신 떠드는 소리를 듣다 못해 버럭 화를 냈다.

《유격대를 잡을수 있든없든 김홍량이네 집을 물썰틈없이 둘러싸고 안악고을에 경비진을 철통같이 치라. 만일 우리 <황군>에게 <헌납금>을 바친 김홍량이 유격대한테 잘못되는 날엔 그들의 징벌이 무서워서 우리 제국을 위해 <헌납금>을 바칠 사람이 한명도 없게 될것이다. 제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황해도는 물론 평안도와 함경도에서까지 난다긴다하는 형사와 경관들이 선발되어 안악고을로 급히 파견되였다.

김홍량의 집은 두겹, 세겹 경비진속에 둘러싸였다.

거리와 골목골목들에서는 사복형사들이 검은 안경속에서 눈알을 굴리며 오가는 사람들의 거동을 예리하게 살피고 길목과 다리목들에서는 총을 멘군경들이 행인들을 간간히 검속하였다.

밤에는 김홍량의 집주변과 읍거리의 곳곳에 잠복초소들을 촘촘히 세웠다.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들은 장군님한테서 별별 술법을 다 배웠기때문에 코끝을 건드리며 지나가도 눈에 보이지 않을뿐아니라 하늘에서 푹 떨어지기도 하고 땅속에서 불쑥 솟아나기도 한다는 소문을 자주 들은터이라 경찰놈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목이 유격대의 칼에 땡겨 날아날지 몰라 가슴을 조이였다.

어쨌든 김홍량은 자기네 집을 겹겹이 둘러싼 경비진을 보고는 다소간 마음이 놓이였다. 그는 자기네 집을 지켜주느라고 수고를 하는 경찰들에게 연방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소를 잡는다, 떡을 친다 날마다 부산을 피웠다.

김홍량이네 사랑채에는 유격대는 절대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겐지로중좌와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왜 못잡겠느냐고 주장하던 고등계형사 부장 사사키중좌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들은 서로 돌아앉아서 말도 안했다. 겐지로는 《어디 두고 보자, 유격대를 잡는가.》하는 속심이였고 사사끼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격대를 잡아서 겐지로놈에게 내 솜씨를 보여주어야지.》하고 욕먹었다.

어느덧 날자는 자꾸 흘러가서 드디어 설달그믐날이 되었다. 이날은 새벽부터 경비인원들과 단속초소들을 몇배로 더 늘이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김홍량은 아예 자기 방에 깊숙이 들어앉아서 바깥출입을 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등잔심지처럼 타들었다. 벽에 걸린 벽시계의 푹딱거리는 소리조차 불안한 마음을 더해주어 온몸이 얼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문밖에서 검둥개가 우르릉거려도 마음이 긴장해지고 나무가지가 바스락거려도 머리칼이 곤두서곤 하였다. 김홍량은 열두시에로 전진해가는 시계바늘을 바라보기조차 두려웠다. 태평스레 푹딱거리며 제갈길을 가는 시계바늘이 앞땃게까지 생각되었다. 어느새 시계바늘은 열두시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김홍량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백두산에서 요구하는 3천원을 미리 준비하여 벽장안에 넣어두었다. 돈을 아끼다가 귀한 목숨을 잃기는 잃었던것이다.

드디어 벽시계가 땡 땡 열두점을 치기 시작하였다. 하나, 둘, 셋... 속으로 종소리를 세는 김홍량에게는 그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렸다.

바로 이때 하인이 점심상을 들고 들어왔다.

김홍량은 겁에 질린 제 물결을 하인에게 엮어인것 같아서 제격 낮빛을 달리고 제법 허세를 부렸다.

《거기 놓게. 점심이나 먹어야겠네. 유격대가 제 아무리 귀신갈대두 경비진을 철통같이 쳐놓구 저들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지키고있는데 무슨 수로 찾아올텐가. 보게. 열두시가 됐지만 김일성장군의 부하들커녕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는걸...》

김홍량이 수저를 들고 밥그릇에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머리우에서 웅글고 저력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홍량씨, 안녕했소? 김일성장군님의 령을 받고 내가 왔소.》

그 소리는 열대왕의 호령만큼이나 요란하고 무섭게 울려서 금시에 온몸이 얼어들고 사지가 굳어지는것 같았다.

얼혼이 빠져 한참이나 꼼짝 못하고 앉아있던 김홍량은 꼭 감았던 눈을 겨우 떴다. 자기가 마주하고있는 밥상앞에는 행전을 친 두다리가 기둥처럼 버티고서있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김홍량은 겨우 고개를 들어 감발을 친 두다리의 주인을 쳐다보았다.

산뜻한 군복에 혁띠를 가튼히 졸라매고 오각별이 빛나는 모자를 쓴 톰름한 젊은이가 불꽃이 튀는 눈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김홍량에게는 그것이 하늘에 꼭 닿은 거인이 내려다보는것처럼 느껴졌다.

천둥같은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당신은 아직도 왜놈들을 믿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요. 당신이 하는것을 보아서는 당장 처단해버리고싶은 생각이 불같지만 우리 장군님의 령이 그렇지않아서 그냥 가겠소.》

김홍량은 사시나무떨듯 하면서 돈을 내놓았다.

정작 돈뭉치를 내놓자니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이런 때에 사랑채에 있는 겐지로나 사사끼가 들어왔으면 좋으련만 바깥동정을 살피느라고 정신이 팔려 김일성장군의 부하가 방안에 들어온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김홍량은 비록 유격대원이 돈을 받아넣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쉽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격대원의 거동만 살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일이 또 어데 있는가?

김일성장군의 부하는 퇴마루에 나서더니 《승용차!》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김홍량의 차고에서 자가용승용차가 굴러나왔다.

《수고스럽겠지만 당신도 나와 함께 얼마쯤 같이 가야겠소.》

김홍량은 유격대원의 말을 듣고 선뜻 차에 오르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어찌는수가 없어서 가까스로 차에 올랐다.

《출발!》유격대원이 한마디 하자 승용차는 땡땡 경적소리까지 울리며 달리기 시작하였다.

겹겹이 대문을 지키고있는 보조들이 승용차안을 들여다보았다. 김홍량은 그들이 유격대원을 알아보고 손을 쓰게 하려고 눈짓, 몸짓을 하려했으나 어떤 일인지 온 육신이 돌부처처럼 굳어져서 꼼짝을 할수가 없었다. 그러니 그저 보조들이 알아보기를 바랄수밖에 없어서 멍청히 앉아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데 있는가!

보조들은 승용차를 군말없이 통과시켜버리는것이 아닌가!

대문을 빠져나온 승용차는 한참이나 달리다가 재령땅의 어느곳에서 멈춰섰다. 유격대원이 차에

서 내렸다.

《김홍량씨, 이제라도 조선사람답게 사시오.》

유격대원은 김홍량을 준렬히 꾸짖고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얼흔이 쑥 빠져서 한동안 차에서 멍청히 앉아 있던 김홍량은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대문앞에 총을 들고 서있는 보조병들을 보자 저절로 화가 치밀어서 소리를 질렀다.

《이 청맹과니들아, 백두산에서 온 유격대가 차안에 앉아있는것도 못본단 말이냐?》

보조병들은 놀라서 저희들끼리 마주 보았다.

《차안에는 지주어른 혼자뿐이였는덟쇼. 나 혼자만 차안을 들여다보았다면 몰라도 보조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는덟쇼.》

보조병들은 오히려 김홍량에게 무슨 얼빠진 소리냐는듯 떠들었다.

김홍량은 기가 막혀서 사사끼중화에게 화를 냈다.

《당신네 경찰들은 몽땅 눈먼 소경들이요.》

그러자 사사끼를 곱지 않게 보던 겐지로가 이적거렸다.

《왜 소경이라는겁니까? 너무 조급해말구 두고 보십시오. 사사끼씨가 꼭 유격대원은 체포하구 당신의 돈도 찾아줄겁니다.》

《닥쳐! 당신은 유격대를 잡을 의무가 없는가?》

사사끼는 약이 올라서 소리쳤다.

《닥쳐? 이건 어디다 대구 악다구니야?》

애당초 사사끼를 아니꼽게 보아오던 겐지로는

군도를 빼들었다.

사시기도 어느새 군도를 뺐다.

여러 사람들이 뜯어말려서야 두놈은 서로 떨어졌지만 그들은 유격대원을 잡지 못한 책임에다가 《제국경찰답지 않게 제편끼리 싸웠다.》는 죄를 겹으로 들쓰고 감옥에 처박히고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황해남도 안악, 채령, 신천일대에서는 두사람만 모여도 김홍량의 집에 나타났던 **김일성** 장군님의 부하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가는줄 몰랐다.

김홍량은 기가 죽고 겁에 질려 늘 방구석에 처박혀있었을뿐 통 바깥출입을 안했다 한다.

(《제자를 보면 그의 스승을 알수있고 자식들을 보면 그의 부모들의 됴됨을 알수 있다.》는 말이

있은즉 유격대원들이 그처럼 술법에 능할진대 **김일성** 장군님이시야 얼마나 출중하시랴! 승천입지, 천강지출하고 축지법, 변신술, 둔갑술... 천만가지 술법에 도통하신 천하무적 백전필승의 영웅명장 **김일성**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유격대는 반드시 이길것이구 일본이 망할것은 정해놓은 일이야.)

이런 신념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든든히 자리잡았다.

지금도 안악군에 가면 김홍량씨네 집에 **김일성** 장군님의 부하가 불쑥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진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지흥길

## 연띠우는 보름날

김정철

연을 띄우네 정월도 보름날에  
귀여운 손자와 연줄을 갈라쥐고  
네 연이 높이 뻗다 내 연이 높이 뻗다  
드넓은 광장에서 아이가 되어  
승벽도 세찬 아이가 되어

나이가 몇이나 몇이면 어떻소  
좋은 세상 좋은 세월 백발이 무거우랴  
아이어른 오구작작 저마다 제기뽀  
파아란 하늘에 수놓아가는  
아, 보름날 연띠우는 보름날

풀었다 감았다 기나긴 연줄  
감으며 풀며 생각도 깊어지네  
내 잡은 이 연줄 뒤로뒤로 내리풀면  
첫끝을 잡고있을 단군도 보여와  
민족의 력사가 하얀 연에 실려오네

아름다운 평양에 도움을 정하고  
일찍부터 《동방의 등불》로 된 조선  
동해바다에서 서쪽 멀리까지  
한쪽의 벽화 풍속 하나에도  
슬기로운 민족은 제모습을 남겼거니

둘러보면 무변광야 여기저기서  
그 옛날의 하얀 연들 연줄연줄 떠오를듯  
《살수대첩》의 그 용장도 이 땅에서  
《한산도해전》의 그 명장도 이 땅에서  
이 연줄잡고 여기서 컸다고

오늘은 장군님의 넓은 품에 안겨  
고이 가꿔가는 내 민족 내 풍속  
원썩들 한발자국 다가만서도  
번개치고 벼락치는 그 품에 안겨...  
《동방의 등불》은 《세계의 화불》로

아, 내리내리 뒤로 풀면 반만년이요  
앞으로 올리 풀면 백만년 천만년...  
위대한 민족의 장구한 력사가  
한오리 실에 비친  
우리네 연놀이!

내 잡은 이 연줄에 해를 걸어볼가  
내 잡은 이 연줄에 달을 걸어볼가  
해처럼 날처럼 눈부신 앞날이  
여봐라, 소리치며 하늘로 떠오르는  
아, 아 보름날 연띠우는 보름날

## 《자동차운전사의 노래》가 창작되기까지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치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전시가요 《자동차운전사의 노래》는 선군시대의 《류행가》로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보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이 있는곳에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곳에 생활의 랑만이 있다.》**

전시가요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이 노래가 세상에 태어난지 반세기도 훨씬 넘었건만 50년대 전쟁로병들의 노래만일수 없어 세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훈으로 고무해주는 이 노래를 부르며 더 큰 승리를 싣고 오늘도 달리고있는것이다.

먹물을 뿌린듯 캄캄한 야밤.

하늘에서는 불비가 쏟아지고 탐조등불빛이 어둠속을 휘저었다.

달도 없어 한치의 앞도 가려보기 힘든 깊은 밤에 인민군전사들이 자동차를 몰아간다.

달리는 자동차적재합우에는 당시 종군작가와 작곡가도 함께 자리를 잡고있었다.

남으로 달리는 수송전사들과 함께 그들이 진격의 길에 오른것은 주체40(1951)년 여름이었다.

어느날 재진격의 길에 올랐을 때 창작가들은 구면친구인 한 운전사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운전사의 절절한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 부탁이란 수송리를 달리는 운전사들이 즐겨 부를 노래를 지어달라는것이였다.

오르면서 70리, 내리면서 70리나 되는 문경고개는 물론 이름 없는 오솔길과 철다리, 진펄길에는 전시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인민군전사-운전사들의 영웅적인 투쟁, 끊어진 다리를 어깨로 떠받들어 차를 통과시키고 활화산같은 불속에 서슴없이 뛰어드는 불사신같은 모습, 그 어떤 악조건도 웃음으로 넘기며 전선으로 전선으로 달리는 랑만적인 생활.

그 운전사의 이야기는 정말 자랑할만 한 위훈담이었으며 그것은 그대로 우리 창작가들의 심장을 불태웠다.

그리하여 창작가들은 자동차적재합우에 앉아 찬바람, 새벽이슬을 맞으며 어두우면 전지불로 원고지를 비치면서 가사와 선율을 무르익혀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자동차행렬이 어느 별방지대에 멈춰서게 되었다.

대낮에는 적비행기가 몹시 날치어서 주로 야간행군을 하였기때문에 어딘지도 모르고 지난 고장이 더 많았다. 그래서 창작가들은 호기심이 동하여 운전사에게 여기가 어딘가고 물었다.

그러자 운전사는 《순천입니다, 전선원호사업에서 일등으로 소문난 군이지요.》라고 자랑어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

듯 여러명의 처녀들이 나타나 여러개의 꾸레미를 운전사에게 안겨주면서 전시수송에서 꼭 승리와고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였다.

그 꾸레미속에는 전선에 나간 남편을 대신하여 보잡이를 잡고 억척스레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햇곡식도 있었고 사랑하는 애인이 어렸을 때 심은 과일나무에서 딴 첫 열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속깊은 늙으신 어머니가 마가을 추위를 생각하며 만들어보낸 두툼한 솜장갑과 솜옷도 있었다.

이것을 본 순간 창작가들의 머리에는 무엇인가 스치고 지나가는것이 있었다.

방금 펼쳐진 그런 생활, 이것이 어찌 순천뿐이겠는가. 이제 남으로 진격해나가느라 순천에서처럼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안겨주며 승리의 그날을 또 부탁할것이다.

그러면 운전사들은 공지에 넘쳐 어디에 왔다고 힘차게 대답할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가사에 대사들을 넣는 독특한 형식을 착상하게 되었다.

승리의 전선길을 누벼가는 수송전사들은 패주하던 적들이 무리로 녹아난 유명한 양덕고개를 지나 신고산벌에 이르렀다.

당시 신고산은 최전선을 련결하는 유일한 길이였다.

놈들은 이 외통길을 끊으려고 하루종일 비행기를 동원하고 기총사격을 퍼부었다.

수송전사들은 폭탄과 포탄이 억수로 쏟아지는 정황에서도 운전대를 틀어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들을 도와 마을사람들은 흠가마니를 메우고 자기집 울바자기등까지 뿔아다가 진탕길에 깔아주었다. 이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자동차는 지체없이 전선으로 달려도 되었다.

시인은 적재함에 쌓은 포탄상자우에 종이를 펴고 가사를 한자한자 적어나갔으며 때로는 쪽잡을 자는 운전사의 얼굴에서 글줄을 찾아냈다.

작곡가는 가사가 씌여지는데 따라 곡상을 무르익혀나갔으며 드디어 경쾌하고 랑만적인 《자동차운전사의 노래》가 완성되게 되었다.

이 가요는 나오자마자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선군혁명령도로 그렇듯 분망하신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동차운전사의 노래》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을 널리 부르며 소개선전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참으로 전시가요 《자동차운전사의 노래》는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랑만에 넘친 승결과 래일의 희망찬 희열을 심어준 시대의 명곡으로 불리워지고있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이 이 노래를 부르며 달리고 또 달리는것이다.



◇수기◇

## 백두산은 언제나 나의 신념의 기둥이었다

비전향장기수 황용갑

사람들은 누구나 나서자란 고향을 사랑한다.

그래서 멀리 이국땅을 떠돌다가도 다시 돌아와 안기고 죽어서도 안기고싶은 곳이 고향이다. 이러한 고향을 나는 저 남녘땅의 한끝인 지리산기슭에 두고있다. 인생의 추억이 서린 내 고향땅에는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산소도 있고 살아있는 형제들이나 친척, 친지들도 아직 남아있다.

나에게서 북쪽땅은 언제 한번 받아본적도 없고 일점혈육이나 친지 한사람조차도 없는 생소한 곳이다. 하지만 나는 고향땅과 혈육들을 수천리 뒤에 두고 혈혈단신으로 평양에 와 삶의 뜻을 내렸다.

이러한 나에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인간생활의 상례를 떠나 생소한 고장으로 나를 이끈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나를 북으로 떠민 힘은 백두산이었다고 죽어도 백두산을 바라보며 죽겠다던 나의 소원이 풀린것이 더없이 행복하다고

나에게는 백두산이 하나의 추상적개념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감정으로 뿌리내린 삶과 투쟁과 행복의 전부였다. 그것은 곧 내 마음의 참다운 어머니고향이었다. 그래서 어린시절에나, 지리산빨찌산시기에나 그리고 35년간의 감방생활기간에나 오늘날에까지도 나를 통일애국의 끝은 길로 떠밀어주고 불러준것은 백두산이었다.

나는 백두산-나의 마음의 고향에 얹혀진 잊을 수 없는지난날의 회억이 뜨겁게 되새겨져 이렇게 붓을 들었다.

### 지리산과 함께

내 고향은 지리산자락과 이어진 경상남도 하동군 계양면 서리라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다. 이곳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지리산이란 말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첫 걸음마를 떼었다. 그때는 이미 왜놈에게 짓밟히고 쫓기우는 세상이었다. 몇마지기 안되는 지주의 척박한 땅에 명줄을 건 부모들은 여러 자식들을 먹여살리느라 별의별 고생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해 아버지마저 열병으로 돌아가고나자 어머니는 늘 눈물과 한숨속에 세월을 보냈다.

《이놈의 세상, 어서 꼭 망해라. 저 지리산에 있다는 수호신은 뭘 하노?...》

어머니는 날마다 지리산쪽을 바라보며 긴 한숨속에 입버릇처럼 중얼거렸다. 어느날 허기져 누워있던 나는 귀에 못박히도록 들어온 그 수호신이란 어떤것인가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지리산 산상의 밝은 달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수호신이란 나랏 지키는 신이란 말이다. 그 수호신이 저 지리산에 있다더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지리산에 얹혀있는 이야기를 옛말처럼 들려주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지리산은 수천년을 두고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전해내려왔다 한다. 그 이름자체도 《특이하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산》 또는 《땅의 심오한 리치를 간직하고있는 산》이라 하여 지리산이라 불리워지고 있는 이 산에는 력사적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산의 《수호신》들은 한갓 신화적이거나 종교적인 풍설로나 전해졌을뿐 어느 한때도 나라를 지켜낸적이 없었다.

지리산에 나라수호의 진정한 수호신의 뜻이 깃을 퍼게 된것은 근세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그것은 백두산정신이라는 조국해방의 위대한 정신이었다.

나는 그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랐다.

주체23(1934)년 2월이라고 생각된다. 그때 최가성을 가진 스물다섯살나이의 젊은 선생이 서리마을의 나같이 학교에 못가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세웠다. 서글서글한 성미에 식자도 있어보이는 신식풍의 선생이 대번에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잡았다. 그해 봄 어느날 우리들은 최선생을 따라 세석철쭉구경을 갔었다. 최선생은 철쭉구경에 여념이 없는 우리들에게 꽃구경도 좋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느 한적한 골짜기로 이끌었다. 잡관목과 풀숲에 엉킨 오솔길을 헤치고 화강석바위앞에 이른 그는 뜻밖에도 바위벽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에 새긴 글자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고 물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지원》이라고 쓴 두 글자의 새긴글이 희미하게 안겨왔다.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는듯 푸른 이끼에 묻혀있는 글자였다. 《지원》, 그 뜻을 음미해보면 《뜻을 멀리에》 혹은 《원대한 뜻》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우리들이 대답했다. 그랬더니 최선생은 《지원》이란 말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애국사상이라고 하면서 이 새긴글은 선생님의 조선독립의 뜻을 길이 전하고자 조선국민회 회원으로 있던 한 선배되는이가 새긴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한뜻이 되어 왜놈들을 쳐부시자고 그래야 조선사람이기를 펴고 잘 살 날이 온다고했다. 그날은 나의 어린 가슴속에 반일독립의 새로운 꿈과 포부가

봄씨앗처럼 뿌려진 잇을수 없는 날이었다. 나는 흥분에 들떠 며칠밤을 잠들지 못했다.

그때로부터 얼마간 지나서였다. 내가 사는 서리마을을 비롯한 린근마을사람들속에는 《백두산전설》이 이야기가 파다하게 전해졌다. 밤마다 명석을 간 한마당에서 옛말처럼 퍼놓는 로인들의 이야기는 나의 귀를 바짝 끌어당겼다.

《저 백두산에 하늘이 낸 장수가 나타났대요. 그분이바로 **김일성** 장군님이신데 삼도왜적이 그 존함만 들어도 벌벌 떠다는구만.》

《나두 읍에 갔다가 들은 말인데 승천입지, 천변만화의 조화를 쓰시는 그분의 전법이 하도 유명해 쪽발이군대가 고양이앞에 쥐신세되교말았대.》

《그뿐인줄 아나? 김장군이 축지법이란걸 쓰시는데 이제 한발은 저 백두산천지에 척 잠그고 다른 한발은 이 지리산 한끝 구재봉에 내짚고 내려오시는 날엔 왜놈이 영낙없이 망한다고들 하오.》

하동군만이 아니라 경상남북도과 전라남북도의 여러곳에서 퍼져가는 이러한 말들은 나에게 그 어떤 신비로운 꿈을 부풀게 했다. 과연 **김일성** 장군님은 어떤 분이실가, 춘추는 얼마나 되시며 고향은 어디일까? 이런 속해 전설적이라기보다 신화적인 거인의 모습이 그러지군 했다. 천하를 한손에 거머쥐시고 뒤흔드는분이시니 아마 50대는 훨씬 지나셨으리라. 무인답게 수염도 기르시고 위엄있는 체격을 가지셨으리라. 축지법이나 승천입지와 같은 전법의 소유자로 알려졌고 일제 백만관동군을 쥐락펴락하시는 분이니 그이께서는 분명 하늘에서 내려오신 백전로장이 틀림없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야학시간이었다. 최선생이 **김일성** 장군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수 있는 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한장의 신문을 들고 흥분된 심정으로 야학방에 들어섰다. 그는 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을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아버지와 아들, 두 대에 걸쳐 반일운동, 밀림의 영웅으로서 동변도를 황동무대로 삼고있는 **김일성**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평남도출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김일성**은 어렸을 때... 국경을 넘었으며 동변도를 근거지로 하여 OO 혁명운동을 벌리었다. **김일성**의 아버지는 그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 되어있었다.》

신문을 읽고난 최선생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김일성** 장군님은 바로 김형직 선생님의 자제분이시라고 하는것이였다. 너무도 기쁘고 왜놈칠 배심도 생겨 우리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들 했다.

야학생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린 최선생은 조선에 행운이 트일 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리도 《도》를 닦다가 백두산의 **김일성** 장군님부대와 합세하여 일제를 쳐부시자고 하면서 이튿날부터 군사놀이를 조직했다. 군사놀이이란 참나무술 한가운데 해불을 켜놓고 일본총독놈을 형상한 가적을 세워놓은 다음 죽창으로 찌르고 때리고 진도개가 물어뜯게 하는 놀음이었다. 통쾌한 군사놀이를 통

해 우리들의 반일정신은 더욱 높아져갔다. 한편 마을뒤산의 바위와 나무들에 《백두산》, 《지원》 등의 글을 남몰래 새겨넣고는 **김일성** 장군님과 김형직선생님의 반일애국사상을 잊지 않도록 했다.

원래 내가 사는 마을은 강가가 많이 사는 강씨촌이였는데 그들의 반일감정은 류달리 높았다. 나는 은연중 그들로부터 지하투쟁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어느날 연락임무수행을 위해 부산 시내 한 다방에 들렀던 나는 사람들이 소곤소곤 나누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얼마전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두산천지에서 이는 바람과 구름을 타고 날아와 저 지리산 천왕봉에 내려오셨대. 뿐만 새벽안개속에서 그분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이는 백발이 성성한 로장수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파란 젊은 나이의 학도 같다고도 하더군...》

《하늘이 낸 본인데 어련하실려구. 그런 분이 나라수호령산인 지리산을 몰라보시겠소?》

말을 듣고보니 **김일성** 장군님께서 지리산을 타고 오셨다는 날엔 왜놈이 망한다고 하던 마을로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일본놈들이 쫓겨나는 날이 금시 눈앞에 닥치는것만 같아 가슴이 울렁거렸다. 나는 그날부터 아침저녁으로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일제패망을 한해 앞둔 어느 봄날이었다.

정아무개라는 야학동창과 함께 **김일성** 장군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신비의 천왕봉에 올라 보고저 지리산 자락길에 들어섰던 나는 길목에서 급기야 달려드는 일본경찰놈들에게 붙들려 트럭에 실려졌다. 예고도 징집령장도 없이 불법강행되는 놈들의 징병모집에 걸렸던것이다. 예비훈련을 거친 후 마산에 있는 일본인군대에 편입되어있던 나는 다시 제주도로 끌려갔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선독립대장 **김일성** 장군님이 축지법을 써서 지리산에 오셨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떠돌고있었다.

알고보니 부대내의 조선인청년들속에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반일지하조직망과 연결되어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리산일대의 지형에 밝고 그 지대의 지하조직연락요원이였던 나는 사업상 필요로 그들의 조직에 망라되게 되었다. 조직의 한 성원이였던 리씨성을 가진 조선인교관이 늘 놈들의 눈을 피해가며 《백두산전설》과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소식을 알려주면서 놈들이 주는 훈련을 왜놈치는 싸움으로 이기고 잘 준비했다. 가 장군님부대가 쳐나올 때 합세하자고 했다. 기회를 틈타 지리산으로 들어가기로 굳게 약속했던 우리들은 조국해방을 얼마 앞둔 어느날 이른 새벽 보초놈을 제끼고 부대를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일행은 행군도중 놈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백두산정신을 따르고 우러르는 우리들의 마음은 결코 굽힐 수가 없었다.

## 매혹의 시절

나에게 백두산정신을 따르는 매혹의 세계를 더

깊이 새겨준것은 지리산빨찌산시절이었다.

조국해방과 함께 출옥하여 지하에서 남조선 《정부》반대투쟁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적 민주주의정부 수립로선관철을 위한 운동에 나섰던 내가 지리산에 입산한것은 주체37(1948)년 9월 5일이였다. 바로 그날은 내가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던 날이였다. 입당청원서에 하나로 통일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끝까지 싸울것을 서약한 나는 당원증을 받아안은 길로 곧장 지리산으로 향했다. 당조직은 지리산일대의 지형에 밝은 나와 최동무, 김동무들을 무장투쟁의 본거지 확보와 비밀통로개척을 위해 그 선발대로 파견했던것이다. 그후 어느날 우리는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이 선포되고 수령님께서 공화국 내각수상으로 추대되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접하게 되었다. 우리는 너무도 기뻐 서로 붙들고 산관을 덩굴었다. 이 나라 만백성의 소원대로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수령님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셨으니 끊어진 남녘의 산야에도 자주독립의 새 세상이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넘쳐났다. 우리들은 그날을 위해 힘껏 싸울것을 맹세했다. 그로부터 며칠후 나는 조동지로부터 꿈속에서도 그림던 수령님의 영상사진을 받아안게 되었다. 조동지는 보급로를 개척하고 돌아오던중 추격해오는 놈들의 흉탄에 맞아 내 무릎에서 숨지면서 자그마한 수첩갈피에 보관했던 수령님의 영상사진을 잘 모셔달라고 부탁했다. 수수한 모자를 쓰신 그분의 자그마한 한장의 사진이였다.

나는 뜨거운 눈물속에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고 또우려했다. 아, 이분이 그토록 전설속의 위인으로 그리던 **김일성** 장군님이시구나! 하늘이 낸 백전로장이라했지만 백발을 날리는 고령의 년세도, 풍채좋은 50대의 년세도 아닌 30대의 젊으신 장군이시였다. 랑볼에 패인 불우물, 맑고 영채도는 예지로운 눈, 준수하고 순결한 정기가 넘쳐나는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를수록 너무도 감격이 커서 몸둘바를 몰랐다. 그후 수령님의 그 영상은 이 대원의 손에서 저 대원의 손으로 옮겨가면서 정히 모셔졌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그마한 액틀을 만들어 우리들의 병실 한 벽면에 정중히 모시였다. 우리는 전투에 나갈 때마다 수령님영상 앞에 결의를 다지곤 했었다.

남녘에서 가장 큰 산악군을 이루고있는 지리산은 반미, 반 《정부》투쟁의 중점지대인 동시에 장군님 흡모의 열풍이 불어번지는 하나의 불도가니였다. 점차 대오안에서는 주간신문을 발행했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발전기를 돌려 북의 《조선중앙통신》과 방송을 청취하면서 최고사령관명령을 접수하여 투쟁지침으로 삼았다. 그래서 지리산이란 말자체가 놈들에게는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처럼 들려졌다. 적들은 지리산을 일제 백만관동군을 때려부시고 천왕봉에 내려오신 **김일성** 장군님의 지략으로 항미유격전이 벌어지는 《제2의 백두산》이라고 아우성쳤다. 그 말이 옳았다.

우리 지리산빨찌산은 생활도 싸움도 모두 백두산의 항일유격대식을 따라배우려고 했다. 생활방

식부터가 그랬다. 재인 규률과 질서,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활하는 우리 빨찌산대원들이 모이는 곳마다에서는 언제나 랑만적인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내가 야학시절에 배운 《지리가》를 떼면 어떤 대원은 《적기가》를 불렀고 또 어떤 대원은 노래를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면 온 산관이 춤과 노래의 바다가 되었다. 더우기 우리들에게서 떼어놓을수 없는 노래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였다. 관병의 차이나 남녀의 구별없이 한데 어울려 춤과 노래로 휴식을 즐기다가도 일단 전투준비를 갖추고 대렬에 들어서면 의례히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준비를 다졌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갓 입수된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의 서시와 맺음을 대화시마냥 한대목씩 랑송한 후 싸움길을 떠났다. 이런데서는 나와 김동지, 최동지들이 극성스러웠다.

우리들은 전두전법에서도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창조하신 전법을 따라배웠다. 놀랍게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친필하신 《유격대동작》이란 책이 보풀이 일도록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돌려지며 읽혀지고있었다.

지휘관들도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유격대전법대로 전투를 조직하고 지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렇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는 인민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내가 주체39(1950)년 여름 해방된 고향마을을 찾았을 때였다. 지리산빨찌산가족이라는 딱지때문에 《토벌》대놈들에게 집도 가산도 다 불태우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외가집에 얹혀살던 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나오며 나를 부둥켜안았다.

《자식두, 온다간다없이 사라지더니 장한 일을 하고있구나. 모두들 천왕봉을 내리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 하동땅을 해방하시구 다시 지리산으로 오셨다고들 하더라. 그때 너도 백두산에서 내려오신 **김일성** 장군님을 받드는 전사관 말이지.》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눈물진 어머니의 얼굴에 볼을 비볐다.

《그래... **김일성** 장군님 덕분에 우리도 난생처음 땅두 분여반구 사람대접을 받아보았다.

그러니 나라를 지키는 진짜 지리산의 수호신은 **김일성** 장군님이시다. 장군님을 잘 받드는 빨찌산이 되거라.》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나는 멀리 지리산을 바라보았다. 지리산자락에서 나서자라 일찌기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수령님대에 이르는 백두산의 정신을 접하는 행운을 지니고 수령님의 전사로 살며 싸우는 남다른 공지와 자부심이 가슴뿌듯이 넘쳐났다.

나는 바로 이것없이 살수 없는 인간이였다. 하기에 나는 지리산빨찌산투쟁의 나날 힘들어도 힘든줄 몰랐고 난관과 슬픔앞에서도 비관을 몰랐다.

지리산빨찌산시절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풍모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고 그에 완전히 매혹된 나의 가슴속에는 위인의 그 모든것을 떠올리

게 하는 백두산이 삶과 투쟁의 위대한 성지로 돌도 없는 마음의 고향으로 깊이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 나를 부르는 소리

백두산은 나의 신념이자 량심이었고 언제나 나를 참된 인간으로 혁명가의 길로 이끌어준 다정한 부름이기도 하였다.

이 부름에 충실한 사람들은 가는 길도 꼭 같은 한길이었고 만나는 곳도 한곳이었다. 주체41(1952)년 2월 지리산의 덕유산에서 체포된 내가 무기징역형을 언도받고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있던 그 이듬해 봄 어느날이었다. 이날 나는 내가 갇힌 감방에 새로 들어온 한 수감자와 뜻밖의 상봉을 했다. 지리산에서 함께 싸우던 공가성을 가진 잊을수 없는 전우였다. 공동지로 말하면 놈들의 《수도사단》, 《토벌》공세가 한창이던 때 놈들의 경찰대 중령으로서 한개 소대를 이끌고 내가 속한 지리산의 피아골빨찌산에 대한 최종 《토벌》 작전에 내몰렸던 사람이었다. 그때 소대전원과 함께 우리에게 포로되였던 그는 한때나마 미제놈의 앞잡이로 내몰리었던 자신을 뉘우치고 빨찌산대오에서 잘 싸우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었던것이다. 세상에 총과 총을 맞았던 사람들이 묘하게도 한 형무소에서 만났으니 이것을 어찌 우연적인 상봉이라고만 생각하랴. 그것은 백두산의 숭고한 부름앞에 충실한 인간들의 필연적인 상봉이라 해야 할것이었다. 놈들은 나와 공동지만은 지리산에서 《백두산의 정신》을 가지고 싸운 《빨갱이중의 상빨갱이》라고 하면서 최악의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과 악형을 다 들이댔다. 고추가루고문, 물고문, 불고문 등을 매일처럼 들이대며 《준법서약서》라도 쓸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적하면 벌방속에 집어넣고 4등식마저 다 떼여먹다싶이 한 갓난애기주먹크기의 콩보리밥 한덩이씩 던져주곤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진 악형을 이겨내며 지리산빨찌산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끝까지 생사를 같이했다. 어쩌다 차례지는 운동시간에 잡은 지령이나 벌레는 물론 간혹 감방안에 뛰어든 손톱눈만 한 청개구리까지도 한가닥씩 나누어먹으며 옥고를 이겨나갔다. 우리는 계속되는 놈들의 전향테로와 비인간적처사에 항거하여 여러차례의 단식투쟁도 했다. 그러다가 극도의 쇠약과 허기에 물려있던 나는 언제인가 한번은 가물가물 의식을 잃어가고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한순간 누구인가 나를 부르는듯 한 소리가 가볍게 귀전을 두드렸다. 주저앉지말고 길을 끝주 가라고 자꾸만 소곤거리는것이였다. 나는 가까스로 의식을 차리며 눈을 떴다. 쇠창살밖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비바람소리였다. 순간 빨찌산시절에 접했던 수령님의 영상이 화면처럼 눈앞에 떠올랐다. 수령님께서서는 밝게 웃으시며 나에게 믿음의 눈길을 보내고 계시었다. 그런가 하면 지리산골안을 울리며 노도처럼 적진으로 뛰어들던 동지들의 미더운 모습도 안겨왔다. 나는 습관적으로 백두산이

란 말을 곱씹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자리를 차고 일어나앉았다.

나를 죽여없애버리려 했던 놈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칠대로 지친 놈들은 그후부터는 나나 공동지에게서만은 그 어떤 목적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흰기를 들고말았다.

그후 어느해 나는 감옥안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형무소를 찾아온 미국기자를 만났다. 그와 나사이에 이야기가 오고갔다. 미국기자는 《한국》의 지리산빨찌산은 후방도 없는 조건에서 능란한 전술로 벌써 여러해를 버티어오고있다면 도대체 식량은 어떻게 해결하고 싸움전술은 어떤 것인가, 당신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기에 산에서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서까지도 변함없이 싸우고있는가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 나라, 제땅의 주인되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김일성**장군님의 사상과 의지를 받들고 싸우는 혁명가들이다. 우리들의 심장속에는 오직 백두산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심밖에 없다. 때문에 백두산은 언제나 우리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고.

죽어도 달리할수 없는 나의 신념과 량심의 토로앞에 미국기자는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바로 그 지을수 없는 신념과 량심때문에 나는 20년간의 광주형무소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청주감옥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감옥속에서 홀려간 35년간의 무정한 세월은 내 머리에 흰서리를 엮었지만 백두산을 안고사는 마음만은 더욱 굳게 했다. 1970년대 중엽 청주감옥에 있을 때였다. 그무렵 감방안에는 운동권학생들을 통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사상이나 령도력, 덕망이나 인품에서 수령님과 꼭 같으신 장군님의 위대성은 내 가슴을 흥분으로 끓게 했다. 그러던 어느날 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진 잡지를 받아안은 나의 격정은 한층 더 승화되였다.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영상, 그 모습은 지리산에서 받아안던 수령님모습 그대로이시였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라니 더없이 숭엄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그럴수록 백두산이 더욱 뜨겁게 가슴속깊이에 안겨왔다. 내 마음은 늘 백두산으로만 달리고있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북으로 가는 비전향장기수명단에 제일 선함으로 수표를 한 나는 며칠동안은 온통 기쁨과 눈물, 가슴 설레임으로 밥을 먹을수도 잠들수도 없었다. 백두산이 북으로의 큰 걸음을 떼라고 때없이 속삭이고있었던것이다. 내가 서울을 떠나기 전날, 고향에서 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들이 북에는 왜 가는가고 여생을 편히 지내다가 제 고향땅에 묻히는것이 좋지 않는가고 하면서 나의 북으로의 길을 만류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철부지적부터 백두산을 마을에 안고살며 싸워온 사람이다. 그런 내가 **김정일**장군님 계시는 북쪽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태어난 곳은 지리산이지만 정신적고향은 백두산이다. 백두산을 안고 장군님을 따라야 민족이 흥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망한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평양으로 가서 백두산을 안고 죽겠다.》

그리하여 가족, 친척들을 뒤에 남기고 관문점을 넘어선 나는 서둘러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찾았다. 파란만장한 세월의 낮과 밤, 그렇듯 송양하던 조종의 산 백두산, 꿈결에라도 밟아보고싶었던 백두산이었다.

백두산정에 오른 나는 걱정과 젖어 연방 만세의 환호를 터쳤다. 감격과 눈물, 기쁨과 환희에 파묻혀 몸둘바를 몰랐다. 해돋이순간에는 그러한 감정이 더욱 고조되어 마치도 무아경의 세계에 잠긴듯 했다. 금시 피어오르는 새날의 금빛노을이 서기어린 천리수해를 넘어온 3천리에 비쳐가고있었다. 천지호반의 장군봉으로부터 뿔뿔히 뻗어내린 조국땅, 아득한 그 한끝에 지리산련봉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지금쯤 지리산의 천왕봉에도 아침해가 솟아오르게 되었으려니 생각하니 더더

욱 류다른 감정이 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리산에서 여기 백두산마루까지 오는데 거의 웅근 한생을 바쳐야 했다고 생각하니 눈곱이 자꾸만 젖어들었다.

나는 만세를 부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지리산빨찌산 대원 황용갑이 혁명의 성산에서 마음의 고향-백두산만세를 부르옵니다.》

고향이란 무엇인가? 고향이란 선조의 무덤이 있고 뼈곡새가 노래하는 곳인가, 아니면 해질녘마다 밥상머리로 부르던 정다운 어머니와 소꿉놀이 동무들이 기다리는 곳인가? 아니다. 고향은 그 모든것과는 바꿀수 없는 숭고하고 위대한 곳, 보람찬 인생이 있고 삶이 있고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다.

그래서 백두산이 언제나 나의 마음의 고향이었던것이다.

## ◁담시▷

# 한 전쟁로병이 들려준 이야기

량성심

령을 넘어 천리  
불비 뚫고 만리  
운전대를 총대삼아  
미제를 죽치며  
멀고먼 전선길을  
우리는 달려왔지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리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세우고 치치...  
정말이지  
전시가요 《자동차운전사의 노래》는  
우리의 신바람이었지

이 노래 부르며  
폭탄이 뛰고 불기둥이 솟구치는 길로  
우리는 탄약을 날랐고  
식량을 날랐으며  
고향의 소식을 날랐다네

처음에는 가슴을 조이기도 했지만  
이 노래만 부르면  
마음이 든든했고  
하늘을 썰며 돌아치는 적기들이  
눈깔 먼 까마귀떼 같다니까

희생인들 왜 없으랴  
강원도 통천내기 내 동갑친구  
포탄실은 자도아츠에 불달리자  
앞에도 수송차 뒤에도 수송차  
더는 피할길 없는 그 시각

조향륜을 꺾었다네 천길 버랑으로...

우린 분명 들었어  
최후의 순간에  
그가 불렀을 《자동차운전사의 노래》를  
원썬들도 분명 들었어  
승리를 확신한 조선인민의 신념의 노래를

고지의 병사들에게  
별적의 포신 추켜든 포병들에게  
우리는 부탁했다네  
살아 한놈도 돌아가지 못할 천백배의 복수를

우리는 승리를 싣고 달렸다네  
빼앗길래야 빼앗길수 없는  
**김일성**장군님 찾아주신  
행복한 5년을 싣고  
전선을 주름잡아 굴함없이 달렸다네

세월은 흘러  
포연절은 그 일이  
이제는 날과 달의 이끼속에  
원썬들이 또다시 덤벼든다면  
내 다시 찾으리라  
못다달린 그날의 전선길을  
내 다시 부르리라  
승리의 노래, 《자동차운전사의 노래》를  
달리자 달리자 나의 자동차  
길아닌 길을 찾아  
포탄을 실은 차를 전선으로

# 넋은 미래에 산다



한형수

## 1

질은 그늘속에서도 뜨거운 진액이 녹아 흐르는 것 같은 열풍때문에 숨이 콕콕 막히는 말복무렵이었다.

효심은 공심령기슭의 새하얗게 회벽칠을 한 탐사대진료소 옆, 구기자덤불 아래 자리잡은 박우물가에서 약초뿌리들을 다듬고있었다. 이제는 40대에 이르러 이마와 눈언저리에 눈에 띄게 실주름이 잡혔지만 젊어 한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그다. 그는 이따금 일손을 멈추고 지성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윽한 눈매로 행길쪽을 살피곤 했다. 학교에 간 아들을 기다리는것이다.

조바심 비슷한 초조한 심정에서 벗어날길 없다. 오늘따라 어느때갈지 않게 아침 일찍 등교준비를 하면서 아들에는 흥분 기분으로 들었었다.

《어머니, 오늘 대학추천이 있다는데 난 어느 대학에 가면 좋을가?》

효심은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일렀다.

《어느 대학이구 뭐구 있지? 너야 웅당 김일성 종합대학 지질학부에 가야지.》

효성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집을 나섰다. 그 혼연한 거동이 생각키우자 왜선지 마음속에는 알지 못할 불안이 서서히 갈마들었다.

혹시 이 애가?...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박힌 웅이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이때였다.

《어머니!》 하고 숨차게 부르는 소리와 함께 효성이 이쪽으로 달려왔다. 효심은 자리를 차고 일어서며 아들을 맞이했다.

《어머니! 나 대학추천 받았습시다.》

효심은 반나마 내밀었던 두팔을 거두며 얼굴에 여느때와 같이 상냥한 웃음을 그리었다.

《그래? 아유, 저 땀... 온통 물주머니가 되었구나. 어서 시원히 미역이나 감자.》

효성은 대뜸 옷을 훌훌 벗어던지더니 어머니에게 몸을 맡기었다. 효심은 박우물에 띄워놓았던 바가지로 물을 떠 아들의 잔등에 끼얹으며 유정하게 물었다.

《그래 어데 추천 받았다고?》

《후-시원하다. 외국어대학이지요 뭐.》

《뭐?! 외국어대학?》

효심은 한순간 아연해져 하마트면 바가지를 떨 굴뚝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효성은 제 기분에서 신이나서 대꾸했다.

《어머니, 좀 콕콕 끼었으십시오. 우리 공심중학교에서는 나혼자라지 않습니까. 군적인 외국어경연에서 1등한 덕분이랄지.》

효심은 웅대없이 바가지를 두어번 기울여 물을 끼얹다가 손을 내렸다. 마음은 줄지에 얼어드는 것 같았다. 마치도 이 삼복철에 오한을 만난듯한 기분이였다. 그러는 어머니의 기분을 알아차린듯 효성이 장난기어린 눈으로 효심의 표정을 살피더니 씩-웃으며 호기있게 말했다.

《어머니, 걱정 뽕 놓으십시오. 학교에선 날더러 외국어대학에 가라고 했지만 난 어머니가 바라는데로 김일성 종합대학 지질학부에 가기로 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정말 아니문.》

효심의 가슴은 한순간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은듯 홀가분해졌다. 만시름을 놓은듯 한 상쾌한 느낌이 온몸에 퍼져갔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였다. 어쩐지 아들에의 으스스해하는 거동에서 그가 랑만적인 기분이 떠서 너무도 험하게 제 결심을 택한것만 같았다.

그 결심은 효심이가 절절히 바라는바였으나 그러나 어머니가 바라다고 하여 주견이 없이 마치도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것처럼 처신하는 아들에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착잡한 생각에 말려들어 한동안 침묵하고있는 어머니를 뜨아해서 쳐다보던 효성이 천진하게 물었다.

《어머닌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기쁘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애야 이젠 다 됐다. 너혼자 다리를 씻거라!》 하며 효심은 약초뿌리를 팡주리에 담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 2

그날 밤. 만월에 가까운 크고 둥근달이 이 적막한 북방의 심심산골 마을을 조용히 비쳐주고 있었다. 어디선가 사람의 심회를 돌구며 소쩍새가 《소쩍... 솟솟쩍...》 하고 간간이 울어댔다.

밤은 바닥없이 깊어가건만 어머니도 아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방안에는 찌는 삼가마속같은 낮과는 달리 시서늘한 산골의 랭기가 스며들었다.

갈마드는 번거로운 생각에 뒤치닥거리던 효성이 어머니쪽으로 돌아누우며 침묵을 깨뜨렸다.

《어머닌 내가 지질학부에 가겠다는데 왜서 잠 못들구 그러니까? 중근 큰아버지두 날 칭찬하는데 어머니만은...》

그 말에 효심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두 너를 대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

《이제 두구 보십시오. 나두 아버지처럼 훌륭한 지질학자가 돼서 <금산석>을 기어이 찾아내구 말겠습니다.》

량만적인 감정에 들떠있는 아들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효심에게는 문득 언젠가 그 애가 자기는 아버지를 한번도 자랑스럽게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아버지인 이곳 탐사대에서 스무해가까이 일을 했지만 큰 훈장 하나 받은게 없지 않느냐고 타발하면서 투정질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게 철없던 아들이 이제는 제법 어른스럽게 아버지처럼 훌륭한 지질학자가 되겠노라고 하는것을 보며 효심은 기쁘기도 하고 한편 근심스럽기도 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지질학자!... 그것은 결코 일시적인 충동이나 들뜬 기분으로 쉽사리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불현듯 효심에게는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고이 간직되어있는 그 꿈많은 처녀시절에 효성이 아버지와 인연을 맺던 잊을수 없는 사연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터놓지 않았던 사연이었지만 효심은 이 밤에 그 이야기들을 아들에게 꼭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3

...지난 세기 70년대 중엽의 초가을 어느날.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산뜻하게 받쳐입은 아릿다운 처녀가 풍치수려한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지질연구소 정문옆에 다소곳이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있었다. 무심히 스쳐지나버릴수 없는 그 처녀의 청신한 아름다움에는 어딘가 모르게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도고한데가 있었다. 방금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를 기다리고있는 효심이었다.

효심은 이곳으로 몇번 찾아다니는 과정에 뜻밖이나 익힌 늙수그레한 안경쟁이앞에 또다시 찾아오게 된 사연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하 이거, 번번이 헛걸음을 시켜서 안됐습니다. 리성업동문 지금 연구소에 없습니다.》

《안계시다니요? 그럼 또 어디 출장을 가셨습니까?》

《하 이거, 말하기가 따분한데... 그렇다구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수두 없구... 미안하지만 이제 더는 그 동무를 찾아오지 마시우!》

《네?》

《글쎄, 본인은 자발적으로 내려간다고 했지만 사실 성업동문 우리 연구소에서 해임된거나 다름없소.》

《네? 해임된거나 다름없다니?》 처녀의 그윽하던 두눈에 놀라움이 비꼰다.

《그 동무가 대학을 졸업하구 우리 연구소에 와서 10년세월 공밥만 먹지 않았다면야...》

《공밥만 먹었다는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그 사람과 약혼말까지 있던 처녀까지 등을 돌려댔겠소?! 그런 사람과 한생을 같이 하다가 제신세를 그르칠수 있겠다고 생각해서였겠지. 후- 지금은 그전부터 10년가까이 연구지로 정하고 나가있던 저 먼 북방 한끝의 궁심탐사대 랜델 가있다는데...》

한숨까지 섞어가며 동정인지, 힐난인지 모를 애매한 투로 말하는 그를 바라보며 효심의 가슴에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어쩐지 숨쉬기가 가빠졌다.

부진연구사로 《해임》을 당하고 처녀에게서 배반까지 당하다니... 미끈한 대들보감이라고 여겨왔던 사람이 그런 구세통이였더라란 말인가.

효심은 인사도 변변히 못하고 황황히 돌아섰다.

하건만 더는 만나보고도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기어이 만나봐야 할 절박한 사연을 안고있는 효심이었다. 애 어린 처녀병사시절에 잊을수 없는 전우였던 성희의 간절한 당부를 쉽사리 저버릴수 없었던 효심이고보면 그것은 의무이기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고 량심이었다.

권위있는 의학박사인 아버지와 다심하고 사려깊은 약제사인 어머니의 귀염둥이 외동딸로 고이 자란 효심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이 강물 위에 떠서 즐겁게 흘러간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의 앞길에는 발끝에 걸채이는 돌부리도 없었고 발을 헛디디게 할수 있는 웅덩이도 없었다.

효심이 알고있거나 가까이 사귀어 사람들과온데도 제구실을 못하거나 인생에 그들이 진ده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유독 전사한 누이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될 사람이 《해임》을 당하고 애인한테서 버림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것을 어떻게 그저 듣고만 있을수 있으며 끌어오르는 의분을 혼자서

목새길수 있겠는가. 설사 인연없는 남이라도 그랬다. 비록 때늦은 후회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일깨워주면 자각하고 분발할수 있지 않겠는가. ...

배치를 기다리며 집안에서 종일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동자질이나 하다가 저녁 늦게 퇴근해오는 아버지의 가방을 받아드는 기쁨이 고작인 그로서는 이 이상 더는 참고있을수 없었다.

그날은 저녁에 외삼촌이 전부터 소개를 해두었던 청년이 처음으로 호심이를 만나러 오게 된 일요일이었다. 어머니는 사위감을 선보게 되었다는 기쁨에 떠서 해종일 부엌에서 별식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평소에 말이 없던 아버지조차도 별스레 말이 많아져서 밀친이 받은 빈약한 요리상식을 무슨 극비에 속하는 대단한 정보자료라도 알려주는것처럼 일러주어서 어머니를 웃기였다. 명절처럼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가 집안에 차고넘쳤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이른 저녁녘에 가서 해토 무렵의 눈서리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어머니가 성이 나서 앞을 막아서며 려행가방을 빼앗으려 했고 노여움에 찬 아버지가 등을 돌려 대고 어두워오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헛기침을 짓었건만 호심은 북행렬차시간을 놓칠가봐 황황히 평양역으로 나갔다.

## 4

지루한 련차행군에 시달리며 웅근 하루밤, 하루낮

...읍소재지의 려관에서 또 하루밤... 요행 얻어난 화물차 적재함우에서 흔들리며 하루길... 거기서도 30리길을 더 걸어서야 호심은 저녁켄에 탐사대 지휘부가 있는 궁심마을에 이르렀다.

어둠속에 잠기기 시작한 우중충한 북방의 험준한 산악들이 이 낮설은 처녀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게다가 걸걸하고 투박스러운 북관사투리가 부드럽고 세련된 평양말에 습관된 처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성업기사말입니까? 이지음은 통 보질 못했는데... 가만 아까 회관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던데... 거기 가있는지 ... 같이 가봅시다!》

투박한 말투로 보아서는 성미가 산풀길처럼 거칠것 같았지만 인정에는 한없이 무른 그 고마운 청년을 따라 호심은 탐사대 회관쪽으로 올라갔다.

회관이라고는 하지만 아담하게 꾸려진 단층건물에 불과했다.

열면 목소리가 열어놓은 창문으로 흘러나왔다.

《한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사중대 리성업기사로 말하면 탐사대원들의 본보기로 내세울만한 그런 동무입니다. 량심적이구 성실하구 근면한건 말할것두 없구 학식으로 보나 능력

으로 봐두 우리 조사중대에서는 그와 견줄만한 동무가 없습니다.》

널문으로 장내와 련결된 휴게실에 앉아있는 호심에게는 그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공연히 가슴만 후두두 떨려왔다. 지금 저안에서 누군가가 호의를 가지고 남들우에 높이 내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자기한테 그

토록 커다란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그 리성업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생활에선 이렇게 순간에 예상이 뒤집혀지는 경우도 있단 말인가...

호심은 귀를 강구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음을 짓누르며 청높은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런데 이런 동무가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두 기사급수는 낮은 급에 있습니다. 이제 어디 말이 됩니까! 저는 성업동무의 기사급수를 올려주자는걸 제기합니다.》

그러자 석싹하면서도 저력있는 목소리가 돌려왔다,

《여보, 세포비서동무, 그 동무에 대해선 이 대장이 동무보다는 더 잘 알고있소. 그러나 그게 어디 동정으로 될법이나 한 일이겠소? 급수를 올려주자고 제기하자 해두 무언가 해놓은 일이 있어야지 않겠소?! 나두 참 안타깝소.》

어쩌면... 리성업기사가 저렇게 남의 동정이나 받으며 사는 사람이었던란 말인가. 마음속에 행여나 요행을 바랐던 그 간절한 기대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저런 사람을 세상에 둘도 없는 수재라고 늘 자랑하면서 그런 오빠를 둔 누이동생의 행복과 궁지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곧 잘 외우곤 하던 성희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 성희!... 그가 지금쯤 살아있다면 저런 오빠를 두고 무어라고 할것인가.

잊을수 없는 병사시절 성희와 함께 지내던 그 보람찬 나날들이 눈에 삼삼히 어려왔다.

호심이와 한낱한시에 최전연 구분대 군의소 간호원으로 배치된 성희는 무척 쾌활하고 명랑한 처녀였다. 그러나 유별난데가 있어 이따금 같은 또래의 처녀병사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곤 했다.

그 처녀가 관심을 두는것은 여느 처녀들의 마음을 끄는 향내를 풍기는 브크림이나 감쪽하게 생긴 향수병이 아니라 보기에도 피상망칙한 돌맹이들이었다.

별난 애두 다 있지? 처녀가 돌맹이를 주어서는 무얼 한담. 뒤에서는 쉬쉬거렸지만 성희는 짬뽕 생기면 돌맹이를 쫓는 일에 더 극성을 부렸다.

어느 하루 전연중대에 예방주사를 놓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성희는 시내가에서 이상한 나무잎이 새겨진 돌맹이 하나를 발견하고 환성을 올렸다.

《야! 이전 <레피토펜드론>이다. <레피토펜드론>이야! 틀림없어. 정말이야!》

성희는 패재를 붙렸지만 얼떠름해진 호심이는



눈이 둥그래서 반문했다.

《뭐뭐? 레피토... 까다로운 말이 돼서 어디 제대로 번지거나 하겠니?》

《<레피토멘드론>! 이젠 말야. 저 고생대에 살았던 식물이름이야. 그건 거대한 나무였는데 그것들이 땅속에 묻혀 수억년을 지나오는 동안 석탄이 됐거든. 그래서 이런 화석을 가리켜 <석탄의 화신>이라고 하지 뭐.》

《...》효심은 그저 놀라기만 해서 듣고만 있었다.

《난 며칠전에두 저 뒤산에서 <코르다이테스> 화석을 얻었다. 그것두 고생대를 증명하는 식물 화석인데 <석탄의 종자>라고 하지. 그러니 이 시대 땅속에는 무진장한 석탄이 깔려있다는걸 알수 있거든.》

효심의 놀라움은 이어 경탄으로 변했다.

《아, 넌 정말 박식하구나. 어디서 그런걸 다 배웠니?》

성희는 천연스럽다할 정도로 레사롭게 일러주었다.

《배우진, 우리 오빠한테서 들었지 뭐, 난 우리 오빠가 제일 좋아. 리성업이라구...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단다. 지질학부 최우등생이구 수재로 소문났거든. 이제 세상이 들썩하게 큰걸 발견해놓구 온 나라가 다 아는 지질학자 리성업으로 떠받들리울거야. 너 우리 오빠 얼굴을 한번 볼래?》효심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희는 군복 옷주머니에서 정히 간수했던 사진 한장을 꺼냈다. 준수하고 리지적인 인상을 주는 청년이 사색깊은 눈으로 효심을 바라보고있었다.

《보라마. 생기진 또 얼마나 잘 생겼니? 미남자지 뭐. 게다가 제대군인. 당원이구... 처녀들이 흑할거야. 너두 이제 한번 만나보렴. 대번에 반할거야!》

《앤 참, 새빠지게...》효심은 공연히 귀밀까지 빨개져 황황히 지청구를 했지만 성희는 그것이 우스워서 깔깔거렸다.

《호호호...》그로록 사랑스럽고 군의소의 자랑이었던 성희, 늘 오빠자랑을 하면서 오빠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짹짹 화석들을 모아들이던 성희...

세월은 흘러... 보람찬 병사시절을 마친 그들은 함께 제대명령을 받았고 같이 대학추천을 받았었다. 성희는 **김일성** 종합대학 지질학부에, 효심은 의대학에...

한량없는 기쁨에 넘쳐 부대를 떠나게 되었던 그날 아침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성희는 분계선이 지나간 △산에 오른 다녀와야겠다고 했다. 임무수행시간때문에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면서 효심이더러 함께 가보자고 하였다. 효심이도 두말없이 따라나섰다. 전연지대인것만 큼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만장탄한 자동보총까지 둘러메고...

그들이 풍화작용으로 무너져내린 벼랑밑에서 화석 하나를 발견하고 났을 때에는 해가 질 무렵

이었다. 기쁨속에 지름길을 타고 산을 내릴 때였다.

길을 막아선 크지 않은 바위를 앞장서 넘던 성희가 갑자기 《엎드렷!》 하고 소리치며 찼싸게 자동보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우리측 지역에 은밀히 잠입하여 들어와 매복하고있던 두놈을 발견했던것이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물방으로 터지는 총소리를 듣고 부근에 있던 초병들이 달려왔다. 적아쌍방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적들은 인차 소멸되었지만 성희는 그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효심아 이제 가면... 꼭 오빠를 찾아봐줘... 이 화석들을 전해주구... 오빠가 성공하기를...》 이것은 성희가 남긴 마지막말이었다...

결상 부딪치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효심은 추억에서 깨어났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저... 성업기사동물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조사중대 세포비서입니다. 서중군이라고 합니다.》

효심은 놀라며 반사적으로 얼른 일어났다. 키가 쭉 뻗히고 무척 바른 자세로 서있는 이 40대와 장년앞에서 효심은 잠시 어쩔바를 모르다가 자신을 수습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전 정효심이라고 부릅니다. 저... 전 리성업동지의 동생인 성희동무와 한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제대된 후 성희동무의 고향에두 찾아가보구... 대학에두... 연구소에두 찾아보았지만... 며칠전에야 여기 계시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정말 고맙습니다. 평양에서 예까지 생소한 초행길을 찾아오시느라구 무척 고생했을겁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나같이 덜통한 사람두 이렇게 반갑기 그지없는데 성업동문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마치도 저한테 행운을 가져다준 손님을 마중한 때처럼 반색하면서 초면인데도 서름서름한 기색은 전혀없이 구면지기를 대하듯 소탈하게 대해주는 중군의 인품에 효심은 저도 모르게 끌려들었다.

《성업동문 지금 빙설령이라는 곳에 나가있는데 이제 곧 연락을 띄우겠습니다. 래일 아침엔 어김없이 나타날겁니다.》

《...》

《참, 이런 심심산골에 처음 와보시지 않습니까? 산천구경도 하실걸 불편하실테지만 하루밤 우리 함숙에서 피로나 푸십시오.》

중군은 무릅없이 효심의 려행가방을 앗아들고 제먼저 휴계실문을 나섰다.

간격을 모르는 친동기간처럼 허물없이 대해주는 중군의 호의를 효심은 차마 물리칠수 없었다.

성업이를 만나보고는 그길로 인차 돌아서려던 효심은 어쩔수없이 탐사대합숙 녀성호실에서 하루밤을 묵게 되었다.

피로가 눈섭에 매달렸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날따라 성희의 마지막모습이 생생히 눈앞에 떠올라 사라질줄 모른다. 그럴수록 분한 생각만이 머리속에 짝 차오른다.

바다물밑 같은 산촌의 고요가 효심에게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갑자기 어디선가 다급하게 쿵쿵 땅을 울리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효심은 귀를 강구었다.

발자국소리는 어느 호실앞에서 툭 멎더니 성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운전수동무! 일어나오! 빨리!》

《누구야?》 잠에 취한 온몸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

《나요. 빨리 군병원에 가야겠소. 조사중대 성업기사동무가 위급하오.》

《아니, 낮에두 아무일 없었는데...》

《만성충수염이 갑자기 급성으로 넘어간것 같다누만.》

그 소리에 효심은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쪽에서는 여전히 두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진료소두 있구 소장두 있는데 도대체 밥먹구 무얼 한대?》

《우리 진료소장은 내과전문이라누만. 공연히 외과준의처녀를 일찍 시집보내놓구 이럴 골탕을 먹지 않소. 하여간 빨리 차를 가지구 진료소엘 오우. 시간이 급해.》

쿵쿵거리는 발자국소리는 저으기 멀어졌다.

효심은 급히 옷옷을 입으며 깊은 잠속에 든 처녀들사이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진찰실 침대에는 성업이가 의식을 잃은채 기척도 없이 쓰러져있는데 그옆에서 뚱뚱한 진료소장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찢찢 매고있었다.

급보를 받고 뛰어온 중근이와 탐사대일꾼들이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가지고 비지땀을 흘리며 어쩔바를 모르는 진료소장을 지켜보고있었다. 가까운 곳에서 자동차 발동소리가 울려왔다. 진료소장이 머리를 번쩍 들며 간호원에게 소리쳤다.

《빨리!》

간호원처녀가 황급히 담가를 가져왔다.

효심이 방에 들어선것은 바로 이때였다.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효심은 대번에 기척없이 누워있는 그 환자가 바로 성희의 사진에서 닳은 익히고 자기가 그토록 찾던 리성업임을 알아보았다.

성희의 오빠와 이렇게 만나다니 ...

생각하면 억이 막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빠져 지체할 여유가 없는 절

박감이 효심이를 떠밀었다.

효심은 환자를 담가에 옮기려고 서두르는 진료소장앞을 막아섰다.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처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효심은 진료소장의 위생복주머니에서 데롱거리는 청진기를 뽑아들고 환자의 가슴을 간간히 짚어보기 시작하였다. 청진을 끝낸 효심은 이어 환자의 맹장부위를 꼼꼼히 만져보고나서 진료소장과 마주섰다.

《환자를 움직이면 안됩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맹장이 터졌습시다.》

사람들은 놀랐고 진료소장은 울상이 되어 황황히 되물었다.

《도대체 누가 수술을 하겠소?》

《선생님이 하시던가...》

《난 못하오.》

《그렇다면 제가 해야지요.》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너무나도 수월하게 그러면서도 아무지게 대답하는 처녀를 사람들은 믿음이 안가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안이 병병해진 진료소장이 물었다.

《동문 의사입니까?》

《평양의학대학에서 외과학을 전공했습니다... 한주일전에 졸업했습니다.》

《한주일전에?...》 진료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림상경험도 별로 없는 갓 대학을 졸업한 헛내기가 그런 중한 수술을 감당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때문이였다. 그러나 그 《헛내기》가 의학대학의 림상실습장에서 보다는 권위있는 의학박사인 아버지의 수술장에서 의술을 익힌 처녀라는것을 알았더라면 진료소장도 속이 한줌만 해서 거듭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을것이다.

《여긴 실습장이 아닙니다.》

효심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짙막하게 일렀다.

《수술준비를 하십시오!》

진찰실은 곧 수술장으로 변했다. 방안을 다시 소독하고...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은 이 산골진료소에서 수술도구로 쓰일만한것들은 쟁그리 꺼내놓았다.

조명이 불충분할가봐 자동차의 전조등불빛까지 창문으로 들이비쳤다.

불빛이 환한 수술장쪽을 바라보며 탐사대 대장이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심심산골에 날아온 선녀인가?》

《모르겠수다. 듣자니 성업기사를 찾아왔단데...》

《뭘, 성업기사?... 엉큼한데... 그 토종각이...》

《그 뭘 여사모사한 사인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중으로 돌아서려다가 그만 늦어서 하루밤 묵게 뻘다던데...》

《그래?! 허, 우리 진료소에도 저런 선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대장의 석박한 목소리가 그들과는 어지간히 동안이 뜬 곳에서 수술결과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던 중근의 마음을 벌스레 파고들었다. 대장의 소원이자 중근의 간절한 갈망이었으나 그것은 험하게 이루어질수도 없는 한갓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었다.

중근은 깊은 생각에 잠겨 《수술실》창가로 슬렁슬렁 다가갔다.

호심은 온몸과 얼굴을 모두 흰천으로 감쌌는데 오직 지성이 느껴지는 그윽한 그 눈매에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만이 그가 지금 얼마나 긴장한 수술을 벌리고있는가를 말해주고있었다.

간호원이 연방 가제천으로 땀방울을 찍어내고 있었다

중근은 그러한 호심의 모습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

도움도 못되는 근심속에 휩싸여 장밤을 진료소 프락에서 뜯는오로 지새우며 속이 한줌만 해있던 중근은 새벽녘에야 진료소장으로부터 수술이 잘 되었다는 반가운 말을 들었다.

안도의 숨이 저절로 나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꺼져가는 한 생명을 소생시켜 이 심산의 사람들에게 지을수 없는 인상을 새겨준 그 사랑스러운 《평양선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고싶은 심정이었다.

이제 저 《평양선녀》가 로총각인 성업에게 단순한 동정과련민의 정만이 아닌 뜨겁고도 애절한 사랑의 정을 품게 된다면 중근이로서는 더 바랄것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것인가...

중근이는 선흥색 노을이 비끼기 시작한 빙설령 쪽 하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그 시각 성업의 겨드랑이에서 체온계를 뽑아 레사롭게 들여다보는 호심에게 진료소장이 바루 다가들며 물었다.

《그래 어떻소?》

《아직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던듯 진료소장이 입을 열었다.

《그걸 보시오. 아직 열두 내리지 않았는데 선생이 훌쩍 떠나면 어떻게 하우?》

귀에 선 《선생》이란 부름이 벌스럽게 들렸지만 호심은 내색하지 않았다.

《그걸 기다리자면...》

《이왕이면 마음을 푹 놓구 며칠간만 우릴 도와주시우.》

허심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빌붙는 진료소장의 말을 무우 자르듯 거절할수 없는 호심이였다. 호심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하루이를 더 경과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진료소장은 금시 어깨를 지지누르던 무거운 짐을 훌쩍 벗어놓은 때처럼 당장에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다 언제부터 찾는다던 <금산석>때문입니

다...》

《네에?》

처녀의 안색이 어떻게 달라져가는지 그런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료소장은 허가 돌아가는대로 제 할소리를 다 했다.

《글쎄, 어저께 지휘부에 회의나 왔됐으면 이렇게 까진 중태에 빠지지 않았을텐데... 그참, 빙설령인지 어딘지 가서 시료를 따오느라고 그랬다질 않소? 빙설령이 어떤 험한 산인지 가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겁니다.》

그때 간호원처녀가 들어왔다.

《저... 선생님!》

《?》 호심은 고개를 돌리였다.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조사중대 세포비서아저씨가 밖에서 기다립니다.》

《?》 호심은 영문을 몰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 6

미출하게 자란 하얀 봇나무 우듬지에서 까치가 반가운 사람을 부르듯 《깟깟》하고 정겹게 우짚었다.

후리후리한 키에 자세가 바른 중근이앞에 마주 선 호심이는 마치도 교원앞에 선 녀학생같이 느껴졌다.

《우린... 미처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못드렸습니다. 욕 많이 하십시오. 지금 온 탐사대가 선생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습니다.》

《...》 호심은 말없이 눈을 들어 중근이를 바라보며 다음말을 기다렸다.

《탐사대란 다른 어느데보다두 외상환자가 많습니다. 선생두 벌써 귀중한 한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중근은 문득 말을 끊었다. 해놓고 보니 어쩐지 실무적으로 처녀에게 그 무엇을 지나치게 강요한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남달리 예지롭고 민감한 처녀는 중근의 속마음을 어렵지 않게 헤아려보았다. 호심은 쓰거운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자르듯 말했다.

《저는 여기 와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에?》 중근에게는 그것이 애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아니였으나 무례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쌀쌀하고 어떤 적의를 품은것 같은 그 어조가 마음들지 않았다

그러나 중근은 그것을 조금도 탓하지 않고 누이동생과 말하듯 소탈하게 물었다.

《여기가 심심산골이 돼서 그렇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때문인지...》

《...》

《성업동지때문입니다.》

《뭐?》

《난 여기서 성업동지가 해놓은 일은 없이 공연

히 사는 인간처럼 살아가는걸 보고있지 못하겠습니까. 성희가 자기 오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기나 합니까. 숨지는 마지막순간에두... 그런데, 그런데 어쩔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동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인간으로 되어버렸습니까? 그런 사람을 마주보는것조차 성희동무를 모욕하는것 같아서...》 처녀는 분함과 서러움에 목이 메여 말끝을 잇지 못했다.

대뜸 중근이의 흰칠한 이마에 굵은 피줄이 두드러지게 내뻗었다.

《무슨 소릴 합니까?》

《네?》

《우리 성업기사 얼굴에 먹칠을 하러 들지 마시우.》

《?》 호심은 뜻밖인듯 한참이나 얼없이 중근이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모욕이라도 당한듯 숨을 거칠게 내쉬며 분기를 참지 못하던 중근이가 씨근거리며 입을 열었다.

《뭘, 해놓는 일이 없대구? 공연히 사는 인간이라구? 허참... 성업기사두 남들같이 찾기 쉬운거나 탐사했더라면 벌써 영웅이 되고도 남았을겁니다.》

《네에?》

《공밥을 먹고있다, 건달군이다 하는 흰소리까지 나오지만 그의 탐사사업을 왜 중단시키지 못하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

중근이는 한결 누그러진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그건 그 동무가 탐사하는 <금산석>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중했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일찌기 우리가 더 많은것을 할수 있는것도 <금산석>때문에 못한다고 하셨겠습니까? 남의 나라 자원을 믿고 제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 보자는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이르시였겠습니까!》

《...》

《지금까지 지질학계에선 우리 나라에는 <금산석>이 없는걸로 단정해버렸습니다. 원래 <금산석>은 땅속생김새가 바가지처럼 우묵하게 생긴 링그대(고리대라고도 합니다.)에서만 나타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심지구 땅속은 링그대가 아니라 중생대 화산분출암이 리네아멘트(단층구조를 말합니다.)를 복잡하게 이룬 지층으로 형성되었다는겁니다. 이런 지층에서는 《금산석》이 나올수 없다는것이 정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입가진 사람마다 한결같이 반대해나설수밖에...》

《...》

《그런데 일은 성업기사가 이 궁심지구에서 우연히 <금산석>의 사촌인 <금봉석>시편을 하나 얻은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봉석>이 있는 곳에 <금산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성업기사는 옛날 한 실학자가 쓴

책에서 이 궁심지구에서 <금산석>을 캐냈다는 기록을 보구 생각을 깊이 다졌지요.》

《...》

《그러나 <금산석>은 고사하고 <금봉석>조차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시다. 여러해째 탐사를 거듭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성업동무는 <부진연구사>, <공밥먹는 식객>이라는 오명을 쓰구 자주 편협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게 되었던했습니다. 게다가 앞날까지 약속했던 처녀마저 돌아서버렸습니다. 타격은 컸지만 그 동문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시다. 고집이나 피벽스러운 성미때문에? 아니면 자존심때문인줄압니까?》

《...》

《아닙니다. 그 동문 자기마저 손을 떼면 <금산석>탐사가 아예 중단되구 결국 우리 나라에서 이 광물을 아주 찾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는걸 자각했기때문입니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금산석>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기마련인데...》

《...》 호심은 숨없는 화석처럼 듣고만 있었다.

중근은 저으기 가라앉은 목소리로 뻘뻘말을 이어갔다.

《선생, 선생은 성업동무가... 건강한 몸이 돼서 10년나마... 산발을 타는줄 압니까? 그 동문... 영예군인입니다.》

《네에?》

《군대에서 제대될 때... 다리를 심하게 다쳤지요. 후우- 그런 발로는 평지에서조차 걸기 힘든데 매일 <금산석>을 찾느라구 험한 산벼랑을 뚫아오른단말입니다.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건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넘려하시느 문제를 기어이 풀어드리려는 오로지 그 한 생각때문입니다.》

《!...》

《정말 샘물처럼 깨끗한 사람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편역 한번 들어주기 힘듭니다. 이따금 내 마음이 아파 속으로 가슴을 앓을 때두 한두번이 아닙니다.》

중근이는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으나 호심에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사정없이 후려갈기는 예리한 채찍처럼 느껴졌다.

지금껏 하는 일도 별로 없이 공연히 살아가는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하찮게 보아왔던 그런 사람이 별안간 거인의 모습으로 호심의 눈앞에 우뚝이 떠올랐을 때 처녀는 일순 아연해지기까지 했었다.

어쩌면...어쩌면 그런 사람을 함부로 오해하고 경멸했더라 말인가... 불현듯 성희생각이 목메게 치밀어올랐다. 세상에 자기 오빠처럼 훌륭한 사나이는 없다고 소리높이 자랑하던 성희의 모습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호심은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에야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런걸... 그런걸... 전 아무것도 모르구... 흑! 흑!》

저녁 어스름이 깃든 호젓한 병실에는 고요가 깃들어있었다.

회복기에 들어선 성업을 진찰하고나서도 호심은 자리를 뜰 념을 하지 않고 무언가 추연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중태에 빠져 사경에서 헤매이는 성업을 소생 시키는데 제 부족한 의술로나마 있는 정성을 다 기울이었고 더더구나 성업의 인간됨과 그가 사서 하는 고생의 진가를 어느정도 가늠할수 있게 된 지금에 와서 이제 성희의 유물인 화석들만 전해주면 자기가 할바를 다했고 성희에 대한 의리도 지켰다고 생각했던 호심이였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지도 알수 없는 마음속 공허가 호심을 괴롭히고있었다.

무언가 다하지 못한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과 개운치 못한 기분에 호심은 시달리고있었다. 그 까닭이 무얼가...

호심은 지금의 자기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런지 몰라 안타까웠다. 《호오-》 가벼운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이윽고 자신을 다잡은 호심은 가방에서 색바랜 유지에 쓴 목직한 유물을 꺼내었다.

《성희동무가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짹짹이 모아 들었던 화석들입니다. 이렇게 늦게 전하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유물을 받아안은 성업의 근엄한 두눈에 물기가 펴-돌았다. 꾸레미를 풀어헤치고 화석들을 하나 하나 눈여겨 살펴보면 성업이가 저으기 꺼져가는 듯 한 목소리로 들릴락달락하게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성희를 다시 보는것만...》

성업은 떠들거리며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말고 창문쪽으로 돌아섰다.

비분을 참느라고 무진 애를 쓰는 성업의 고통이 전류처럼 호심의 온몸을 찌르르 감전시켰다.

눈물이란 아예 모르고 사는 강직하고 독한 사나이로만 여겨왔던 이 청년에게서 뜻밖에도 누이 동생을 그리도 잊지 못해하며 그토록 가슴저리게 추억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호심은 몽클하게 치미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

호심은 성희를 위해서도 이 청년이 《금산석》 탐사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길은 쉽게 이루어질수 없는 간고한 초행길이었다.

이 청년처럼 신비의 안개속에 휩싸여있는 미지의 자연계의 비밀을 탐구해내는 초행길에 나선 사람들은 적지 않다.

유전학설을 발견하고서도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멘델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유전학설은 세상에 빛을 보지 않았는가.

그러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심혈

을 깡그리 쏟아부었던만 아무런 창조물도 남기지 못한채 《부진연구사》로 사람들의 동정속에 한생을 마무리한 사람들도 있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운명에서 그 어떤 《고혼》을 찾고 과학탐구의 길에 나서기를 꺼려하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너절한 속물들과 덜된 처녀들이 천년이 가도 리해할수 없는 저 청년의 고결한 녀과 이 강산에 아낌없이 바치는 피와 땀,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은 만발한 꽃으로 피어나 웅당한 열매를 맺게 될것이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으로 속절없이 사그라지고 만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었다.

성희는 실패한 오빠를 바라지 않았다.

자기도 역시 그렇다. 그렇다면...

호심은 무어라고 할말을 찾지 못하며 이윽토록 성업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 8

호심은 깊은 생각에 잠겨 천천히 강기슭을 거닐었다.

폭이 얼마 넓지 않으나 물량이 많은 골계수가 시원스럽게 흘러내리고있었다.

왕금전에 하던 성업의 말소리가 되살아올랐다.

《실패가 두렵다고 모두가 <금산석>을 찾는 일을 제버리고 쉬운 길을 택한다면 장차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금산석>은 누가 찾아내며 이 땅위에 부강한 나라는 누가 일떠세워주겠습니까!》

성업의 진중한 목소리가 계속 호심의 귀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우리가 잘못 걸은탓에 후대들이 다시 그 길을 걷게 된다면 조국은 우리를 용서치 않을겁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동점령을 탐사하는 일군들에게 정 못찾게 되면 거기에 후대들이 더는 동을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도록 글을 새긴 돌까지 세우라고 하시였습니다.

저도 그 뜻을 따를 결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금산석>때문에 더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될게 아닙니까?... 우리 성희도 그걸 알면 이 오빠를 나무람하지 않을겁니다.》

그렇다. 오빠를 나무람하기는커녕 그의 지향에 열렬히 공감하고 축복해줄것이다.

마음을 언제나 미래에 두고 그 미래를 위해 오늘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있을수 없다. 《실패》란 말은 그 어떤 개인의 명예나 재부, 리기나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한생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속하는것이다. 그러니 성업의 《실패》를 우려하며 걱정했던 자기는 결국 지성이 모자라는 한갓 속마음이 편협하고 웅졸한 처녀에 불과했다.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허무감에 온몸이 줄어드는것만 같았다. 성업이라는 존재가 이처럼 자기

를 궁지에 몰아넣을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성희라도 곁에 있었으면...

강기슭 너럭바위우에서 웬 녀인이 빨래질을 하고있는것이 보였다.

지나가던 녀인이 건늬는 말소리가 효심의 귀가에 푹푹히 들려왔다.

《아니, 쌍둥이엄마! 다 늦은 저녁때 웬 빨래질 이시유?》

《성업기사거라우.》

《아니, 며칠전에 큰 수술을 받았다는...》

《글쎄 그렇게 위급한 고비를 넘기구서두 지금 저 시료분석실에서 절구질을 하구 있잖겠소?! 아직 채 아물지도 않았겠는데 그러다 수술자리가 도루 터지면 어쩔려구 그러는지 원. 아무리 말려두 막무가내인걸...》

효심은 속이 한숨만해서 듣고있었다.

《아니, 절구질같은건 분석공들한테 맡겨두 될텐데 왜서 제가 직접한다우? 돌맹이를 가루내는 일이 떠썰봉은 일같은줄 아나부지?》

《에이구 참, 그렇게두 말귀가 어둡다구야... 분석공들한테 맡겨놓구 언제 마음 편하게 결과를 기다려내겠소.》

《아니, 그 기사 안사람은 뭘 한다우?》

《안사람이 있으면 로총각 허울을 그냥 쓰구 있겠소?! 에이구, 어련애처럼 고지식하구 속이 깊은 그런 사람을... 쫓쫓 체네들두 눈이 멀었지. 그런 총각을 몰라보다니...》

어쩐지 그 말이 효심이 자기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같았다.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었다.

효심은 가볍게 한숨을 호호-내쉬었다.

《쿠웅-쿵-》 어디선가 걸싸게 짙어대는 힘찬 쇠절구소리가 메아리쳐 울려왔다.

탐사대지휘부가 들어있는 청사의 여러 방들에는 이미 불이 꺼진지 이숙한데 유독 한 창문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있었다. 절구질소리는 바로 그 방에서 울려나오고있었다.

실사이없이 돌가루를 뺑는 쇠절구소리가 효심의 가슴을 쿵쿵 울려주며 못견디게 그의 마음을 잡아끌었다.

자석에 끌리는 쇠불이처럼 효심의 발길은 저도 모르게 그리로 옮겨졌다.

분석실 창문밖에 이른 효심은 발돋움을 하며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명색이 완연한 수척해진 얼굴로 철철 흘러내리는 팔죽같은 땀방울도 씻을념을 하지 않고 절구질만 극성스레 해대는 성업의 모습이 대뜸 한눈에 확 안겨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효심은 가슴이 뭉클했다. 창문으로 누가 자기를 들여다보고있는지. ...그런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절구길에만 쟁그리 정력을 쏟아붓고있는 성업을 이윽도록 들여다보던 효심의 가슴에는 저도 모르게 까닭모를 서러움이 북받쳐올랐다. 공연히 울고만 싶은 심정이였다.

어쩌면... 어쩌면... 저 사람한테는 휴식할 권리

도 없단 말인가.

그가 걷는 길은 효심이가 아침저녁으로 오가던 평탄한 포장도로가 아니라 오솔길도 나있지 않은 울퉁불퉁한 무인지경 험준한 심산속에 첫 자욱을 찍는 간고한 탐사의 초행길이었다.

가늘게 내리는 보슬비에도 색깔고운 우산을 펴 들고 걷는 자기와는 달리 때없이 퍼붓는 작달비와 물풍스레 쏟아지는 우박바람에 온몸을 적시면서 누가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떠미는 사람도 없지만 오로지 《량심》 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잠시라도 탐사행로에서 탈선할가봐, 한치의 땅이라도 헛디딜가봐 온 심혼을 기울이면서 걷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하여 늘 부족한 마음으로 살며 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쉬여갈 생각도 하지않는것이다.

웅당 제몫으로 차례지는 권리를 향유하기전에 스스로 먼저 공민적의무를 다하려는 사람!... 그리고 보면 그는 이 나라에 없어도 좋고 있어도 별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였다.

이제 와서는 단순한 동정과 련민만으로 그를 대할수 없다는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였다.

성희의 오빠로만 여길수 없다는 그 마음속 충동이 어쩐지 효심을 점직하게 만들었다.

생각같아서는 지금 당장 저 방에 뛰어들어가 절구공이를 빼앗고 그를 대신해서 온밤 절구질을 해주고싶었다. 그러나 효심은 애써 자신을 다잡았다.

어쩐지 경망하게 제 속마음을 드러내는것 같았다.

효심은 성업의 얼굴에 눈그루를 박은채 밤 깊도록 자리를 뜰줄 몰랐다.

## 9

이깎나무, 전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숲속에 하얀 봇나무들이 이채롭게 다문다문 박혀 운치를 돋구어주는 산속길로 두사람은 말없이 걷고있었다.

하고싶은 말, 나누고싶은 사연이 하 많은 그들이였으나 성업이도 효심이도 서로 침묵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얼마를 더 걸었는지...

드디어 숲이 끝나고 소나무들이 듽성듬성 서있는 등성이길이 나졌다.

이제 저 등성이만 산골간이역이 나진다.

저쪽 산굽이를 에돌아 뻗어온 두줄기 철길이 해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성업이가 침묵을 깨뜨렸다.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 할가 봅니다. 이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산골사람들은 선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아이참...》

《모처럼 오신 손님한테 변변한 대접두 못해드

리구…》

성업은 향그러운 송이버섯이며 산꿀단지가 들어찬 려행가방을 순순히 내밀었다.

《저… 평양에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글쎄… 언제 평양갈 일이 있겠는지…》

《전 믿습시다. <금산석>을 꼭 찾으리라구…》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어서…》

둘사이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헤여지기 못내 아쉬워하는 효심의 그 마음을 넘겨다본듯 이름 모를 산새들이 애절하게 우짚어댔다.

이윽고 효심이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탐사대 진료소에는 외과의사가 있어야겠는데…》

성업이가 초점없는 눈길로 한곳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채 누구의 권고나 의무감에 못이겨 처신한다면 그건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남에게도 부담을 주게 될겁니다.》

《…》 효심은 야속한 눈길로 성업을 뚫뚫히 살짝 흘겨보았다.

성업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 멀리 빙설령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말을 찾지 못하고 한동안 잠자리던 효심이 기획 돌아서더니 고개를 수긏하고 등성이너머로 사라졌다.

성업은 웬일인지 가슴이 쓰러졌다.

이름모를 산새들이 효심을 그대로 떠나보내는 성업을 힐난하듯 소란스럽게 우짚어댔다.

성업에게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성업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깊은 곳에 그 처녀의 모습이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랄수도 염두도 낼수 없는 일이었다.

남달리 뛰어난 청신한 아름다움과 도고함, 전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의리, 거짓을 모르는 깨끗한 양심과 정의감에 불타는 그 순결한 님에 자기를 건주어본다는것은 처녀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다.

성업은 실심한듯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멀리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성업은 저도 모르게 철길이 내려다보이는 둔덕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철길에서 렬차의 진동음이 들려왔다.

얼마 안있어 산굽이를 에돌며 완행렬차가 속력을 내어 질주해왔다.

산새들이 놀라서 후드드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성업은 은근히 마음을 조이며 렬차를 주시해보았다. 렬차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옷자락이 펄럭거렸다. 그러나 성업은 개의치 않고 차창 하나라도 훑쳐볼까 긴장해서 눈앞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을 세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번만이라도 더 효심의 모습을 보고싶은 성업의 마음이었다.

활짝 열어놓은 차창들이며 나들문 승강대에서 낮설은 얼굴들이 지나갔으나 효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성업은 초조했다. 잘못 보지 않았나싶어 두번째번 고쳐보았으나 효심은 나타나지 않았다.

렬차는 긴 기적을 울리며 저쪽 산굽이로 꼬리를 감추었다.

공허감이 성업을 사로잡았다. 허탈감에 빠진 사람처럼 성업은 길길이 제멋대로 자란 가시덤불이 마구 뒤엉킨 풀숲도 가려보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깊은 생각에 잠겨 어느새 빙설령 어구에 이른 성업은 저도 모르게 우뚝 서버렸다.

저 앞 소나무열에 누구인가 서있는것이 얼핏 눈에 띄었다

성업은 제 눈을 의심하며 기연가미연가해서 다시 바라보았다.

그렇다. 그것은 효심이었다. 틀림없는 효심이었다.

효심은 소나무열에 그린듯이 서서 물기어린 그윽한 눈길로 성업을 조용히 바라보고있었다.

성업은 갑자기 두다리에 뿌리가 내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더는 나가지 못하고 걱정과 목메여 나직이 부르짖었다

《효심동무! 효심이…》

그해 초겨울에 그들은 결혼하였다.

탐사대에서는 그들 신혼부부를 위하여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 아담한 기와집 한채를 지어주었다.

그들 부부는 무척 의가 좋았다.

이듬해에 아들이 태어났다. 중근이가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효심의 이름 첫자와 성업의 이름 첫자를 따서 아들의 이름을 효성이라고 지어주었다.

효성은 혼한 감기 한번 걸리는 일이 없이 무럭무럭 자랐다.

어쩌다가 쉬는 날이면 성업이는 번듯하게 누워서 해독거리는 효성을 제 발 《비행기》에 올려태우고 추스르며 말했다.

《허, 이 녀석, 다리가 실한걸 보니 탐사대원이 틀림없구나. 이 다음 무엇을 찾아내지? 이 아빠를 대신해서 <금산석>을 찾아주겠나?》

옆에서 꿰진 작업복을 입고있던 효심이 그를 나무람했다.

《싫습시다! 효성인 절대루 탐사대원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일생 당신은 봄철에 집을 떠나면 늦가을에야 보는데…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할순 없습니다.》

《허허허… 그러니 얼마나 좋소. 우린 밤낮 그리워하면서 련애하는 기분으로 사는게… 허허허…》

《당신은 그저… 그러구 <금산석>은 자신이 찾으십시오!》

성업이는 효성을 계속 추스르며 수궁하듯 말했다.

《그래… 내가 너에게까지 <금산석>을 넘겨줘선 안되지. 안되구 말구!》

그러나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

효성이가 유치원을 마치고 소학교를 거쳐 중학교 3학년생이 될 때까지도 <금산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은 강물처럼 거침없이 흘렀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성업은 《금산석》탐사를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끼니를 번저가며 허기진 몸으로 산발을 타는 남편을 보며 효심은 가슴이 아팠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두돌기째 년륜을 새기던 그 해의 6월 초순 어느날이었다.

철기는 망종이 지나고 하지를 앞둔 초여름이라고 하지만 이 북방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얼음버께들이 녹지 않은채 그대로 쌓여있었다.

그날 오후, 보통날에는 진료소울밖에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던 탐사대 대장아바이가 전에없이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효심이를 찾아왔었다.

평소에는 과묵하고 좀처럼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대장아바이였지만 그날에는 별스레 흥뜬 기분으로 너스레까지 부렸다.

《효성이 엄마, 축하하오!》

《네?…》 효심은 영문을 몰라하며 대장아바이를 바라보았다.

《효성이엄마가 십년나마 온갖 지성을 다해서 남편뒤바라지를 착실히 하더니만 성업동무가 그런 큰일을 해냈지. 내 그래서 탐사대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나 하자구 이렇게 찾아왔소.》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점점 더 아리송해하는 효심이를 바라보며 대장아바이가 벌췌 웃었다.

《허어, 그러니 아직 모르구있었구만. 하긴 성업동무가 집을 떠나 출장 산속에서 사니까… 글썽 얼마전에 성업동무가 <금봉석>매장지를 발견했다 질 않소?!…》

《네?!》 효심에게는 금시초문이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지금 온 탐사대가 명절처럼 흥성거리구있소. 이제 광체의 폭과 깊이만 확정되면 광산을 일떠세울수 있소. 아참, 지질연구소에도 알렸더니 크게 기뻐하며 빨리 <금봉석>에 대한 학위론문을 제출하라고 성화요. 그리고 학위론문이 완성되는 차로 연구소로 소환할 의사도 비치더군. 하여간 성업이 그 사람 고생한 보람이 있소.》

대장아바이는 올 때처럼 사뭇 즐거운 기분으로 멀어져갔다. 효심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학위론문이요, 소환이요 하는 말들이 리해하기 힘든 낱말처럼 머리속에 맴돌았다.

그저 마음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것 같은 심정이다. 불현듯 수도의 불밝은 거리들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지질연구소의 아늑한 연구실에 틀지게 앉아있는 남편의 의젓한 모습이 현실처럼 상상된다.

(이제는 그이도 학위를 가진 당당한 학자가 된

단 말이지…)

달포전에 집을 떠난 남편이 몹시 그리워났다.

효심은 큰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남편을 그저 맞을수가 없어 서둘러 몸보신에 좋다는 등글레엿을 달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늦은 저녁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레사롭게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표정은 너무나도 덤덤해있었다. 그새 더 여위고 꺼칠해졌을뿐 희색은 고사하고 마치고 무슨 시름거리라도 안고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효심은 방그레 웃으며 남편을 지칭구했다.

《아이참, 큰일을 해제긴 사람의 인상이 왜 그 모양입니까?》

《어영? 전 또 무슨 소린가?》

《온참, <금봉석>을 발견했다면서?…》

《오, 그거야 뭐… <금봉석>이야 그전에두 발견하지 않았소?》

《그래두… 지금 온 탐사대가 흥성거리구있습니다. 대장아바인 이제 당신한테 <금봉석>에 대한 학위론문을 씌우겠답니다.》

성업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색이 떠올랐다.

《학위론문? 거참, 좋은 생각을 했구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 그러지 않아도 중군동무한테 학위론문을 씌울 생각을 하던 참인데… 탐사대생활에서야 나보다도 십년선배이고 그만한 경험과 실력이면 론문을 쓰고도 남지, 그리고 <금봉석>탐사에서도 공로가 크고…》

《네?》

효심의 흥뽀던 기분이 스르르 가라앉았다.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서운함이 걸잡을수 없게 마음속에 고여올랐다.

《그럼 당신은?…》

《나야 <금산석>탐사를 계속해야지. 이제는 <금봉석>도 찾았는데 신심이 있소. 그리고 <금산석>은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바라시던 광물이 아니겠소. 여보, 일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할수 있소.》

《이제부터요!…》

효심은 저으기 실망하여 남편의 말을 맥없이 되뇌이며 고개를 떨어뜨리었다.

남편의 놀란 눈길을 온몸으로 느끼며 효심은 입술을 자근자근 씹었다. 성공의 예감으로 기쁨에 넘쳐있는 남편의 기쁨을 누구보다 먼저 함께 나누어야 할 자신의 처지를 실감할수록 은연중 남편에 대한 야속한 생각이 더더욱 마음을 어둡게 해준다.

《저 언젠가 효성이 큰아버지가 그러는데 <금산석>은 링그내에서만 나타난다지요? 이 궁심지구는 중생대 화산분출암이 <리네아멘트>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는데…》

성업은 혼연히 수긍했다.

《그야 물론… 그렇게 그걸 해명해야지.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것이요.》

《그렇군요…》

효심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마트면 (그래



당신은 저자신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군요.) 하는 토라진 소리를 내뱉을번 하였다.

효심의 어두운 낯빛을 찬찬히 여겨보던 남편은 놀란 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아니, 당신 오늘 웬일인가?》

효심은 대답대신 또 한번 가느다란 한숨을 토틈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바깥에서 숨차게 불려대는 효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덤덤한 기색으로 효심의 거동을 지켜보던 성업이 반색을 지으며 부엌문을 열었다.

《효성이나?》

《아버지, 이거 좀 봐요. 얼마나 멋있나?》

어디서 꺾어왔는지 효성이가 아름답게 활짝 핀 들꽃을 안고 우쭐하여 부엌에 들어섰다.

성업의 얼굴이 대변에 환해졌다. 별방에서라던 지금 한창 꽃철이지만 이 북방의 궁심산골에서는 이제야 겨우 망울이 트일가말가하는 때이다.

《어이구 어디서 이렇게 곱게 핀 꽃을... 우리 효성이가 집안에 여름을 끌어들이는구나, 허허.》

아들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꼼꼼스러운 성업이 아직도 안색이 어두워있는 효심을 슬쩍 경눈질하며 큰소리로 수선을 떨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효심은 가마전에 돌아서서 한창 꿇고있는 등글레엿을 박죽으로 짓기 시작하였다.

《자, 효성아. 우리는 방안으로 들어가자.》

성업이 아들애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가자 효심은 등글레엿가마뚜껑을 꼭 닫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 효성아, 저 꽃을 어디서 꺾었니?》

남편의 두런두런한 말소리가 들렸다.

《저 렴남어 오지바위골에서.》

《오지바위골?》

한참 동안을 두었다가 뭔가 책장을 번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지바위골이라?》

효심은 보지 않아도 지금 남편이 궁심지구지질을 펼쳐놓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하긴 며칠전 중근큰아버지네 탐사조에서 궁심지대에 온천이 있음직한 징후들이 있다는것을 발견했다는 소리를 귀결에 들은 생각이 들었다.

이어 책장을 접는 소리가 들리며 성업의 말소리가 잇달았다.

《애 효성아. 이 고장에선 7월에 피는 꽃이 어떻게 한달이나 앞당겨 오지바위골에 났을가?》

《몰라 그런건...》

효성의 심드렁한 대답에 약간 높아진 남편의 여성이 효심의 귀전을 찼다.

《중학교 3학년생이라는게 그렇게도 지각이 없어서야 어디 쓰겠니? 길을 걸으면서도 발부리에 채이는 돌맹이하나, 풀한포기라도 무심히 보지 말구 저건 어떻게 생겨났을가, 어디에 쓸모가 있을가 하고 탐구하면서 걸어야지. 관찰력과 사고력이 무디면 애국자가 될수 없어!》

아버지의 지청구에 뚜해진 효성을 때마침 밥상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서는 효심이 역성을 들

었다.

《됐습니다... 그애가 뭐 탐사대원이 되겠다고 그런데까지 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애 효성아, 배고프겠다. 어서 저녁이나 먹자!》

《뭐라구?》

성업은 온곱지 않게 모가 진 눈길로 힐끗 효심을 치며보았다. 성업은 더는 아무말도 안했으나 효심은 그것만으로도 자기를 힐난하고 질책하는 남편의 엄엄한 추궁을 온몸으로 느꼈다. 까닭모를 야속함과 야릇한 반발심이 효심으로 하여금 자기를 뉘우칠 거를을 주지 않았다.

여느날 같으면 화기애애하고 오붓한 정이 단란한 저녁식사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저녁은 그렇지 못했다.

방안에는 들꽃이 활짝 웃고있었지만 싸늘한 서리바람이 여름기운을 싹 가져버린듯 하였다.

그 저녁이 효심의 한생에 가슴아픈 후회와 여한을 남겨줄줄이야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이튿날, 해뜨기전 이른아침. 효성이가 아직도 단잠에 취해있을 때 안해의 바래움을 받으며 묵묵히 산으로 떠났던 성업이는 한밤중에야 사람들의 등에 업혀 나타났다.

낮에 빙설령 칼산봉에 오르다가 쓸어내리는 돌사태에 묻혔던것이다. 치명상이었다.

남편을 소생시키려고 효심이 필사의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죽음의 나래는 각일각 성업이를 위협하고있었다.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성업이는 새벽녘에야 가카스로 의식을 차리었다.

피기 한점없이 해쓱해진 얼굴에 온통 눈물범벅이 된 안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성업이가 겨우 알아들을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울지 마요!... 아, <길은 이제 시작인데...해는 벌써 서산마루에 걸렸구나.>...》

남편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옛시인의 시가 효심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자아내게 하였던가. ...

그것은 또한 해야 할 산더미같은 일감을 남겨두고가는 아쉬움의 분출이였고 때늦은 자책이었다.

《아, 내 나라앞에 할 일을 다 못하고...》

《여보!》 효심은 남편을 와락 그러안으며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다.

한생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남편에게 어찌하여 한생을 윤희게 살았다는, 그 녀은 미래에도 길이 살아있으리라라는 말 한마디 못해주고 떠나보내야 했던가...

기동처럼 믿고살던 남편을 잃은 슬픔이 사무치던 그 시기에 만약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효심은 남편의 한생을 가엾게, 불행하게 여겼을것이다. 그러나 친오라버니처럼 믿고 따르던 중근이같은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고 평소에 그를 비난하면서 사이를 멀리했던 사람들도 남편의 때이른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함께

슬퍼해주었다.

남편이 남기고간것은 명예도 재부도 아니었다.

남편은 그런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 하나만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었다.

비록 그가 걸어온 자취는 세월의 이끼속에 묻히고 눈보라와 비바람에 씻기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공민적의무감으로 충만된 그의 넓은 길이 살아있는것이다.

애국은 우국이 아니라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만으로는 어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수 있겠는가...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며 무비의 자기희생성이라고, 애국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것이라고 그 넓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쉬임없이 열렬하게 속삭이고있는것이다.



효성의 인생행로에서 운명적인 전환이 일어나던 그밤, 어머니의 이야기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금 새겨안던 그 밤으로부터 여러해가 흘렀다.

효심은 이깔이며 전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산속길을 바삐 다그쳐가고있었다. 이마에 내똥은 땀방울을 흠칠념도 못하고 걸음을 재우치는 효심의 마음은 마냥 기쁨에 벅차있었다.

(그 애가 온단 말이지...)

문득 눈앞이 열리며 멀리에 가까이에 굽이쳐간 산발들이 바라보인다. 언덕길에 다달은것이다.

언덕우 새초풀무더기속에서 장끼 한마리가 기세차게 울면서 하늘로 날아올라 빙설령쪽으로 벌어진다. 불시에 남편 생각이 가슴을 메운다.

(여보, 효성이 아버지. 효성이가 끝내 <금산석>을 찾아내고 박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보, 듣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것이 꿈틀 솟구쳐 목구멍을 지진다. 그런 가위에도 얼마전 효성이 써보낸 편지의 구절들이 새삼스레 눈앞에 떠오른다.

《그리운 어머니!...

현대지질학계는 위성 탐광사진에서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지대는 <금산석> 광상이 없다는것이 공인된 하나의 정설로 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열상지대가 아닌 푸른색지대인 중심지구에서 <금산석>을 찾으려 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몇년을 고심하는 과정에는 여러차례의 반대와 물리해를 이겨내야 하였으며 과학적으로 어려운 난점들을 극복해야 하였습디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보내준 아버지의 <지질조사일지>는 저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질조사일지>는 단순한 탐사기록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과서와 같은것입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스민 <지질조사일지>의 매장, 매 구절들에서 저는 조국에 대한 뜨겁고도 고결한 사랑을 안고 살아온 아버지의 넋을 받아안았습니다...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얼마전에 저는 위성탐광 사진에서 중심지구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까닭이 지하수가 많이 스며있기때문이며 그로하여 찬색으로 나타난다는것을 해명했고 중생대 화산분출암이 한벌 뒤덮여 <리네아멘트>를 이룬 그밑에 바로 고생대의 지층이 있고 그 심부에 <금산석> 광상이 있다는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로 하여 저는 조국땅을 심장속에 안고산 아버지의 애국의 눈이 최첨단고도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에서 촬영한 탐광사진보다 더 정확히 이 땅의 한치한치를 보았다는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받아안은 박사메달은 아버지의것입니다...》

편지의 구절들을 다시 상기해보는 효성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무등 기쁘고 장한 생각이, 일찌기 체험해보지 못한 환희로 하여 현훈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저 오늘을 보지 못하고 떠나간 남편에 대한 애석한 감정이 목을 메운다.

(여보! 당신의 한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장한 아들이 당신의 넋을 이어받았는가를... 당신의 그 애국의 넋은 미래에도 길이 살아있을것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산마루로 치달아올랐다.

그러자 숲속의 일만잎새가 뒤설레이며 웅글지고 낮은 음향이 메아리쳐갔다.

그 신비한 자연의 음향속에서 효심은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듯 한 착각속에 빠져들었다.

(여보!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심장은 영원히 살아있소!)

효심에게는 남편의 그 목소리가 이미 착각이 아니었다.

## 중편소설 《월로폴람스크대로》에 대하여

지난 제2차세계대전시기 붉은군대장병들과 소련인민이 조국을 위한 싸움터에서 발휘한 영웅적 위훈과 용감성에 바쳐진 수많은 작품들가운데서 장편소설 《월로폴람스크대로》는 특색있는 작품이다.

중편소설 《월로폴람스크대로》는 소련작가 알

렉산드르 알프레도비츠 베크(1903-1972)가 창작한 작품이다.

싸라프브의 군의가정에서 태어난 알렉산드르 베크는 공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하였다. 1919년부터 문필활동을 시작한 그는 1934년에 용해공들의 창조적로동생활에 바쳐진 첫 중

편소설 《꾸라코》를 발표하여 문단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창작활동의 전기간 소설집 《용해공들》(1946), 《찌도페이》(1948), 장편소설 《젊은이들》(1954, 앤. 로이코 합작) 등 많은 작품들을 썼다.

중편소설 《월로폴람스크대로》는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우수한 전쟁주제작품이다. 작가는 소도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1944년에 중편소설 《월로폴람스크대로》를 내놓았으며 그의 속편들인 중편소설 《머칠간》, 《뻔필로브장군의 예비대》는 1960년에 창작되었다.

그후 작가는 1964년에 다시 《월로폴람스크대로》라는 제목 밑에 이 세 중편소설을 묶어 하나의 장편소설로 만들어내놓았다.

소설은 파쑈도이첸란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소련인민의 조국전쟁초기인 1941년 10월과 11월의 어려운 나날 수도 모스크바방위전투에서 발휘한 뻔필로브사단 장병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까자흐스탄에서 새로 조직된 뻔필로브사단은 훈련도 얼마 받지 못한채 모스크바방위전투에 참가하게 된다. 모스크바로 통하는 월로폴람스크대로를 방어할데 대한 사단앞에 부과된 임무에 따라 대대장 바우르드잔 모피슈-울릭상위가 지휘하는 대대는 루자강반에 방어진지를 굴설하고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적들은 대대방어진의 의식을 예돌아 모스크바로 전진한다. 적의 포위속에 든 대대는 련대와의 련락이 끊어진 어려운 정황에서도 대대장의 지휘밑에 부대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며 피동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적들에게 계속 치명적인 타격을 주면서 조직적으로 후퇴하여 사단으로 돌아온다. 그후 사단장예비대로 된 대대는 휴식할 사이도 없이 위험이 조성된 새로운 방어지점으로 진출하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정황에 맞다든다. 력량상 우세한 적들은 사단방어선을 돌파하고 대대는 또다시 적의 포위속에 들게 된다. 치열한 전투속에 부상병들이 늘어나고 부대에는 탄약과 식량마저 떨어진 다. 그러나 대대장 모피슈-울릭은 강의한 의지로 모든 곤난을 극복하면서 대대를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며 전투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사단으로 돌아온다.

두주일간의 휴식기를 보내면서 부대를 보충한 다음 모피슈-울릭의 대대는 사단장으로부터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는다. 사단예비대인 대대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사전에 면밀히 타산된 작전계획에 따라 적들의 주타격이 예견되는 방향에 방어진지를 차지하고 나흘간 지령하는것이였다. 이 나흘간이야 말로 이때까지 대대가 겪어보지 못한 참으로 준엄한 나날이였다. 파쑈도이첸란트군은 수많은 병력과 대포, 탱크를 끌어모아 모스크바에로 진격하기 위하여 마지막 발악을 해온다. 하나의 마을, 하나의 도로를 놓고도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며 대대는 많은 손실을

본다. 그러나 이 4일간의 전투에서 대대장병들은 대대장의 능숙한 지휘밑에 자기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기고 자기들의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줄거리를 통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운 소련군장병들의 용감한 투쟁모습과 영웅적희생정신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이 소설은 군대를 강화하고 적들과의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지휘관들이 어떠한 전투도덕적품성을 가져야 하며 부대를 어떻게 지휘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예술적해명을 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지휘관들이 갖추어야 할 전투도덕적품성과 지휘능력에 대한 문제를 우선 주인공인 대대장 모피슈-울릭의 형상을 통하여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소설은 조국애와 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는 주인공 모피슈-울릭의 형상을 통하여 적과의 싸움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성,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가는 강의한 의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은 전투임무를 무조건 수행해나가는 충직성, 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있는 지휘관으로서의 높은 책임성, 자기 자신과 대원들에 대한 강한 요구성 등이 바로 소련군대지휘관들이 갖추어야 할 전투도덕적품성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전투조직과 지휘에서 기존군사교범과 규정에 대하여 교조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신축성있게 처리해나가는 주인공의 높은 지휘능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의 이러한 높은 요구성과 능숙한 전투지휘로 하여 어제날의 평범한 노동자, 폴호즈원, 지식인출신의 대대장병들은 모두가 용감한 병사, 영웅들로 자라나게 되며 부대는 강철같은 규률을 지닌 전투대로 자라나게 되는것이다.

소설에서 지휘관들의 전투도덕적품성문제와 자질문제는 언제나 아래 지휘관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능력을 적극 조장시키고 키워주며 새로운 전투방법과 전술을 끊임없이 탐구해나가는 사단장 뻔필로브소장의 형상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인 대대장자신이 작가에게 직접 자기의 전투담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고있다. 소설은 구성이 단순하면서도 치밀하며 묘사가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는것이 특징이다.

중편소설 《월로폴람스크대로》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소련군대장병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독특한 각도에서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소련군대와 인민들을 원쑤격멸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전쟁의 경험들을 배워주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오늘 선군시대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서도 널리 읽히우는 작품으로 되고있다.

**리상혁**

## 선군시가문학에 비친 정서적색갈

리동수

련시 《끝나지 않은 고개길》(송명근, 《조선문학》 주제93 (2004. 8호)은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엿보게 하는 성과작이다.

작품은 선군시대에 맞는 참다운 인간전형과 시대정서를 개성적인 안목으로 투시하고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소고삐를 잡은 병사가 고개길을 뚫고있다. 무슨 일로 어디로 가는 병사인가. 경계구역을 넘어 병실 끝까지 들어온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중대장의 《특별임무》를 받고 소임자를 찾아가는 길이다.

《어서 가자 이 소야/ 인민을 찾아가는 길에 연착되면 안되지》

첫시 《<특별임무>를 받고가는 길》은 이렇게 엮여진다.

련시는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지켜나선 선군시대 병사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아담한 이야기에 담아 생동한 시적정서로 펼쳐고 있다.

련시는 밝고 선명하며 환희롭고 락천적인 정서를 타고 생신하고 발랄하게 흘러간다.

련시가 주는 강한 인상은 우선 종자를 새롭고 특색있게 탐구한데서 온다.

시의 생명인 서정성은 무엇보다 종자를 특색있게 탐구하고 가꾸는데서 드러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물론 현실에서 잡아온 생활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가 밝혀낸 사상적알맹이가 문학작품에 담을 수 있는것이라면 그때에는 종자를 찾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

련시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생활자료들이 분석되고 취사선택되였다.

부대경계구역을 넘어 병실끝까지 들어온 임자없는 소, 중대장의 《특별임무》를 받은 병사, 소임자를 찾아 고개길을 넘고 집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병사, 우리소가 아니라고 저저마다 사양하면서도 반겨맞아주며 아래목 밥상앞으로 이끄는 농장원들, 고개길을 돌아 령길을 넘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는 꿈을 꾸는 병사...

이런 여러가지 생활자료들이 서로 엮여지며 흘러간다. 이제 소임자를 찾아 고삐를 넘겨주면 시는 끝날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활자료들이 곧 시로 되는것은 아니다. 이것이 시로 되자면 생활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가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발견해내야 한다. 작품은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고 탐구를 거듭하여 찾아낸 사상적알맹이를 작품의 종자로 심어놓았다.

만일 《특별임무》를 받은 병사가 고심끝에 소임자를 찾아 마침내 고삐를 넘겨주는것으로 작품을 맺었더라면 구태의연한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

나지 못했을것이다.

작품은 여기서 한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가 인민을 찾아가는 병사의 고개길은 끝나지 않을것이라는 특색있는 사상의 핵을 발견하고 그를 련시의 정서적바탕에 일관하게 관통시켜나갔기때문에 《끝나지 않은 고개길》 마지막 시편을 의의있게 장식할수 있었다.

...

병사의 《특별임무》는 이제 끝나리라  
하나 이 땅에 장군님병사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 한  
인민에게로 뻗은 병사의 길은  
끝나지 않으리라

그렇다. 소임자를 찾아가는 병사의 《특별임무》는 이제 수행될것이다. 하나 인민을 찾아가는 병사의 고개길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것이다.

련시가 주는 강한 인상은 또한 선군시대의 주도적감정인 군민의 정을 생활적인 정서로 굴절시켜 아담하고 색채있게 형상한데 있다.

련시의 매 시편들을 읽어내려가느라하면 인민의 복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장군님병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한눈에 안겨오며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런 군민의 정이 선군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정서로 승화되어 짙은 선군정서를 련시 전면에 충만시켰다.

두번째 시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에서 이런 군민의 정은 생활그대로의 흐름을 따라 정겹게 펼쳐진다.

병사는 소임자를 찾아 집집의 대문을 두드리고 주인들은 저저마다 제집 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인민의 재산을 지켜나선 병사의 손목을 잡아 보고싶어 방안으로 이끌고...

할아버지네 집 대문을 두드리며 병사가 묻는 말 《이 동네 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소뿔이랑 코뚜레랑 만져보고나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 《우리 소가 아닌데...》

이번엔 분조장의 소매자락 붙들고 병사가 다시 묻는 말 《이 분조 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탐나듯 소영치 철썩 치고나서 분조장이 하는 말 《우리 소가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서로의 정에 이끌려 병사의 손목 잡아온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닌데... 아닌데...  
자기네 소는 아니라면서도  
병사의 손 덥석 잡아

아래목으로 이끈다 밥상앞으로 이끈다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샘물이 찰랑이는 박우물로...  
파일바구니걸로...  
왜 자꾸만 이끌가?

제집 소는 아니지만  
다름아닌 제집 소를 찾아준것 같아서...  
인민재산의 고삐를  
든든히 틀어쥔  
병사의 손 한번 잡아보고싶어서...

(시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이렇듯 련시는 우리 시대 선군서정을 보여주는  
군민의 정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선군시대 참다운 인  
간의 모습을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여준다.

특히 세번째 시편인 《병사의 꿈》은 선군시대  
의 특징적인 서정을 섹채있게 부각시키고있다.

시 《병사의 꿈》은 생활의 논리, 형상의 논리  
에 따라 시적환상으로 창조해낸 형상의 몫이다.

병사의 미움속에 깊이 뿌리내려 한순간도 떠나  
본적 없는것은 병사들의 자애롭고 친근한 어버이  
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다.

끊임없는 전선시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문득 이 령길에서 만나뵙게 될런지 어  
이 알리,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소고삐를 잡고 령길을 넘는 병사의 가  
슴속엔 온통 경애하는 장군님 생각뿐이다. 이런  
절절한 그리움이 뇌리에 번개처럼 시적환상의 날개  
를 펼치게 하였으며 련시의 절정을 장식한 시  
《병사의 꿈》을 착상하게 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는것을 최대의 희망,  
최상의 영광으로 숙원하는 병사의 체험세계는  
너무나 웅당하고 자연스러운 논리이다. 이런 논  
리의 정서가 점화되어 시 《병사의 꿈》은 마침내  
절절한 그리움의 파도마냥 사품치며 솟구쳐오르  
는것이다.

끊임없는 전선길 이어가시는  
최고사령관동지  
고개길 어느 굽이에서 만나뵈울듯  
발동소리만 들려도 웃길 여미고  
경적소리만 울려도 군모를 바로잡더니

(시 《병사의 꿈》에서)

병사는 아예 꿈에 잠기고만다. 대낮에 걸으면  
서 꾸는꿈, 회초리를 휘두르는 병사앞에 야전차  
를 멈추신 장군님 허리굽혀 물으신다. 병사의 사  
연을 들어주신 장군님 산발이 찌렁 울리도록 호  
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좋아, 좋아 이런 병사가 바로/ 나의 병사야/  
나의 병사!>》

표창중에서도 제일 큰 표창, 《나의 병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무아경에 잠긴 병사 걸으

면서 꿈을 꾸다.

그렇다. 병사의 꿈, 깰줄 모르는 그 꿈은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병사는 그 꿈속에  
서 실생활을 보았고 생활속에서 장군님병사된 감  
격과 긍지를 안은채 《인민재산의 고삐》를 든든  
히 틀어쥐고 끝나지않을 그 길을 걷고 또 걷는것  
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제일선에서  
그이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하려  
는 병사의 높은 정신세계야말로 선군시대의 시대  
정신을 체현한 선군시대의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선군서정, 선군정서는 바로 이런 병  
사, 이런 참다운 인간의 숨결과 체취, 감정정서  
에서 풍만한 서정으로 피어나는것이다.

련시가 주는 강한 인상은 또한 생활로부터 시  
작하여 시가 전편을 생활로 충만시킨 시형상의  
특성에 있다.

기승전결적구성을 가진 한폭의 화폭처럼 선명  
하게 안겨오는 이야기는 련시의 고유한 맛을 둔  
구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련시는 모두 4편의 시로 구성되고있는데 첫번  
째 시 《<특별임무> 받고가는 길》에서 시작된 이  
야기가 두번째 시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에서 전개되어 다음 《병사의 꿈》에서 절정을  
이루고 마침내 《끝나지 않은 고개길》에서 결속  
을 본다.

이처럼 련시는 이야기로 시작되어 이야기로 매  
듭되면서 생신한 서정을 펼치고있으며 하나의 웅  
근 작품으로서의 특징을 뚜렷이 살리고있다.

사람들은 병사가 걷는 발자취를 따라 함께 고  
개길을 넘으면서 집집의 대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안타까이 채찍을 휘두르며 걸음을 바재기도 한  
다. 굽이 많은 령길에서 야전차의 발동소리 들릴  
세라 귀를 강구며 혹시나 하는 예감으로 옷깃을  
여미고 마음속깊이 경모의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  
다. 걸으면서 꾸는 꿈을 어찌 병사의 꿈이라고만  
하랴. 우리모두의 꿈, 우리모두의 소망을 안고  
병사는 가고있다.

소박하면서도 기발한 착상이 한데 어울려 생활  
을 타고 흘러가는 이 시의 서정세계야말로 참으  
로 아름답고 이채롭다.

사실이나 현상라벌같은것과 인연이 없고 기성  
의것에 대한 반복이나 모방이 없이 생신하고 발  
랄한 서정을 펼치며 굴곡있게 흘러가는 시적정서  
는 새롭고 감미로운 맛을 둔구면서 여운있게 맺  
여진다.

생활속에서 시를 발견하고 시로 생활을 엮어나  
가면서 병사의 생활과 심리체험세계를 속속들이  
파고든 창작솜씨는 시야말로 생활속에서 우러나  
오고 생활에 의해 더욱 풍만해지는 서정의 결정  
체라는 창작생리를 다시금 뚜렷이 새겨안게 한  
다.

련시 《끝나지 않은 고개길》은 병사가 걷는  
길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도록 한폭의 화폭속에  
정교하게 다듬어 엮어나간 인상깊은 시로서 사람  
들의 기억속에 깊은 감명을 남기고있다.

# 주체문학의 대강

《주체문학론》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에서는 력사에 실지 있는 위인을 형상하는것만큼 수령의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고 모든 형상요소를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 집중시켜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은 일정한 사회정치적계층의 지향과 요구를 대변하는 전형적인물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사회적집단을 통솔하고 인도해나가는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보여줄수 있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 고유한 생리가 있게 되는것은 력사에 실지 있는 위인을 형상하고 내세우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력사에 실지 있는 수령을 직접 형상하기때문에 작품의 내용을 철저히 력사적사실에 맞게 하여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력사에 없는 사실을 꾸며낼 필요가 없다. 원래 수령의 혁명력사자체가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위대한것이다.》

## 고향의 시내가에서

장선국

한여름날

고향의 시내가에서

나는 듣노라

여섯살남짓한

애된 처녀애와

젊은 녀인이 나누는 말

《어머니 물은 왜 흐르나요》

《물은 엄마강으로 가려고 흐른단다》

《아니야요 어머니

물은 우리에게 흰밥을 먹이려고 흘러요》

《그래 그래 참 그렇단다》

...

문득 가슴을 친다

어둠이 깃드는 시내가에 울리는

그 목소리

어린날 내 어머니와 나누던

그날의 목소리로

쩌영-

이 가슴 마쳐온다

《어머니 염소이발은 푸르지 않나요?》

《염소이발이 왜 푸르겠니?》

《아침에 거울을 보니

내 이발이 시퍼렇게 보여서 그래요》

나라없던 그 세월

날마다 산나물 들나물로

배를 채우던 어린 시절

더벅머리 어린 나를

와락 그러안고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내 그때 왜 그리도 철이 없었던가

아 내 어린 시절

시내가에서

내 그려보던 어머니모습은

깃났힌 조국의 지난날 모습이였다

다시는 되풀이될수 없는 지난날이기에

오늘의 행복이 그렇듯 소중한

빼앗길수 없는것이 고향이고 조국임을

내 나서자란 이 강변

이 가슴에 펼쳐진

맑은 시내물과 이야기하노라

## 내 고향의 자랑

김대성

내 고향 강계의 자랑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소문이 난 인풍루였다.

장자강과 북천이 서로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합수목에 시원히 발을 잠그고 솟구친 기암절벽, 그우에서 금시 하늘로 날아오를듯이 합각지붕의 나래를 펼친 고색창연한 이 명승루정에 오르면 내 고향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험준한 산악들이 서로 어깨를 겨루고 사방팔면으로 이 오뎡한 산골도시를 성벽처럼 둘러싼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수정같이 맑은 물은 북천과 남천으로 갈라져 도시의 변두리를 고이 감싸안고 돌다가 시내중심을 장쾌하게 꿰질러 나간 유서깊은 장자강에 합류한다.

강으로 도시의 경계를 그었다고 하여 이름도 강계인 나의 고향, 풍치수려하고 숲향기가 진하게 풍기는 산골과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도시가 그야말로 리상적인 결합을 이룬 내 고향에는 강이 많으니 다리들도 많다.

강계대교에 강서다리, 북문교에 인풍다리, 남천교에 향하다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출렁이는 맑은 물이요 그 물위에 무지개처럼 걸린 다리들이다.

이 다리들보다 더 많은것이 최근 몇해어간에 생겨나 내 고향의 모습을 일신시켰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다투어 일떠선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의 언저리들이다.

장자강의 지류인 북천에만도 계단식으로 여러개의 발전소언저리들이 일떠섰고 이르는 곳마다에 경치좋은 산중의 호수가 그 기슭에는 전기난방화 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생겨났다.

홍주지구에는 장자강을 통채로 가로막은 웅장한 갑문식언제가 일떠섰다.

중형발전기들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는 홍주청년1호발전소의 능력은 대단하다.

최근에 홍주발전소아래에는 역시 장자강을 가로막은 또 하나의 발전소언제가 일떠섰다

이 홍주청년2호발전소가 조업을 하면 강계사람들은 모두 전기로 방을 덥히고 밥을 지어먹게 된다고 한다.

웅장한 언제로 가로막힌 장자강은 인공호수로, 아니 산중의 호수로 변했다.

《장자봉》호를 비롯한 려객선들이 강바람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펄펄 날리며 부웅!- 하고 배고동

을 울리며 가는 모습은 정녕 황홀하기 그지없다.

얼마전에 강계시의 모든 도로들은 아스팔트로 일매지게 포장되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는 은근하게 색깔이 고운 블록로를 깔았다. 다층살림집들의 지붕에도 색기와를 울리고 벽체에는 외장재를 발랐다.

이통에 가뜩이나 젊음이 넘쳐나는 내 고향 산골도시는 어여쁜 처녀가 화장을 하고 나선듯이 더 아름다와졌다.

날이 저물면 강계시는 불야경을 이루면서 보더 아름다운 신비경을 장자강의 넓은 수면위에 펼쳐놓는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인풍언덕은 조명등으로 대낮처럼 밝아진다.

인풍언덕의 맞은편에 높이 솟은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에선 수많은 창문마다 환한 불빛이 아이들의 행복한 노래소리와 함께 흘러나온다. 북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 일떠서서 인풍루와 아름다움을 다투는 닭내포국집은 마치도 갖가지 장식등을 환히 켜고서 대양을 향해하는 대형려객선인듯 그 모습이 호화찬란하다.

장자강 건너편에 평양 통일거리의 축소판처럼 시원하게 뻗어나간 서산거리의 다층살림집들에서도 다투어 불빛이 반짝인다. 그에 뒤질세라 강변에 우뚝우뚝 솟아난 고층살림집들의 창가마다 런던 불이 켜지는데 인풍려관의 모습은 우아하게 안겨온다.

그 불빛들이 산중의 바다인 장자강에 비껴 금물결,은물결로 환희에 겨워 넘실거린다.

밤이 지새는줄도 모르고 인풍루에서 이 황홀한 장자강의 불야경을 바라보노라니 내 가슴은 불을 안은듯 뜨거워지고 눈곱이 젖어든다.

문자그대로 선경인 이 장자강의 야경은 어떻게 펼쳐진것인가.

안개가 낀듯이 흐려지는 나의 눈앞에는 두겹게 얼어붙은 장자강의 얼음장이 켑켑 소리를 내며 터지던 몇해전 대소한의 그날이 어제런듯 떠오른다.

조국앞에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앞장서 헤치시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력사적인 자강도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그날 날씨는 얼마나 춥고 맵쥔고 눈보라는 얼마나 사나웠던가.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장장 6천리.

그이께서 쉬임없이 걷고걸으신 그 자욱자욱에 발전소의 언저리들이 일떠섰고 엄동설한에도 흐르는 장자강물에 수력타빈들은 돌고돌아 밝은 빛과

뜨거운 열을 보내주게 된 것이다.

바로 이 나날에 위대한 강계정신이 창조되었다.

자강도사람들처럼 우리도 하자!

춡다고 하여 동면하면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로 일떠서서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제손으로 빛을 만들고 열을 만들자, 그래야 강추위를 물리치고 락원의 봄을 앞당겨올수 있다.

장자강이 물결쳐간 곳마다에서 강계정신이 나태를 펼쳐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니 정녕 그렇다!

바라보면 불수록 불야경을 이룬 장자강에는 내 고향 강계의 모습만이 비껴있지 않구나.

선군시대와 더불어 아름답게 변모된 내 조국의 모습이 여기에 다 비껴있구나.

그러기에 지금껏 내 고향의 자랑이었던 관서8경의 하나인 인풍루는 장자강의 불야경에 그만 무색해졌구나.

나는 번쩍 고개를 들고 큰소리로 웨치고싶었다.

선군8경의 하나인 장자강의 불야성은 선군시대에 창조된 내 고향의 자랑, 아니 내 나라의 자랑이라고.

## □단상□

## 밤노을

김진경

퇴근시간이었다.

장자강반에 우뚝 솟은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 앞을 지나는데 방금 혼련이 끝났는지 악기들을 둘러멘 아이들이 불밝은 정문으로 밀려나 오고있었다.

나는 강계대교에 들어섰다. 아이들의 재깅거리는 소리가 뒤따라왔다. 한 아이가 코노래를 흥얼거린다.

강물우엔 수차돌려 불빛바다 펼쳐였네

...

혼련의 여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모양이다. 이때 다른 아이가 흥에 겨워 소리친다.

《저기 좀 봐! 정말 불빛바다가 펼쳐졌지?》

《그래!》

아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모여서서 불빛이 어린 장자강을 내려다보는것이였다.

《야! 우리 고층살림집의 불빛도 강에 비졌구나. 무지개다리를 놓은것 같애!》

《아니, 은하수가 흐르는것 같구나!》

《물 밑에서 노을이 막 피어오르는것 같지 않니?》

《그러니 우리 장자강엔 밤에도 노을이 핀단 말이지. 장자강의 밤노을! 멋있구나!》

《호호호》

《호호호》...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장자강의 밤노을!

무심히 들을수 없는 말이였다.

생각깊은 눈길로 강물을 바라보았다. 장자강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대인공호수로 변한 장자강의 넓은 품에 이 땅의 불꽃이 모두 모인듯 불야경을 이루었다.

크고작은 다층살림집의 무수한 강가마다에서 쏟아져내리는 불빛들, 화려한 자태를 드러낸 강계닭내포국집, 관서8경의 하나로 이름높은 인풍루의 함각지붕, 웅건한 자세로 높이 솟아 손님들을 부르는 인풍려관의 밝은 창문들, 거기서 울려오는듯 한 웃음소리, 노래소리...

가장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 고난을 디디고 일어난 영웅적인민의 역센 힘에 떠받들려 더욱 풍만해지고 아름다워진 락원의 강- 장자강!

사연도 많아라.

우리 장군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한해에도 몇차례 머나먼 자강땅에 찾아오시여 수많은 발전소에 전기의 불꽃을 지펴주신 그때부터 이 땅엔 영영 어둠을 모르는 희한한 별천지가 펼쳐지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 밤의 경치는 더욱 아름답고 우리의 가슴뜨겁게 젖어드는것 아닌가!

진정 신비하고 황홀한 장자강의 밤노을은 선군이 안아온 행복의 노을, 강성대국을 불러오는 아침노을이 아니겠는가!...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안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바로 희망찬 래일은 너희들의것이 아니냐!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이 땅에 새로운 절경을 낳게 하는구나.)

아이들의 고운 얼굴에도 함뱍 웃음이 어려워있었다.



# 내 고향의 불노을

김정경

서늘러운 바람에 옷자락 날리며  
민족의 자랑높은 인풍루에 오르니  
한눈에 안겨온다 내 사는 거리  
땅도 하늘도 강물까지도  
아름다운 불노을에 불타는구나

네가 정녕 옳으냐 나의 고향이  
고난의 세월이 흐르던 강변이  
오늘은 행복의 노래 넘치는 속에  
한밤에도 불노을을 펼치었구나  
잠결에만 보이던 꿈나라처럼

허나 너는 꿈나라 아닌 우리의 밤  
고난의 어둠을 태워버리며  
압살의 눈보라 살라버리며  
우리가 안아온 선군의 새 풍경

보아라  
홍, 청보석 무리등 반짝거리는  
버드나무 저 강변  
이 밤을 가꾸며 언약한 이들  
사랑에 젖어 희망에 거닐은다  
《은하》의 거리를 바라다보며  
푸른등 총총한 《오작교》를 건느며

얼마나 황홀한 이 밤이나  
아빠불러 고운 아기 손을 짓는 창가에  
정답게 화답하는 배고동소리  
또 하루 자랑을 가득히 담아실고  
물굽이를 돌아온다 노래의 배  
불노을 헤가른다 기쁨의 배

그 어느 절경이  
이 밤의 경치와 승벽을 낼거냐  
물에 취한 불, 불에 취한 물  
한데 어울려 출렁거리니  
감빛불 찬란히 홀렷퍼지는  
인민의 식당- 푸른 추녀에  
등근달도 내려앉아 허허 웃는 밤

저도 몰래 눈굽에 고이는 눈물

이 밤의 아름다운 노래를 위해  
노래로 밝은 이 밤을 위해  
눈보라 사나운 령길을 넘어  
야전차의 불빛은 그 몇번 홀렸던가

그 불빛 받들어 결사로 나선 우리  
땀만이 아닌 피도 여기 바치었나니  
사품치는 얼음물에 심장을 묻은이 몇몇이던가  
미소로 불타는 무수한 창문들은  
오늘을 그리며 웃으며 간  
그네들의 장한 얼굴빛은 아니던가

그 뜻에 한껏 단장한 밤이여  
그 정신에 물든 장자강의 밤이여  
희한한 닭공장, 제대군인 살림집  
또 무수한 선군의 창조물들을  
휘감아 일으키며 불노을 타는 밤이여

오, 장자강 내 고향의 불노을  
네 어찌 시대의 선경만이라  
너는 장군님의 선군령도  
결사관철로 증명한 진리의 기발이도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온 나라를 불려  
북방이 추켜든 해불이도다

인풍루의 밤  
김철석  
인풍루에 밤이 오니  
장자강의 불야경이 장관이로구나  
그 누가 이런 경치  
선군8경이라 불렀던가  
깊어가는 밤처럼 생각많아라

장자강 합수목의 붉은 바위우에  
관서8경이라 자랑했던 루정이어도  
밤에는 칠칠이 어둠에 잠겨있더니  
수수백년 짙어있던 어둠을 밀어내며  
단청지붕 건들 들어올린 인풍루의 밤

굽어보니  
만수로 출렁이는 수면우엔

행복의 웃음넘친 불빛들 쏟아져내리고  
 불빛을 안고 떠나가는  
 러객선의 긴 배고동소리에  
 강변의 물오리떼 깃을 치는 밤

이런 밤을 기다려  
 강변의 버드나무 아름답리 년륜을  
 돌기돌기 감아안고  
 길길이 아지를 늘여 이 땅에 절을 하는가  
 철썹철썹 기슭을 치는 물소리에  
 옛이야기도 실어보는 마음이어

그 경치 하도 멋들어  
 관서8경이라 불려왔어도  
 살길찾아 떠나가는 무거운 류랑의 걸음  
 한번도 멈춰세우지 못했고  
 낮이면 명승을 부감하며 즐긴이들 있어도

밤에는 짙은 어둠에 싸여있더니  
 이 밤엔...  
 고난은 있었어도 비관을 몰랐고  
 밤은 깊었어도 잠을 몰랐던 강계사람들  
 장자강 곳곳에 언제를 막아  
 물을 길들여 불을 얻은 자랑있어  
 어둠은 합수목의 물결을 타고  
 멀리멀리 흘러갔거니

오, 장자야경이어  
 낮에는 자연의 관서경치  
 밤에는 창조의 선군경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내 조국의 8경을 자랑하며  
 이 밤에도 불야경을 펼쳤구나  
 인풍루의 새 역사를 맞이했구나

## 그리움의 불야경

도명희

밤의 장자강 네 강변에 서니  
 불빛이 흐르나 물이 흐르나  
 출렁출렁 기슭을 치며  
 용용히 흐르는 불밝은 강아

밤이면 어둠에 잠기던 이 기슭  
 잠 못드는 불빛에 밤이 더 밝은가  
 물우에 저 밝은 불빛을 불러  
 터치고싶어라 이내 마음을

명문령 높은 고개 그 험한 길을  
 눈보라 헤치시며 오신 장군님  
 흑한의 추위속에 그이를 모시고  
 마음 송구하던 강계의 심정  
 그 심정이 켜둔 불빛이려나

거름을 싣고 가느라  
 장군님 지나가시는 길  
 넓게 내드리지 못했던 사람들  
 미처 그이를 알아뵈지 못한  
 아쉬움에

따라서며 흘리던 눈물이던가  
 이 땅이 가장 시련 겪던 그날  
 정녕 자강땅이 정이 드시여  
 장군님은 험한 길을 오고 또 오시였던가  
 장알박인 녀성관리위원장의 손잡아주시려  
 무덕의 등판길도 오르시였고  
 장자강 띄우개식발전기  
 4계절 전기덕을 보게 됐다고  
 힘을 주고 기쁨을 안겨주시던  
 장군님의 그 마음 이 땅은 알아

아, 장자강 밝은 흐름아  
 이 밤 네 물결에 흐르는건  
 정인가 그리움인가  
 《고난의 행군》길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락원의 밝은 길 열어주신  
 장군님과 맺어진 그 인연 못잊어  
 자강땅사람들 심장이 켜든  
 정의 불빛이여라  
 그리움의 불야경이여라

## 5 호물동가에서

김무림

5호물동가,  
보라빛 새벽노을을 비껴담고  
강물우에 피어오르는 젖빛안개...  
단숨에 떼목다리 넘어선 빨찌산들  
멈춰섰다, 구령없이

어떤 시련이 겹쳐들어도  
설죽도 쓰러질죽도 모르던 그들  
이 순간엔 다 잊었던가  
지휘관들은 목이 메었고  
대원들은 숙연히 머리숙이고...

조국에 가면 한껏 웃자던 너대원들  
그만 그 약속을 잊었는가, 불안은채 뜨거운  
눈물...  
키넘는 눈길에도 앞장서던 기관총수  
그만애야 뚫어앉았구나  
움켜쥔채 불에 대인 한줌의 흙

망울진 진달래 아름앞에  
애어린 전령병은 눈물이 글썽

〈가사〉

피터져도 돌격나팔 불고 또 불던  
나팔수의 죽안에도 한포기의 풀

겨레의 피눈물을 떠안은듯  
그리도 무거웠다, 그 한줌 흙이  
만드시 제것이 되어야 할것이어서  
목숨처럼 부둥켜안았다  
짓밟혀 신음하는 이 산천, 이 조국

툑툑-  
고요속에 합쳐지는 심장의 박동소리  
기어이 찾아야 할 조국을 품어안은  
빨찌산들의 가슴과 가슴들을 거쳐  
해방조국은 이미 태동하고있었거니

기다려다오 겨레여! 조국이여!  
오늘엔 비록 빼앗긴 땅을 그러안았지만  
**김일성**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총대로  
기어이 안아오리라  
다시 찾은 이 땅우에 용솟음칠  
민족의 환호, 3천리의 환희를!

## 영원한 조선의 봄

홍민식

2월의 봄노래를 조용히 들으실 땐  
장군님 마음속에 추억도 깊으시네  
타향의 봄날에 수령님과 어머니  
함께 찍은 사진 한장 감회깊이 안겨오네

백두의 혈전속에 피어난 타향의 봄  
하많은 사연을 뜨겁게 불러주네

피어린 천만리 자욱자욱 걸어보는  
장군님 마음속엔 그 봄날이 불타네

뜨거운 추억속에 2월의 봄이 오고  
2월의 봄빛안고 새 세기 봄꽃 폈네  
타향의 봄과 함께 내 조국에 길이 빛날  
2월의 봄이여 조선의 봄이여

## 우리 마을 설풍경

박명화

서리꽃도 곱게 피는 민속명절 설명절  
우리 마을 담너로소 너나없이 흥겨워  
어버이장군님께 첫 세배를 드리고  
부모형제 앞집뒤집 설인사를 나누네  
에루화 멋이로세 우리 마을 설풍경

너도나도 흥에 겨워 즐겨맞는 설명절  
하늘가엔 연이 날고 마당에선 널뛰기  
로인들은 장훈이야 너인들은 웃놀이

양보없는 승벽속에 따뜻한 정 넘치네  
에루화 멋이로세 우리 마을 설풍경

온 마을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설명절  
사람들의 얼굴마다 웃음꽃핀 설명절  
장군님 사랑속에 민속전통 빛나니  
우리 마을 설명절은 깊은 밤을 모르네  
에루화 멋이로세 우리 마을 설풍경

## 재부에 대한 생각

사공일금

나의 외가는 북방의 인적드문 산촌에 자리잡고 있었다. 마을이래야 바투 마주한 산사이로 흐르는 개울을 따라 몇채밖에 안되는 집들이 드문드문 널려있어 어설피기 그지없는 산골마을이다.

어린 시절 한때를 나는 그곳에서 보냈다. 어려서 몸이 허약했던 나를 우리 집에 왔던 외할머니가 그곳으로 데려갔던 것이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약초밭을 가꾸며 산에 벌통을 놓아 꿀을 많이 내곤 하였다.

지금도 인정많은 그분들을 생각하면 짜하면서 도 달디단 꿀맛과 향기로우면서도 씩씩한 고려약 냄새가 깊은 정회속에 상기되곤 한다.

그와 함께 과묵하기 그지없는 외삼촌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물날은 작업복을 입고 어둑새벽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다가 밤별을 지게에 지고 집마당으로 들어서곤 하던 모습이다.

외삼촌은 그곳 산림감독원이었다.

그때 외가집 건너편에는 어찌된셈인지 몇대밖에 안되는 떨기나무가 자라는 바위투성이산이 있었는데 대체로 외삼촌은 거기에서 일을 하였다.

산에 올라 바위투성이땅을 깊숙이 파고 거기에서 거름을 내고 흙을 날라올려 나무모를 심곤 하였다. 그리고는 또 지게에 물통을 올려놓고 힘겹게 산으로 오르곤 하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산으로 오르내리는지 모른다.

외가집에는 작지 않은 언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남새나 줄당콩같은 작물이 아니라 여러 수종의 어린 나무모가 빼곡이 자라고있었다. 어느날 인가는 저녁에 지친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서서 외삼촌에게 외할머니가 측근한 목소리로 일렀다.

《셋째야 암만 해도 그 산엔 나무가 안될것 같구나. 옛날부터 그 모양대로 있는 산인데 그만 내버려두렴. 산림경영소에서도 그 산을 립지로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외삼촌은 내가 샘터에서 쪽박으로 떠온 물로 목을 적히고 맛나게 마시고는 빙긋 웃었다.

《어머니. 사람이 마음먹으면 안될 일이 없답니다.

그 산도 다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선령들이 피를 바쳐 지켜낸 땅인데 버릴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제 두고보십시오.》

《원, 사람두, 벌써 두해째 씨름질인데두...

그러다 몸에 탈이 날까 걱정이다.》

어쨌든 외삼촌은 다음날도 또 그다음날도 아침 일찍 그전날의 그 차림새로 산에 오르곤 하였으며 거기에서 무슨 일인가를 끊임없이 하곤 하였다.

세월이 많이 흘러 내가 인민군대로 나가기전이었다. 나는 이제는 퍼그나 늙으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 먼길을 떠났었다.

기차와 배스를 갈아타며 이틀만에 외가에 당도하니 그곳에서는 레년에 보기드문 폭우가 내려 개울물이 넘칠듯 불어나서 산기슭이 패여져 나무뿌리가 드러났다.

로인들은 몰라보게 성장한 나를 얼싸안고 기뻐하더니 이어 나의 등을 떠밀었다.

《네 외삼촌이 종일도록 저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누나. 이번 폭우때문인 모양이더라.

네가 좀 도와주렴...》

나는 외삼촌을 찾아 산으로 올랐다.

오르면서 걸음걸음 커다란 놀라움속에 잠겼다. 어렸을 때 바위투성이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산에 이제는 제법 키를 넘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있지 않는가. 일매지게 렬을 지은 잣나무, 전나무며 아카시아나무들과 그 나무들사이에 또 새롭게 자라는 어린 나무들...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외삼촌은 사래로 땅이 움푹 패인 곳에서 나를 맞았다. 오랜 회포끝에 외삼촌은 나를 사래로 하여 뿌리가 반나마 드러난 잣나무앞에 세워주었다.

《보아라. 이만한 사래에도 넘어지지 않았구나.》 외삼촌은 나무줄기에 손을 얹고 나를 돌아보았다. 외삼촌의 얼굴에는 시련을 이겨낸 혈육에 대한 장한 마음과 같은 만족스러운 웃음이 어려있었다.

나는 외삼촌이 가리키는 잣나무의 뿌리를 여겨보았다. 꽤 굵직한 뿌리가 여러 갈래로 가지를 치며 땅속깊이 뻗어있었다. 때마침 산마루로 불어치는 바람에 나무가지가 춤추듯 설레었다.

그러자 뿌리가 팽팽히 행기워지면서 우쭐우쭐 소리를 내었다. 나는 그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가만히 손을 내밀어 뿌리를 잡아보았다.

묵직한 힘이 손을 통해 온몸에 퍼져갔다.

나는 불안한 까닭없이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끼며 머리를 들었다. 숲이, 온 산이 소리내어 설레이고있었다. 그 설레이속에 무거운 흙짐을 지고 산을 뚫아오르고 또 오르던 외삼촌의 땀에 절은 모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수억만년 다져질대로 다져지고 바위까지 겹친 불모의 땅을 10년 가까운 세월 그런 모습으로 걸구어 수천그루의 나무들이 뿌리내리게 한 외삼촌이다. 내 마음에는 설레이는 나무숲이 외삼촌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문득 이 산도 우리 수령님 찾아주시고 선령들이 피를 바쳐 지켜낸 조국땅이라고 스스로없이 되이던 외삼촌의 말이 새로운 의미속에 귀전을 쳤다.

나는 외삼촌에게로 돌아섰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나의 목소리는 커다란 존경심과 혈육의 정을 초월한 이름 못할 감정으로 뜨겁게 젖어있었다.

이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것에 대한 첫 체험이었던것 같다.

그때문인지 군사복무의 나날 행군길에서 무수히 지나온 푸른 숲들과 전야를 볼 때면 의례히 외삼촌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 땅 어디가나 어려있는 성실한 인간들의 땀어린 자취들을 생각깊은 눈길로 더듬어보곤하였다. 한창때에는 《이 땅의 재부는 어떻게 마련되는가》하는 시를 써보기도 하였다.

오늘도록 나는 때때로 선군의 기치높이 날리는 조국땅에 날로 풍성해지는 재부에 대한 생각에 잠기기를 즐겨한다.

재부란 무엇인가...

언젠가 우리말사전에서 재부에 대한 뜻풀이를 본 일이 있다. 우리말사전에는 재부란 물질적부 또는 원천으로 되는것이라고 써여있었다.

그때 나는 왜선지 그 단순한 개념적 해석이 놀랍게도 왜소해보여 다소 실망하기까지 하였다. 얼마전 외삼촌은 뜻밖에도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 들렸었다.

당에서 외삼촌을 선군시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대회에 불러주었던 것이다. 회의를 마치고 평양 시내 참관사업을 마친 날 늦은 저녁에야 집에 들렸던 외삼촌은 다음날 이른 아침 행장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집식구들이 굳이 만류하자 외삼촌은 조용히 웃음지으며 머리를 짓는 것이었다.

《...내가 한 일이 뭐 큰 일이라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내세워주고 아껴주시는지 그저 송구스럽기만 하구나... 그래서 빨리 떠나려나.》 이번엔 회의에 와보니 참, 일들을 많이 했더구나.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한몫 내대는 불같은 이들이야. 참, 우리 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구나...》

아무런 수식도 없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외삼촌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속에 커다란 충격을 느꼈다.

좋은 사람들...

언젠가 우리말사전을 펼쳐놓고 머리를 짓던 생각들이 들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좋은 사람들...

정말 우리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성실한 인간들이 살고있는가.

지하천객막장과 인적드문 두메산골 그리고 공

장과 농장별, 교정과 연구소들 그 어데가나 우리 장군님과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묵묵히 자기의 한생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볼수 있다.

그들에게는 사치나 향락, 그 어떤 대가따위는 인연이 없다. 오직 조국에 자그마한 보탬이 된다면 한몫이 그대로 불이 되어 짱그리 타버릴 때까지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긍지이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안으시고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중심으로 받드는 것이 가장 신성한 의무로, 량심으로 되고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철학이며 좌우명이다.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생관울지니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우리 장군님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팔과 열정을 다 바쳐가는 그들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재부중의 재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들이 어머니조국에 아낌없이 비치는 아름다운 열정과 고결한 량심은 우리 조국의 가장 진귀한 재부중의 재부인 것이다.

문득 외삼촌의 과묵스런 모습이 떠오른다.

그와 함께 우리 장군님께서 시대의 영웅으로 높이 내세워주신 숨은 영웅들과 숨은 공로자들 그리고 이 땅 어디가나 흔히 만날수 있는 성실하고 근면한 인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혀있다.

(조국은 언제나 동지들을 사랑할것입니다.)

##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에게

최남순

어머니-

별 많은 초소의 밤이면

어머니가 못내 그리워요

온 나라가 다 아는

《모성영웅》 나의 어머니

군복입은 이 딸은 인사드려요

어머니가 신문에 난 날

온 중대가 기뻐하며

나를 축하해주는데

나는 그만에야 웃었습니다

우릴 키운 어머니 사랑이며

내 자라온 고마움의 나날이 가슴에 안겨와

누군가 어머니들의 손은 늘 따뜻하다 했건만

서른세명 우리 형제들을 키운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차있었지요

찬물에 젖은 손 마른적 없이

우릴 내세우던 어머니

우리 마음도 그래서 늘 깨끗했던가봐요

어머니, 언제 편히 주무신 밤 있었나요

잊지 못해요 운동회를 앞둔 날이면

우리들 단잠을 깨울세라

부엌문 꼭 닫고 그릇소리마저 죽여가며

사랑으로 밤 새우던 어머니

그런 밤들이 있어 우리 아침은 언제나

즐거웠어요

새침데기 아홉째조차

엄마-하고 목에 매달리던 순간이

제일로 행복했다는 나의 어머니

생김새와 성격도 다른 자식들

군복입혀 초소로 떠나보내며

어머니는 우리를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운것 아닙니까

그 나날 아낌없이 바쳐온

남모르는 수고까지 다 헤아려

아버이장군님

오늘은 어머니를

세상이 다 아는 영웅으로 내세워주셨으니

아, 어머니의 딸은 행복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초소에 선 자식이라면

누구나 종대처럼 곧게 살것이니

어머니와 함께 우릴 키운

고마운 내 나라의 인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어찌 전호에서 한목숨 아끼겠나이까

영웅어머니의 자식답게

우리모두가 영웅이 되는 날엔

나라의 어엿한 기둥이 된 우리모두가

정녕 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어머니 인생의 아름다운 꽃다발이옵니다

아, 초소에 별 많은 밤

어머니, 저 별들이

우리 가슴에 빛나야 할

위훈을 속삭여주는군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우리 돌아갈 그날을

장군님께 더 큰 기쁨 드릴 래일을

## 송고한 그 뜻에 받들려

리수덕

혁신의 불바람속에 날이 밝고 위훈의 노래속에 날이 저무는 여기 대안천선유리공장건설장에 또 하루 보람찬 창조의 새날이 밝았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그날부터 남포시에술단의 경제선동대성원들속에 어울려 현실체험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나는 오늘도 용해장건설장의 전투원들과 함께 축조작업을 하다가 불현듯 큰길과 잇닿은 건설장입구에서 울리는 환영곡소리, 청높은 방송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한마음 안고 달려온 일군들과 지원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호기심을 안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파연 건설장안팎은 중앙과 지방의 여러 단위들에서 보내온 지원물자를 실은 화물자동차들과 지원자들로 붐비고있었다.

이때 나는 유표나게 깨끗한 자갈을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에 흥미를 품고 다가서다가 운전칸에서 방금 내리는 한 아바이와 문득 시선이 마주쳤다.

그 로인은 남포시의 유리선거리에 살고있었는데 한때는 유리공장에서 한다하는 고급기능공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어서 나와 얼마간의 친분이 있었다.

그는 내가 눈인사를 하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고 묻자 나의 손을 덥석 잡은채 대안천선유리공장전경도가 서있는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며 이렇게 말머리를 뻗었다.

《저렇게 훌륭한 유리공장이 여기 대안땅에 일떠서는데 우리 유리선거리의 동주민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소. 공장건설에 요긴하게 써달라고 대동강가에서 알알이 고르고 골라서 보내온 깨끗한 자갈이요. 검불 하나, 흙 한점 섞일세라 대여섯차례나 씻고 닦은거라오.》

파연 적재함에 그들먹하게 실린 자갈은 아직도 물기를 머금은듯 해빛에 반짝이고있었다.

이윽고 로인은 그윽한 미소를 머금은채 공장전경도를 점도록 지켜보다가 혼자소리런듯 이렇게 말했다.

《저처럼 훌륭한 현대적인 공장을 1년남짓한 기간에 완공한다니 꿈만 같구만.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완공된 이 공장을 찾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아마 그때도 장군님

께서는 우리 나라 유리공업을 추세우시려 바치신 수령님의 로고를 헤아리시며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겠소.》

흥분된 음성으로 여기까지 말하고난 로인은 저 멀리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한동안 말없이 우러르다가 경애하는 장군님과 어버이수령님을 이전 남포유리공장의 자기 일터에 모시였던 못잊을 그날의 사연을 감회깊이 이야기했다.

그것은 1960년대 초엽의 그 어느 겨울날이었다. 맵짠 추위도 무릅쓰시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남포유리공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관유리직장과 광학유리직장, 제병직장을 돌아보시였다.

그때 한 작업장에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한 노동자가 힘겹게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가까이 다가서시어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얼마나 힘이 드는가하고 아프신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피로우신듯 곁에 있는 일군들에게 인민들을 하루빨리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하여야 한다고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문제가 아니라 로동자들에 대한 우리 일군들의 관점문제이며 사상문제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후 유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장군님의 송고한 그 뜻을 명심하고 기계화, 자동화의 비중을 훨씬 높여 어렵고 힘든 공정들을 개조하였다. 하건만 우리 인민, 우리의 로동계급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안땅에 새 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최첨단기술로 장비된 유리공업기지를 꾸리도록 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한없이 고결한 인간사랑에 가슴이 후터워져 더욱 밝아진듯 한 눈길로 들끓는 건설장의 드넓은 부지를 굽어보는 나의 뇌리에 그 무엇이 섬광인양 빛발쳤다.

공장구내에 부설할 철길로반썰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려고 맞들이만으로는 도무지 성차지 않아 질통에까지 흙을 가득 담아싣고 뛰고 달리는 군인건설자들, 용해장과 성형장의 기초콘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낸 그 기세로 기둥콘크리트치기작업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전투원들, 모래하선부두공사장과 주택건설장에서 혁신

의 노래,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울리는 기동예  
술선동대원들-

비록 작업장은 서로 달라도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하나의 지향과 소망으로 고동치는것  
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안천선유리공장을 현대적으로 일떠세  
워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 한결  
같은 열원이고 드팀없는 충정의 일념이다.

선군정치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여러차례나 이 공장 건설진행정  
형을 일일이 헤아리시여 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  
쳐나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건설자들  
의 생활조건까지 속속들이 보살펴주신 우리 장군  
님! 아버지장군님의 그 은정을 되새기며 나는 다  
시 넓은 공장건설장을 다감한 눈길로 굽어보았  
다,

보면 볼수록 준공된 그날의 공장전경이 금시  
눈앞에 안겨드는듯싶었다.

모래를 가득 싣고 쉬임없이 부두에 들이닿는  
화물선들에서 정답게 울리는 배고동소리며 원료  
혼합장에서 울리는 고르로운 기계의 동음소리가  
당장 귀전을 울리는듯싶었고 숨쉬는 용해장과 성  
형장, 서랭로를 거쳐 제품창고에 가득가득 쌓인  
각이한 규격의 관유리들이 손에 잡힐듯 안겨오는  
것만 같았다.

여기서 실려간 유리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펼  
쳐진 내나라의 웃음꽃핀 창가들에 행복의 황홀경  
으로 빛날 그 모습도 보이는듯 했다.

나는 준공의 그날을 앞당겨 경애하는 장군님을  
이 공장에 모실 영광의 날까지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갈 한마음 다잡으며 전투장으로 향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그 뜻을 받드는 마음  
과 마음들이 그대로 이곳 유리공장의 기초가 되  
고 벽체가 되고 지붕이 되어 선군시대의 현대적  
인 공장으로 완공될 환희의 그날을 눈앞에 그려  
보며...

## 대동강아, 네가 비껴안은것은...

장호건

밤하늘을 밝히며 쏟아져내리는  
장쾌한 용접불보라에 눈이 팔려  
내 미처 못보았던가  
희한하구나, 대동강아  
네 품이 온 건설장을 다 비껴안았구나

내 방금  
드넓은 용해장이 들어앉을 평판기초우에  
마지막철근기동을 박고  
긴 팔 내뻗친 탑식기중기운전실에서  
놀란 눈길로 너를 황홀히 굽어보나니

전설의 룡궁이면 너처럼 아름다울가  
한쪽 그림처럼 비졌구나, 네 물결우에  
솟아오르는 강관의 숲과  
무수한 강철대들보들  
그밑에 압송관을 들이대고  
혼합물을 쏟아내는 돌격대원들모습도...

비길데없이 아름답 찬 대화폭을 안아  
네 물결도 이 밤 기뻐 설레느냐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 나팔소리  
그 장단에 더 높아지는 전동기소리  
와릉와릉 떠드는 골재선별기소리뿐이라  
신호공쳐너들의 야무진 호각소리도 들으며...

들끓는 건설장 야경의 이 아름다움속에

잠들지 못하는 강아, 대동강아  
너도 알테지  
아버이장군님께  
준공의 보고올릴 그날을 향해  
혁신의 불길로만 가슴태우는 우리 마음...

알테지, 너도 알테지  
이 밤도 우리 장군님 저 멀리 전선길에서  
네 물결우에 비긴 우리 건설장에  
사랑과 믿음의 미소를 보내시며  
이제 폭포쳐나올 관유리흐름  
더 환해질 래일의 조국을 보시고계시리라는것을

아, 네 물결처럼 내 가슴도 설레누나  
풍치수려한 너의 이 기슭에  
조중친선으로 솟은  
먼 후날에도 손색없을 대안천선유리공장  
그 구내길을 걸으시며 환히 웃으실  
아버이장군님을 하루빨리 모시고싶어...

아아, 대동강아  
그래서 네 물결에 지금 자랑스레 비껴안은것은  
이 밤의 우리 건설자들 마음  
열정과 위훈의 불길로  
때아닌 폭우도 눈보라도 쫓아내며  
영광의 그날로만 내닫는 우리 기상이여라

# 대동강물결우에 장강의 모습 어렸네

류춘선

대동강물 굽이도는 대안땅  
에서 장강은 몇백리더나 몇천리더나  
오가는 정속에 일떠서는  
친선유리공장

축하공연무대우에  
장강의 노래울리니  
함께 일손 다그쳐온  
형제의 나라 벗들  
흥에 겨웠구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흐르는 장강  
너의 푸른 줄기줄기에  
조선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의  
피어린 뉘도 깃들어  
너의 노래 이 마음 적서주느냐

우리 수령님 펼쳐주신  
우의의 자랑찬 력사우에  
우리 장군님 꽃피우신  
친선의 새 역사를  
여기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서  
내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으니

아, 대안땅  
에서 장강은  
끝없이 멀고멀어도  
친선의 정 굽이쳐오는  
너의 용용한 물결소리 들려오누나  
너의 줄기찬 모습  
대동강물결우에 비껴흐르누나

## 대안의 새벽

김상조

서서히 걸히는 강변의 젖빛안개  
치솟아오르는 용해로장의 철기둥숲  
그 너머로 휘뿔히 밝아오는  
새벽빛의 푸르름

새날의 마중 서두르는가  
불야경의 건설장-  
용접의 섬광 하늘가득 번뜩이고  
달리는 수송차들도 전조등 한껏 밝히네

몸에 안전띠 두르고  
아찔한 용해로철골발판에 올라  
장밤 철기둥조립 끝낸 기쁨이여  
달아오른 용접면 벗어들고  
구슬땀 흘치며 새벽하늘 바라보는 멋이여

밤새 나를 지켜준 기증기운전공  
반백의 기업소당일군  
장군님 그리움의 노래 부르고 또 불러준  
방송원처녀

저 멀리 손저어 반겨주는 군인건설자들에게도  
진정 고마움의 인사 드리고싶구나

장군님 펼쳐주신 설계도의 한길따라  
완공의 그날에로 그날에로 달리는 마음  
한몸 그대로  
여기 대안친선유리공장건설장에  
꺼지지 않는 화불 되고싶어라

오, 밝아온 대안의 새벽이여  
너는 정녕  
밤하늘 태우는 충정의 불길로 뉘으로  
피끓는 심장의 열도로 당겨맞은 새날이여라

이제 이 새벽 넘어  
또다시 위훈의 용접불보라 날리리라  
시운전의 불 앞당겨 지펴올리고  
조업의 날, 끝없이 흐르는 유리제품마다에  
대안의 새벽빛 진하게 새겨넣으리라!





# 채 쏘지 못한 총한

한웅빈

## 2. 중대의 일제사격

1950년 겨울 우리 중대는 아군의 섬멸전에서 겨우 살아남은 적들을 추격하며 재진공의 길에 올랐다.

력사에서는 그때를 조국해방전쟁 제3제단이라고 부른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중대는 제2제대에 속해있어서 전투를 치러보지 못한채 1제대 부대들이 해방시킨 지역을 통과해가고있었다.

그러나 재진공의 길에 오른 병사의 기분과 궁지가 그것으로 떨어질수는 없었다. 승리한 병사, 옛날 말대로 하면 개선장군이였다. 길가의 집들에서 반겨주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면 키가 두세배 커지는듯 했고 걸음도 날아갈듯 가벼웠고 힘차졌다.

북부내륙지대여서 십리오리에 집이 하나씩 있는것이 섭섭했다.

우리는 모두 마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아들손자처럼 맞아줄 늙은이들, 눈물이 흐르고 그만큼 인정도 많은 아낙네들, 호기심과 수줍음에 찬 처녀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쳐다볼 아이들, 그들속에 묻혀 재진공의 기쁨을 나누어보고 싶었다.

드디어 마을이 앞에 나타났다. 아직은 중대장의 지도상으로였으나 20~30호가량되는 마을이였다. 산간지대치고는 작다고 할수 없는 마을이였다.

중대장은 중대에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북장작용을 제대로 할것을 명령하였다. 그 명령은 우리모두의 마음에 들었다.

마을이 가까와왔을 때 우리는 이미 복장도 제대로 바로잡았고 장구류들도 제식대로 메고있었다. 걸음도 점점 더 빨라졌다.

흰눈이 두툼하고 포근한 이불처럼 소담하게 덮인 농가지붕, 나지막한 굴뚝에서 입김처럼 피어오르는 연기, 집집마다에서 흘러나올 구수한 토장국냄새, 처음은 소란스레 잣어대다가 안주인들의 치마자락옆에서 꼬리를 저어줄 개들, (개들은 안주인을 낚는 법이다.) 그 모든것이 우리를 마중해오는듯 했다...

그러나 지도상에 표기되어있던 그 마을에서 우리를 맞아준것은 마을의 흔적뿐이였다. 재만 남은 집자리들, 꺼렇게 된 벽체들... 그 무엇도 우리를 맞아주는것은 없었다. 무너진 벽체사이에서 여윌대로 여윌 겁에 질린 개 한마리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을뿐이였다. 갈비뼈가 드러난 개의 꼬리에는 우웁씨가 더덕더덕 붙어있었다.

우리는 묵묵히 서있었다. 패허의 여기저기에는 불에 그슬린 굴뚝들만이 마을의 마지막 파수병인듯 침울하게 서있었다.

우리는 그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끝없이 음울한 풍경을 완성하듯 차거운 겨울해가 산너머로 사라지고 재빛황혼이 패허를 덮기 시작했다.

《앞으로 갓!》

중대장의 구령에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밭밑에서 뿌적뿌적 연논의 소란한 소리,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 하나의 생각을 하고있었다. 마을은 모조리 불타버렸는데 그러면 마을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어디로 피난을 가서 아직 재진공이 시작된것을 모르고있는것이나 아닐까.

문득 이제라도 때늦게 알고 달려나올것만 같은 생각에 나는 마음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재빛황혼이 덮인 마을에서 보이는것은 부동의 자세로 서있는 굴뚝들뿐이였다.

길은 우리를 잠판목이 우거진 야산기슭으로 이끌어갔다.

군화밑에서 뿌적뿌적 연논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대렬의 침묵을 더 짙게 하고있었다.

찬바람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무거운 정적속에 까딱 앓고 늘어서있었다. 그것은 한겨울의 추위에 대기와 함께 얼어붙어버린듯 했다. 추위는 몹시 맵찔다.

대기는 온통 성에조각으로 가득찬듯 했고 바람은 무수한 바늘을 품은듯 얼굴을 콧코 찔러댔다. 이제는 얼얼해져서 바늘로 찌르는듯 한 감촉도 느낄수 없었다. 총신을 쥐면 장갑이 딱딱 달라붙었다.

우리가 마을이 있던 자리에서 지체하는 사이 박격포 포차대렬이 따라왔고 앞서가기 시작했다. 어느때라면 절죽한 통담과 시까스르는 말들이 오갔을 상봉이었으나 이때는 한마디 오감도 없이 지나가버렸다. 어느편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도 불타서 굴뚝만남은 마을을 보았을것이다.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그 마을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가. 사람이란 살아있으면 아무리 집이 폐허로 되었다 해도 다시 찾아오는 법이다. 그러나 마을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설마 마을사람들이 모두...그러나 마을에는 단 한사람의 시체도 없지 않았는가.

때때로 앞서서 지나가는 자동차며 포차의 전조등불빛이 잠판목숨을 켜지르며 비치곤 했다. 그럴 때면 그물처럼 뒤엎힌 잠판목가지들과 그 아래의 흰 눈, 눈우에 널린 빈 통줄임통과 여기저기 덩구는 적 철갑모들이 드러나곤 했다. 불빛이 행군대오를 스쳐갈 때면 전사들의 입에서마다 뿜겨나오는 흰 입김이 포구에서 뿜어나오는 포연처럼 대기중으로 터져오르곤 했다.

문득 옆에서 걷던 전사가 나의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상동병동지, 저기 잠판목속에 사람이 숨어있는것 같습니다.》

《어데?》

그는 며칠전에 입대한 량강도 산골내기 전사였다. 그의 고향마을까지는 적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하도 산골이어서 적들을 보기는커녕 적비행기의 《폭격세례》도 받아보지 못한 친구였다.

그런데 생활에는 항상 우연적인 일치가 있는것인지 그는 이름이 락동강에서 전사한 순재상등병과 같은 순재였고 게다가 키도 순재상등병처럼 꺾두룩했는데 오히려 순재상등병보다 더 큰 축이였다.

중대에서는 그를 첫날부터 《작은순재》라고 불렀다. 코는 물론 순재상등병에 대해 전혀 알수 없었고 처음에는 자기 키가 멋없이 꺾두룩하다고 해서 놀려주느라고 그렇게 부르는줄로 알았다.

그러나 며칠 지나도록 그냥 《작은순재》로 부르지 화를 내며 항의했다.

《절 왜 <작은순재> 라고 놀려줍니까? 내가 무슨 아입니까?》

중대장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 중대에는 순재라고 하는 동무가 있었소. 락동강에서 전사했지. 그 동무와 구별하느라고 동물 <작은순재>라고 부르는거요.》

《그 동지는 저보다 더 컸는가요?》

《아니. 동무가 더 큰 편이요.》

《그런데 왜 절 <작은순재>라고 하는겁니까?》

《동무가 더 큰건 사실이요. 그러나 어떻게든 동무는 <작은순재>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길동무!》

중대장은 나에게 명령했다.

《이 동무에게 순재상등병에 대해 좀 이야기해주오.》

나는 명령대로 하였다. 순재상등병과의 이야기,

그의 매력, 그의 수첩, 그가 숨진 후에도 그의 손에서 그냥 불을 뿜던 경기관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말했다.

《동무가 <작은순재>라는 이름이 정 싫다면 다르게 부르도록 하자구.》

그러자 그는 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상동병동지, 절 그냥 <작은순재>라고 불러주십시오. 제 진짜 <작은순재>가 되겠습니다.》

맹세는 그렇게 했으나 전투원으로서의 형편없는 얼뜨기였다. 총소리만 나면 얼굴색이 창백해졌고 당황하여 목을 움츠리고 허둥거렸다. 겁이 꽤 많은 축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도 따르지 못할 장점이 있었는데 산골내기답게 눈과 귀가 여간만 밝지 않아 자그마한 흔적도 놓치지 않았고 사소한 소음에서도 그 무엇인가를 포착하곤 했다.

이때도 그는 산골사람의 고유한 밝은 눈으로 잠판목속에 숨은 사람의 형체를 발견해낸것이였다. 나는 이런 일에서는 그의 말을 믿을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눈여겨보았다. 다행히도 포차들이 지나가며 잠판목속을 비쳐주었다. 잠판목가지들을 켜지르며 비치는 전조등불빛에 분명 옷자락같은것이 눈에 띄었다.

(무엇일까? 정말 사람일까.)

나는 잠판목속을 지켜보았다. 다시 전조등불빛이 잠판목들사이를 훑으며 지나갔다. 이번에는 똑똑히 볼수 있었다. 《작은순재》가 수군거렸다.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녀자같습니다.》

틀림없는 사람이였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녀자가 분명하였다. 치마저고리를 입었는데 잠판목속에 조그맣게 웅크린 자세로 몸을 숨기고있었다.

나는 중대장에게 보고했다.

《중대장동지, 저기 어떤 녀자가 숨어있는것 같습니다.》

《녀자가?》

중대장은 놀란 얼굴로 그곳을 지켜보더니 나에게 머리를 끄떡해보였다.

《가보오. <작은순재>와 함께.》

《알았습니다!》

뒤에서 중대장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함부로 총을 쏘지 마오!》

중대장은 거의 말끝마다 탄알을 아끼라는 말을 빼놓는적이 거의 없었다.

《총알 한발에 원주 한돔! 두놈이면 더 좋고!》

며칠전 나는 패잔병들에게 위협사격을 가했다가 중대장에게 눈물이 쑥 나올 정도로 욕을 먹었다. 그 전투에서 수십명의 미군을 포로했으나 중대장의 격분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수십발도 아닌 일곱발인가를 쏘았을뿐인데 중대장은 수백발이라도 마구 썩버린듯 격분해서 말했다.

《그게 어떤 총알이기에 공중에다 뿌려던져? 한알한알을 자기 생명처럼 아껴야지! 우리가 왜 락동강까지 갔다가, 남해까지 다 갔다가 후퇴했는지 모르는가? 총이 없어서, 총탄이 없어서 돌아섰단 말이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처음 나는 중대장이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일곱발이 도대체 뭐라구... 그러나 락동강소리까지 나오자 그만 저도모르게 눈물이 쏟아져나왔다. 그때부터 나는 방아쇠에 함부로 손을 가져갈수 없었다. 나는 뒤에서 따라오는 《작은순재》에게 물었다.

《장탄을 했나? 안전장치도 풀고?》

《예? 예. 예.》

당황해하는 대답을 들었으나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을것이기때문이었다. 이틀전 폐잔병들과 접전이 붙었을 때 그는 나의 옆에 있었다. 그때는 우리 본대가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본대사격!》 구령이 내렸는데도 그의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돌아보니 방아쇠는 당기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왜 총을 쏘지 않아?》

《총이 고, 고장났습니다.》

《뭐?》

탄피가 약통실에 가로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나는 그의 총을 받아 격발기를 당겨보았다. 그러자 기가 막혔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장탄할것을 잊고 그냥 방아쇠만 당겼던것이다.

내가 격발기를 당겨서야 총탄이 절걱하고 약통실에 들어갔다.

나는 소리쳤다.

《장탄도 안하고 총이 고장났다구? <바보>!》

《예?》

나는 그에게 장탄된 총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전투》가 끝났을 때였다. 적들은 총성 몇방에 두손을 들고 기어나온것이였다.

그러다보니 《작은순재》는 총을 한방도 쏘보지 못하고말았다. 나는 그날 그를 톡톡히 혼썰내주었다.

《장탄도 안하고 적과 맞서는게 무슨 병사야? 병사는 적들의 총탄에 총탄으로 대답하는 사람이야! 적들에겐 총탄으로만 대답을 주어야 한단 말이야! 앞에 있는게 어떤 원수들인지 몰라? 눈에서 불이 일지 않는가 말이야?! <바보>!》

다시 행군을 시작했을 때 그는 한동안 묵묵히 걸더니 주춤주춤하다가 물었다.

《상등병동지, 제가 겁쟁이지요?》

《아니야.》

나는 그때는 이미 분노가 가라앉아있었다.

《동문 그제 당황했을뿐이야. 팬찮아.》

순재상등병의 《팬찮아.》하던 말버릇은 어느사이엔지 나의것으로 되어있었다.

《조선인민군 병사가 겁쟁일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

《...》

그는 묵묵히 걸더니 얼마후 불쑥 말했다.

《전 아직 조선인민군 병사가 못된것 같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적에게 총을 쏘보지 못한 병사가 무슨 병삽니까?》

《허어?-》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그 말에 감탄한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길옆에 서서 중대를 지나보내던 중대장이 그 말을 들었다.

《영똥한데? 그럴듯 해!》 하고 감탄하던 그는 우리와 함께 걸으며 불쑥 말했다.

《그러니 <작은순재>동무의...》

그는 반드시 《작은순재》라고 불렀다.

《리론대로 하면 나도 아직은 중대장이 아니고 우리 중대도 아직은 중대가 아니구만, 응?》

《예?》

중대장은 부대가 재편성되었을 때 임명되어온 지휘관이었다. 1차 진공때는 우리 소대장이였다. 우리 중대도 지금은 백수십명의 완전한 대오였으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끝냈을 때는 겨우 50명밖에 남지 않았었다.

중대장은 계속 말했다.

《그렇단 말이야. 나는 중대장이 되었어도 아직 중대전투는커녕 <중대 일제 사격>구령도 못쳐봤거든. 그러니 아직 중대장일수 없지. 중대는 또 아직 적들에게 일제사격도 못해보았으니 중대일수가 없고.》

《아니, 저 중대장동지...》

《작은순재》의 당황한 말에 중대장은 그의 어깨를 톡 쳐주고 앞으로 나가며 말했다.

《걱정마오. 동무도 중대장도 중대도 다 진짜로 될 때가 인차 올테니!》

그리고보면 우리는 아직 《중대로 되지 못한》 중대채로 걸고있는셈이였다. 중대로 될 시각을 기다리며...

《작은순재》는 아직 한방도 쏘보지 못한 총을 들고 내뒤통을 바짝 따라오고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가 들고있는 총역시 아직은 총이 아닌 셈이였다.

뒤에서 그가 조심스레 격발기를 절그럭거려보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안심치 않아 총에 장탄이 되려는가를 확인해보는것이 틀림없었다.

연나무가지들이 발밑에서 소리를 내며 부러졌고 우로 쳐들린 아이들은 회초리처럼 얼굴을 후려갈겼다. 이상한 녀자의 너털발자국옆에 이르렀을 때 전조등불빛이 다시 한번 그곳을 훑으며 지나갔다.

그러자 나는 깜짝 놀랐다. 《작은순재》는 더욱 놀란것 같았다. 그의 발걸음소리가 딱 멎었던것이다. 숨어있는것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어린 소녀애였기때문이었다. 웅크리고 앉은채 꼼짝 않고 길을 내다보고 있었다.

웬 아이일까? 왜 이런 춥고 깊은 밤에 이런 곳에 몸을 숨기고 있어있을까? 불타버렸던 마을, 혹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곳 어디엔가 숨어있는것이 아닐까 미제놈들이 쫓겨갔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아직 가닿지 못했을수도 있다. 나는 아버지가 8. 15해방소식을 한주일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던 이야기를 기억하고있었다.

《<징병>을 피해 산에 들어가 숨어있다보니 나라가 해방될줄도 몰랐구나.》

그럴수도 있다. 아이는 호기심으로 이곳에 나왔을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곧 머리를 흔들었다.

저런 어린 소녀가 혼자 이런 곳에 밤에 나와 있을수는 없었다.

혹시... 그의 주위에 누가 또 있거나 않을까.

《주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애 혼자입니다.》

《작은순재》가 귀에다 대고 수군거렸다. 그는 나의 생각을 예민하게 알아차린것이었다.

그의 말은 틀림없었다. 주위에서는 다른 기미를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틀림없이 소녀에는 혼자였다. 웬 아이일까...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한걸음 또 한걸음 다가갔다. 발밑에서 나무가 지가 딱 하는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총소리보다 더 요란스럽게 들렸다.

그러나 소녀는 그냥 꼼짝않고 앉아있었다. 이상했다. 우리가 옆에 다가섰을 때도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길로 흘러가는 대렬과 언뜻거리는 전조등불빛만을 보고있었다. 소녀의 머리칼속에서 하얀 성애가 유리조각처럼 반짝거렸다.

《애야!》

나는 조심스레 불러보았다. 그러나 아무 반응도 없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혹시 귀가 먼것이 아닐까. 그럴수도 있다. 전쟁의 몇달동안 나는 너무도 많은 불행을 보았다. 평시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불행을 전쟁은 레사로운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애야.》

나는 아이를 놀래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부르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넌 왜 여기에 앉아있느냐. 이렇게 추운 밤에...》

나는 아이의 머리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순간 손바닥에 전해오는 열음보다 더 굳고 차거운 감촉에 심장이 탁 하고 멎어버리는듯 했다.

그 애에게는 한점의 숨결도 온기도 없었다. 죽은 애였다!...

나와 《작은순재》는 그앞에 굳어져서 서있기만 했다.

두손을 가슴에 꼭 모아쥐고 쪼그리고 앉은채 엎어져 굳어진 어린 소녀, 여섯살이나 되었을가...

《상길동무!- 순재!-》

중대장의 불안해하는 부름에 나는 소녀를 안고 일어섰다.

《상등병동지, 제가》

《작은순재》가 손을 내밀었으나 나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비칠비칠 길쪽으로 걸어내려갔다. 중대는 멈춰서있었다. 중대장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됐소? 그게 뭐요?》

《...》

나는 소녀애를 내려놓으려 했다. 그러나 차거운 눈우에는 차마 내려놓을수 없었다.

《작은순재》가 배낭에서 모포를 꺼내여 펴놓았다.

나는 그우에 소녀애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소녀는 아까의 그 자세대로 앉았다. 동그스름한 얼굴, 곱게 땅은 머리, 두눈은 자는듯 꼭 감았고 입도 꼭 다물었다, 눈섭에서는 성애가 반짝거

리고있었다. 하여 마치 눈섭이 파들과들 떠는듯 했다.

금시 《아저씨!》하고 부를듯싶어지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방긋이 떠오른 미소가 그대로 굳어져있었다.

모두들 한순간에 얼어버린듯 그앞에 서있었다. 《작은순재》가 찬바람에 숨이 막힌듯 흑-소리를 냈다. 소녀의 앞에 물러선 중대의 군화발밑에서 얼음덩어리들이 뿌지직거리며 부서져나갔다. 이제까지 무수한 주검을 보아온 우리였다. 나였다.

그러나 그 어린것의 모습만은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었다. 쪼그마한 얼굴에 떠있는 가냘픈 미소가 가슴을 에이는듯 아프게 했다.

《이 애가 왜 그곳에 앉아있었을까?...》

《작은순재》의 흐느끼는듯 한 물음이었다.

물음에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대답해줄수 있는것은 소녀뿐이었다. 그러나 소녀의 얼굴은 우리의 의문에 대답을 줄대신 다른 말을 하고있었다.

《아저씨들, 왜 이제야 오나요?》

음성은 없었으나 소녀는 그 말을 하고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말을 다 들었다. 왜 이제야 오나요? 소리없는 말, 음성없는 말... 가슴에 모아진 두손에 무엇인가를 꼭 틀어쥐고있었다. 저고리고름이었다. 너무나도 꼭 쉬고있어 손안에서 뿔아낼수 없었다.

중대장이 소녀를 모포에 싸서 안고 일어섰다.

《가다가 휴식할 때 물어줍시다.》

분노와 슬픔... 중대는 묵묵히 걸었다.

중대장의 뒤에서 따라걸으며 나는 가슴허비는 의욕으로 몸부림쳤다. 그 애는 왜 그곳에 앉아있었을까. 무엇때문에? 그 어린 녀이 기다린것은 무엇이었을까? 저고리고름은 왜 손에 쥐고있었을까...

적후로부터 적들의 만행현장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중대 셋!》

중대장이 말했다.

《거기에 이 애의 어머니가 있을수 있소. 찾아봅시다. 이 저고리고름의 임자를...》

순간 나는 소녀가 왜 그곳에 앉은채 굳어져야 했는가를 깨달았다.

그 애는 어머니를 기다렸을것이다. 적들에게 끌려간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것이다.

적들의 만행현장에는 무수한 주검이 줄줄이 누워있었다. 늙은이, 녀성들, 아이들... 남녀로소가 다 있었다. 불타버린 마을의 주민들이었다. 적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끌고 가다가 이곳에서 집단적으로 학살한것이었다.

그 주검들속에서 치마저고리차림을 한 소녀의 어머니를 찾아냈다. 그의 저고리에는 한쪽 고름이 없었다.

《이 애를 여기에 함께 물어줍시다.》

날카로운 보병삽날은 언땅이 아니라 가슴을 찌아내는듯 했다.

적들에게 끌려가던 젊은 어머니는 어린 딸애라도 살리려고 그 애를 관목숲속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여기에 숨어있다가 마을로 가거라. 엄마가 돌아올테니, 응? 저놈들의 눈에 띄면 안된다 꼭 숨어있어라.》

떨어지지 않으려고 옷고름에 매달린 어린 딸의 손에 저고리고름을 남겨놓고 녀인은 끌려갔을 것이다. 하여 소녀는 그곳에 남아 마을로 갈대신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리라.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부르지도 못하고 소리를 죽여 울면서 기다렸으리라. 마음속으로 《엄마》를 부르며 울고울던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잠들어버렸을 것이다. 어머니의 젖내와 온기가 담긴 옷고름을 꼭 쥔채 영원히, 영원히 잠들어버렸을 것이다...

눈을 감은채 방긋이 짓고있는 가냘픈 미소, 주먹만한 조그마한 얼굴, 이 어린 녀는 영원히 잠드는 그 순간에 어머니를 보았던것일까.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어머니를 꿈속에서 보며 미소를 지은채 잠들어있었던것일까...

아, 만일, 만일. 나는 모서리가 칼날같은 언 흙덩어리를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그 모서리들은 손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찌르고 들어왔다. 진정 그런 꿈속에 있었다면 부디 현실이 꿈으로 되고 순간의 가냘픈 꿈이 지나간 현실로 되라!...

어머니와 딸을 나란히 눕혔다. 눈을 감지 못한 어머니의 고통에 찬 얼굴, 눈을 감은채 방긋이 미소를 짓고있는 조그마한 얼굴...

나의 손에서 언 흙덩어리가 산산이 부스러졌다.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있었다. 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살륙한자들에게 백년 천년 영원한 저주가 있으라!

재진공의 길에 올랐다고 하여, 승리한 병사라고 하여 《개신장군》 인것이 아니였다.

아, 병사의 한결음, 한결음이 단순한 전진과 후퇴가 아니였음을 내 왜 몰랐던가.

병사가 한결음 물러서면 그 물러선 한결음에서 얼마나 많은 인민들의 피가 흐르는것인가.

두번 다시는 한발자국도, 단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앞으로, 오직 앞으로, 쓰러져 죽어도 앞으로 쓰러져 땅을 그어안고 죽으리라. 인민의 피가 고이는 발자국 자리를 이 땅에 더는 찌지 않으리라...

터드럭터드럭 하는 수십의 어지러운 발자국소리가 앞에서 들렸다. 머리를 든 나는 벌떡 일어섰다. 바로 그놈들이, 수많은 인민들의 살인자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리를 지어 우묵한 눈을 희번덕거리며 오고 있었다. 미군병정들이였다.

《개새끼들!》

어깨우의 총구가 저절로 휙 앞으로 돌아왔다.

《작은순재》의 총구도 그자들에게로 휙 돌아갔다.

《상길이! 순재!》

중대장의 손이 나와 《작은순재》를 쇠집게처럼 들어잡았다.

《우리의 총은 저런 산송장들을 쏘는 총이 아니야! 저런것들한테 쏠 총알은 없단 말이야!》

그것은 포로들이였다. 《작은순재》의 총잡은 손에서 우드득 뼈마디 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몸을 떨었다.

포로, 산송장, 허나! 바로 저것들이 방금전까지의 살인귀들이 아니란 말인가! 살인귀! 살인귀!

중대장의 눈에서도 불이 뿜뿜 일고있었다. 그의 떨리는 손이 권총집을 더듬었다. 권총을 뽑아들었다. 입에서는 흰 입김이 포연처럼 터져나왔다.

《중대, 사격준비!-》

철컹! 백수십개의 격발기가 날카로운 금속성으로 언 대기를 깨뜨렸다.

일제히 쳐들리는 백수십의 총구앞에서 적포로들은 공포에 질려 굳어져버렸다.

그러나 총구는 그들을 지나 하늘로 쳐들렸다.

《중대- 쏙!-》

일제히 터져오르는 백수십정 보총의 일제사격, 《작은순재》의 총에서도 불빛이 번쩍 하였다. 그의 총에서 발사되는 첫 총탄이였다.

《쏙!-》

또 한차례 중대의 일제사격.

《쏙!-》

다시 한차례의 일제사격.

그것이 재진공의 길에서 있는 우리 중대의 첫 일제사격이였다.

나는 중대의 일제사격이 이렇게 있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백수십개의 총구에서 일제히 터져오르는 불빛과 총성, 허나 나는 그 총성을 듣지 못했다.

백수십개의 총구에서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총구를 튀어나간 총알이 나의 심장으로 돌아와 깊숙이 장진되는 격렬한 고통만을 똑똑히 느꼈다.

《작은순재》의 눈물에 젖은 얼굴로 초연이 흘러가고있었다. 이것은 그의 첫 사격이였다. 그가 병사로 태어나게 한 첫 사격이였다...

×

아, 그때의 아프던 가슴. 우리는 걸음걸음 무자비한 복수전의 시각을 일일천추로 갈망했다.

그 시각은 이틀후에 닥쳐왔다. 재진공의 길을 지체시키려는 미군대대와 격전이였다. 그것은 문자그대로 무자비한 복수전이였다.

부대의 전투기록장에 《통패한 섬멸전》이라고 기록된 전투였다. 통패한 섬멸전, 그렇다. 단 한명의 적도 빠져나가지 못한 철저한 섬멸전이였다.

그러나 그 《통패한 섬멸전》이 있는 전장을 떠나는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저려들었다. 심장속의 적에게 쏘아보여야 할 총탄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 도 립

최준경

고구려 장수왕때의 가을 어느날이었다.  
한낮의 피약볕에 한껏 달아오른 대지를 적시며 강물은 서서히 흘러가고있다. 그 물결에 실려 매생이 한척이 소리없이 미끄러져가고있다.

이쪽은 고구려요 저쪽은 백제땅이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수천년전에는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는 구별이 없는 하나의 강역이었다. 현대 언제부터였는지 이쪽과 저쪽사이에는 아래방과 옷방을 가르는 새문의 턱파도 같은것이 생겨났다.

그러니 그 강은 결국 그 문턱과도 같은것이다.  
지금 한 사나이가 이편기슭에 서서 멀어져가는 매생이를 한가스레 바라보고있다. 아니 그저 바라보는것이 아니라 깊은 상념에 잠겨있다. 그는 추억의 배를 거슬러올리고있었다.

온갖 꽃이 만발하던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지금처럼 그 사나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매생이에 몸을 실었다. 머리에는 비록 삿갓을 올려놓았지만 가사와 장삼을 걸친 차림새는 그가 까까머리증인을 대뜸 알아차리게 했다.

그 시각 고구려의 도읍 평양성의 곳곳에는 죄인을 잡아들이라는 방문이 나붙었다.

《중 도림은 불가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또 나라의 정사를 심히 야료하고 달아났다. 속히 잡아들여 죄를 따질지이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쭈군덕거렸다.  
《아니, 도림이라면 평양아근에서 한다하는 고평한 스님이 아니요.》

《그뿐이요. 임금에게 불법을 잘 가르쳐 총애를 받던 중이라고 하던데.》

《허, 그런 스님이 어찌다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소리군.》

사람들이 동정 절반, 의혹 절반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말 모를 일이었다. 하기는 알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이었다.

4세기 70년대 주동적인 유주진출로 고조선의 옛땅을 완전히 되찾고 서북방의 평토완정을 이룩한 고구려는 자기의 막강한 국력을 겨레와 강토를 통일하기 위한 삼국통일정책실현에로 지향시키고 이를 위해 427년 국내성 (집안)으로부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대용단을 내렸다.

평양천도이후 고구려의 삼국통일정책은 더욱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백제가 큰 장애로 되었다.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완강히 반항해나섰으며 어떤 때는 고구려의 남쪽변방을 들이치기

도 하였다.  
요즈음 고구려의 장수왕은 어떻게 하면 백제의 의기를 꺾을것인가 하는것을 두고 골머리를 썩이고있었다.

장수왕은 백제와 계산할것이 많았다.  
돌이켜보면 그의 증조부인 고국원왕이 남평양성에서 백제와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숨졌다.

아버지인 광개토왕시기에 이르러서는 백제의 기세를 꺾어놓고 백제의 도읍 한성에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기까지 하였다. 참말로 백제를 제압하고 대고구려의 위력을 떨치는데서 부왕의 공로가 컸다. 하기에 저 국내땅에 네길은 실히 될 통바위로 비석을 만들고 천수백자의 비문을 새겨넣어 부왕을 《광개토경평안호태왕》으로 만들어들리고 《국부민은》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잘 살다)의 시절로 찬양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자기는 선친의 뒤를 이어 룡상에 앉은지도 어언 수십년이 넘건만 부왕의 유업을 별로 떨치지 못하고있다. 기껏해서 평양천도를 단행한데 지나지 않는다.

천도한지도 50년이 되어오고 이제는 자리도 잡혔으니 의기를 날릴 때가 되었다.

한데 요즈음 백제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제법 우리의 남쪽 지경을 쳐들어오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짓눌러버리겠는가.

(그렇지, 백제왕의 허영심을 건드려보자. 듣자니 그가 너색을 좋아하고 오락에 빠졌다고 하던데.)

장수왕의 생각은 여기까지 미쳤다.  
바로 얼마전에 미인을 안해로 삼고있는 탓으로 개로왕에게 두눈을 억울하게 잃고 안해와 함께 고구려로 도망쳐온 도미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뇌리를 쳤던것이다.

하여 장수왕은 백제의 내부를 와해시키기로 작정하고 세작(간첩)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책임자를 물색했다.

그러던 어느날 도림이라는 중이 그 일을 맡겼노라고 자청해나섰다.

그로 말하면 평양의 어느 절간 주지로서 임금에게 불법에 대한 강연을 하는것으로 하여 임금의 각별한 총애를 받고있었다.

이날도 임금에게 불법강연을 하게 된 기회에 도림은 장수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무아미타불. 예로부터 결초보은이라 하여

은혜에 보답이 뒤따라야 함은 인간살이의 당연지사라 일러옵니다. 소승은 원래 불도를 잘 알지 못하는터인데 대왕께옵서는 소승의 불민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소승의 미흡한 강연을 즐겨들으시며 통승한 은총을 베푸시니 소승으로서는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래서 소승이 생각한바를 아뢰고저 하나이다.》

《그 생각한바란 무엇이요. 어서 말해보요.》

장수왕은 고령의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다급히 재촉했다. 그는 80을 넘긴 몸이었다.

《소승이 근간에 불법전습을 위해 백제땅에 다녀온 일이 있사온데 거기서 들으니 지금 백제임금은 정사에는 별로 생각이 없고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며 그것으로 세월을 보낸다고 말들이 많소이다. 거기에서 그의 성정이 사치를 즐긴다 하니 이것을 건드려 먼저 백제의 국경을 어지럽게 하는것이 어떠하온지.》

《옳거니, 국정이 어지러워지면 민심이 돌아서 기마련이어늘 민심을 잃고야 나라를 어찌 보존하겠소. 파시 고견이요. 짐의 생각과 신통히도 같소.》

《실로 황공하기 그지없소이다. 외람된 청이오나 대왕께옵서 신을 어리석다 아니하시고 그 소임을 받기신다면 결코 어명을 욕되게 하지 않겠소이다.》

장수왕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대업을 앞에 두고 고심하던터에 기묘한 계책을 얻어들은데다가 또 그 적임자가 자진해나서기까지 한다.

(선왕의 훈령이 굵어살피사 고구려에 이런 은총이 내려졌구나.)

이렇게 되어 중 도림이 백제를 와해시킬 사명을 안고 백제땅으로 떠나갔다. 이때 도림은 죄를 짓고 고구려에서 도망치는것처럼 꾸몄다.

매생이에 몸을 실은 사람이 바로 도림이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백제의 도움에는 고구려에서 온 중에 대한 소문이 짝 퍼졌다.

《요새 고구려에서 고명한 중이 왔는데 그렇게 신통력이 있다면서요.》

《그렇다고들 합니다만.》

《그 스님은 바둑도 잘 두는데 그 수가 여간 높지 않다더군.》

《원 저런, 그런 중이 어떻게 여기엘 다 나타났나.》

《무슨 중죄를 지었나나봄데.》

말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이입저입을 거쳐 어느새 당시 백제의 임금이었던 개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다른것은 둘째치고라도 바둑수가 여간 아니라는 말에 더 귀가 솔깃해졌다.

《근래에 겨루어볼만 한 상대가 없어 적적하던 차에 마침이로다. 얼마나 수가 높길래 소문이 그다지도 요란한가. 여봐라, 그 중을 입궐시켜라.》

그리하여 도림은 백제의 왕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도림이 가사를 걸치고 궁중으로 들어가니 개로왕은 기다렸다는듯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대사, 원로에 수고로이 오셨소. 어서 대청에 오르시오.》

《나무아미타불, 소승이 고국에서 용납되지 못하여 귀국에 천한 몸을 의탁하고있는터에 이처럼 몸소 불러까지 주시니 몸둘 곳을 모르겠소이다.》

《대사의 바둑수가 나라안에 으뜸이라니 어디 한번 파인과 두어보지 않겠소.》

《소승이 젊어서 한 신인을 만나 바둑의 묘리를 대충 익히기는 하였소이다만 그리 신통한것은 못되오이다. 듣자니 대왕님은 위엄에 못지 않게 바둑수 또한 높다니 소승이 어찌 상대가 되겠소이까.》

도림이 은근히 추어주니 개로왕은 속으로 흡족해하는 기색이었다.

둘은 바둑판에 마주앉았다.

《수고자백이라 하였으니 수가 높은 대사가 흰 돌을 집으시오.》

《황송하오이다. 대왕께서 먼저 놓으소서.》

개로왕은 도림의 겸손한 언행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

이윽고 넓다란 전각안에는 정적이 깃든 가운데 바둑돌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회고 검은 돌이 바둑판을 채워나갈수록 개로왕은 수가 점점 궁해졌다.

도림의 수는 소문에 들던바 그대로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개로왕은 형세가 아주 불리해지자 손에 쥐고있던 바둑씨를 판우에 올려놓으며 탄성조로 말했다.

《대사의 바둑수는 참말로 신묘하오. 과연 국수요.》

《파찬의 말씀이오이다.》

《대사같은이를 좀더 일찌기 만났더라면 좋았을걸. 내 대사를 스승으로 모실터이니 그 묘술을 나에게도 넘겨주오. 아예 궁중에 머물러있는게 어떠한지.》

다음날부터 도림은 궁중에 머물러있으면서 개로왕의 바둑상대가 되었다. 바둑놀이에 빠진 개로왕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늦도록 바둑판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어떤 때는 정사를 보는것마저도 까마득히 잊어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10여일이 지나갔다.

어느날 도림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개로왕에게 조용한 어조로 말을 건네었다.

《신이 긴히 여쭈 말씀이 있나이다. 신으로 말하오면 이국의 한갓 중에 불과한 몸으로서 그저 한가지 재주로 봉사했을뿐이요 아직 터럭만 한 리익도 드리지 못했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왕께옵서는 신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같이 후하게 대하시니 과분하기 그지없소이다. 그래서 신이 이제 한마디 말씀을 올리려하는데 대왕께서 받아주실런지 모르겠나이다.》

《무슨 말인지 서슴지 마오. 만약 나라에 리되는 일이라면야. 이는 스승에게서 바라던바요.》

개로왕이 혼연히 받아몰자 도림은 속에 품고있던 생각을 털어놓았다.

《대왕님의 나라는 사랑이 모두 산과 언덕, 강과 바다이니 이는 하늘이 내려준 요충지요, 사람이 만든 형세는 아닌줄로 아나이다. 그런 까닭에 사방에 이웃한 나라들은 감히 엿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단지 받들고 섬기기에 겨를이 없소이다. 그런즉 대왕께서는 마땅히 그에 어울리는 위엄과 부귀로 사람들을 두렵게 해야 하오이다.》

도림은 백제의 지형상 유리성을 리유삼아 개로왕의 허영심을 복돋우며 그의 안색을 살폈다.

그가 진지한 표정을 짓고 말에 끌리어드는것을 보자 도림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런데 신이 살펴보니 대궐은 낮고 궁실들도 초라하여 볼품이 없소이다. 아무리 검소함이 임금의 미덕이라 한들 왕궁으로서의 체모야 갖추어야 할것 아니오니까. 궁성을 높이 쌓고 큰 루각을 갖추 지어 임금의 위엄을 보이고 나라의 재력을 드러내보이면 저 고구려도 감히 백제를 넘보지 못할것이며 백성들도 자연 대왕님을 우러를것이옵니다. 또 정사의 도는 효에 근본을 둔다 하였거든 어찌 선왕의 봉에 한오리 쓸쓸한 향불만 타오르게 하겠소이까.》

도림의 말은 제법 준절하였다. 그래서인지 개로왕은 연신 머리를 끄덕이었다.

《옳은 말이요. 대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활 열리는듯 하오. 내 이제라도 대사의 권고대로 하리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온 백제땅은 죽가마 끓듯 벽적대였다.

임금의 어명으로 나라안의 모든 장정들이 도성의 토목공사에 징발되었다. 흙을 구워 성을 쌓는 일이 벌어지고 그안에는 궁실과 루각, 정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웅장하고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또 큰 돌들을 캐내어 요란한 돌곽을 만들고 부왕의 유골을 장사지내었다. 강기슭에는 수십리 구간에 폭을 쌓고 나무를 심어 경치를 돋구게 했다.

이로 말미암아 국고는 거덜이 나고 백성들은 곤궁해졌다.

계다가 밭을 갈고 씨를 부려야 할 농번기에 장정들을 부역에 끌어내다나니 농사까지 망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갔다. 술한 백성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여기저기로 방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고구려로, 신라로 넘어갔다. 여기에는 백성들뿐아니라 개로왕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관리들도 있었다.

실로 백제는 닭알을 포개썩은듯 한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였다.

그래도 개로왕은 이러한 형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로운 궁전에서 안일한 생활만을 일삼았다.

이렇게 날이 지나고 달이 가는 사이에 계절도 바뀌어 어느덧 가을에 들어섰다.

그러던 어느날 바깥구경을 하겠노라고 도성문을 나선 도림이 땃새가지나고 열흘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개로왕이 몇번이고 사람을 띄워 그를 찾았으나 행처를 찾을길 없었다. 하기는 찾을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목적을 달성한 고구려의 중 도림은 이미 고국 땅에 발을 짚고있었다.

도림의 상념은 여기서 그쳤다.

얼마후 그는 안학궁에 이르러 장수왕앞에 나섰다.

도림으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받은 장수왕은 대단히 만족하였다.

《그지간 정말 수고가 많았소.》

《나무아미타불. 모든건 부처님께서 우리 고구려를 굽어살피신 덕택이오이다.》

장수왕은 마침내 3만의 군사를 일으켜 백제원정의 길에 올랐다.

고구려군은 충천한 기세로 순식간에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사로잡았다.

《내 어리석고 총명치 못해 간인의 말만 믿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백성은 쇠진하고 군사는 약하니 아무리 위급한 사태가 닥친들 누가 나를 위해 힘껏 싸우려 하겠는가.》

이것은 림종에 이르러 개로왕이 부르짖은 탄식이었다.

결국 개로왕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른 격이 된것이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고 지나친 놀음과 사치로 엮어진 방탕한 생활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한것이다.